• 불교의 생활화
• 불교의 현대화
• 불교의 세계화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제 686 호 구독신청 02)2004-8212 Buddhanews.com 불기 2552년 7월 2일(음력 5월 29일) 수요일(주간)



"인도는 나를 길러준 나라"
6 소설 '광장' 주인공 현동화 회장



나이팅게일, 부처님 딸로
12 간호사관학교 불자생도 수계법회



"부처님 광명은 삼천계로"
13 내한한 불광회 총회장 심정 스님



"원수까지 섬기는 것이 불공"
17 선지식-해월정사 회주 천제 스님

인도성지 한국사찰건립委 구성을 통해 본 해외포교 실태

인도 內 불교단체인 인도한국불교협회(회장 현동화) 회원들이 여법한 한국절 불사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2008년 6월 월우 · 도웅 · 성관 스님과 현동화 회장(재인도한인회 고문) 등 9명(총원 15명)이 6월 16일 인도성지 한국사찰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기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 눈길을 끈다. 1991년 9월 결성한 인도한국불교협회가 對 한국불교 활동 강화를 천명하며 구성한 위원회는 현동화 회장 귀국에 맞춰 6월 16일 1차 회의를 열고, 대외활동 강화를 선언했다. 6월 23일 2차 회의에는 정관 개정 등을 결의하고 달라이라마 초청법회 추진 등 불사를 위한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부처님 4대 성지 가운데 네팔에 있는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동산을 제외한 성도지 보드가야, 초전법륜지 녹야원, 반열반지 쿠시나가라에 각각 한국 사찰을 건립중인 월우 스님(보드가야 고려사), 도웅 스님(녹야원), 성관 스님(쿠시나가라 대한사)과 현동화 회장(재인도한인회 고문)으로부터 인도성지의 한국사찰 현황과 현지포교 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절다운 절 한 채 없다니…

월우·도웅·성관 스님 사찰 건립불사 추진
교계 관심·지원 부족… '불교 세계화' 먼길

 # "인도성지에 한국절만 없어"=세 스님은 왜 인도에서 불사를 시작했을까? 1987년 인도 바라나시 산스크리트 대학에서 유학했던 도웅 스님을 비롯해 1989년 성지 순례 중 보드가야를 찾은 월우 스님, 1991년 배낭을 둘러메고 쿠시나가라에서 기도했던 성관 스님은 한국만 제대로 된 절이 없어 불사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발심은 순간, 불사는 정진만큼 어려워="한국 절을 짓겠다"고 결심했지만 불사는 깨달음을 얻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았다. 인도에서 토지소유는 법인만 가능했다. 현동화 회장 도움으로 사단법인 인도한국불교협회를 결성한 1989년에야 스님들은 토지를 매입할 수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1993년 건물 2동을 완공한 월우 스님은 경제적 어려움에 고려사를 떠난 적도 있었다.

성관 스님이 1993년 시작한 대한사 불사도 돈 있으면 하고, 없으면 중단하기를 쉼 없이 반복했다. 도웅 스님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구도역정 같은 세 스님의 불사 이야기는 한결 같았다. "종단과 한국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아 직접 나서야 했다."

 # 인도성지에 한국사찰 왜 필요할까?=녹야원 개원법회 날이었다. 개원을 알리는 플랑카드를 보고 한국 여행자가 녹야원을 찾았다. 인도음식이 입에 안 맞아 며칠을 굶었다는 여행자는 잡채 등 법회를 위해 마련한 한국음식을 먹고 4시간 기절하듯 잠들다 깨어났다. 도웅 스님은 "타국에 나가면 한국사람만 봐도 반갑다. 그런 점에서도 불자를 위한 한국사찰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스님들이 인도에서 여는 법회는 주로 인도인 대상의 개종법회다. 도웅 스님은 인도인 의사를 고용해 병원 운영도 했다. 하루 100여명 이상의 순례객과 여행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녹야원은 그들에게 극락정토와 다름없었다. 월우 스님은 "독일, 미국인 관광객들은 미얀마, 티벳 등 사찰을 돌며 각국의 불교문화를 배운다. 인도성지의 한국 절은 한국불교를 알리는 더 없는 기회"라 강조했다.

 # 한국 불자들의 관심과 지원 절실=한번은 세 스님이 前 총무원장 스님을 면담해 금일봉을 받았다. 100만원이었다. 셋이 나눴더니 30여만원이라 스님들은 웃지도 울지도 못했다.

스님들은 인도성지를 찾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 절을 찾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지적했다. 월우 스님은 "미얀마 순례객만해도 호텔이 아닌 자국 사원에서 숙박한다"며, 5성 호텔만 찾는 한국인의 호화 성지순례를 비판했다. 한국 절을 피해 여행일정을 꾸리는 개신교 신자가 운영하는 여행사도 문제로 지적됐다. 성관 스님은 "매년 한국에서 인도를 찾는 5000여명이 조금씩 불전만 놓아도 불사에 큰 도움이 된다"며 아쉬워했다.

 # 인도한국불교협회와 현동화 회장의 발원=인도한국불교협회는 인도에 불교도 대사파견도 진행중이다. 김상길 총무는 "바티칸 등 외교관 파견 규정의 형평성에 따라 불교도 대사를 파견해야 국가 위상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오늘날 인도성지 불사가 이만했던 것은 현동화 회장 공덕이다. 현 회장은 "세계 어느 절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사찰을 인도성지에 건립하는 것이 소원"이라 말했다.

#종단의 해외포교 지원 시작해야=열악한 환경에서 포교하는 스님들을 종단에서 도울 수 없을까? 조계종 사회부 국제팀 양정술 팀장은 "1년 3000여만원 예산은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월세도 못내는 해외포교당 지원도 벅차다"고 말했다. 양 팀장은 "한국 순례객이 찾는 인도성지 한국사찰은 그나마 상황이 좋다. 한국 사람이 잘 안가고 불교국이 아닌 곳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열악하다"고 설명했다.

한 불자는 "해외특별 교구를 만들어 해외포교 지원을 확대하고, 대형사찰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후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포교원은 2006년 7월 포교국장 회의에서 '1교구 본사 1해외포교당 갖기' 운동을 언급하기도 했다. 2년여가 흐른 지금 조계종 해외포교 시계는 멈춰있다. 〈관련 인터뷰 6면〉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불교 알고 싶어 왔습니다"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생 20명은 6월 27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이웃 종교를 이해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천주교주교회의와 함께 하는 교회 일치와 종교간 대화'에 참가하여 이틀 째 일정으로 서울 조계사와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했다. 안내를 맡은 영공스님(조계사 선감)이 함께 방문한 이정주 신부와 학생들에게 조계사와 불교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글/사진=박재완 기자

정부 종교편향 불교계 뿔났다

조계종·불교단체, 근절 기구 구성 등 대응책 마련

국토해양부 대중교통정보시스템의 사찰누락사건, 경기여고의 성보매립사건, 어청수 경찰청장이 조용기 목사와 함께 경찰복음화 금식기도회 포스터에 등장한 사건 등 일련의 광범위한 개신교 편향사건들에 대해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가 강력대응에 나섰다.

불교계는 이러한 종교편향 행위들이 '현 정부의 종교코드 정치와 맞물려있다'고 규정하고, 본격적인 항의와 관련자 문책, 제도적인 재발방지 요구에 나섰다. 이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승원 스님은 6월 24일 유감 논평을 통해 "정부는 종교편향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조계종과 함께 불교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종교편향 근절을 위한 상시기구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6월 26일 조계종 총무원과 종교평화위원회(대표 손안식), 참여불교재가연대(대표 김동건) 등 교계 단체들은 '이명박 정부 종교편향 종식 불교연석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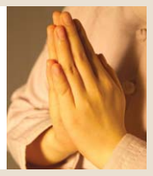
이날 중앙신도회 정순영 정보관리실장은 "어청수 경찰청장 사건 발생 후 바로 경불회 회장이 사퇴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명박 정부 종교편향에서 불교 인재를 보호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불교의 미래도 없다"며 범불교연석회의 출범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 실장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거나 국무총리 훈령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교계 성명서와 항의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6월 23일과 25일 종교평화위원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질의서를 제출한데 이어, 조계종 중앙종회 초선의원 23명과 조계종 자성청정실천운동본부(대표 진관)도 각각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종교편향을 성토했다.

일반 불자들도 격앙됐다. 박준호(서울 · 43)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살린다고 해서 뽑아줬더니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봉헌하려고 대통령했냐"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조계사에서 만난 다른 불자는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 실태를 보면 상당히 조직적이다. 청와대 등 권력층 핵심에 컨트롤타워가 있을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명박 정부의 조직화 · 정책화된 복음화 책동에 대응해 파사현정(破邪顯正)하는 실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성우 · 조동섭 기자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 취급업무 : 민사·형사·가사·행정
강영화 변호사 | 031)436-3054 010-7504-4521
김기현 변호사 | 031)436-3114 017-535-0685





www.buddhabook.co.kr
02_3672_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세계최고의 염주 소원성취 척척
금강염주
북한에서 소량 생산되는 세계 희귀 금강석과 올이온, 약알칼리, 게르마늄 등을 이온 결합하여 특수 소성된 친환경적인 최첨단 기능성 염주
값 245,000 | 02)723-0909



불가 최초 관불 관욕 전용 관불수향
전단향이 그윽한 향탕수로 관불,관욕시 생수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향 · 조각 · 공양물 02)3663-67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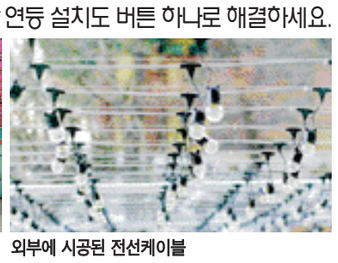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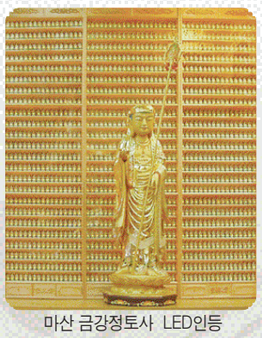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 등
미래의 소중한 꿈을 담아 삼보공양을 찬덕연등이 함께 합니다



영가등



주름등



팔각봉축접등



청사초롱



육각조립등



공단등



오색등



칼라(보카시)연등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죽비와 목탁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트렌드-아이콘’에 터치하라

한 달 넘게 지속된 촛불시위가 식을 줄 모르자 청와대가 국정홍보기획 재정비에 나섰다. 광우병 사태로 추락한 국가 이미지를 회복하는 모색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는 취지다. 최고경영자(CEO)를 자청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을 대상으로 광고주가 됐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과 필요한 것 인양 반복 주입시켜 착각하게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그러나 홍보가 지닌 양면성은 후자의 역할도 담당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시국의 추이를 주목하다 보니 한국불교의 포교문화 방법론을 되짚어 보게 된다. 지속되는 ‘사건 · 사고’로 얼룩진 위상이 불교계의 구체적인 대안 없이 지리멸렬히 반복되기 때문이다. 묵은 현안에 대한 방안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포교 대상과 방법론에 관한 뚜렷한 전망을 예고할 수 없다는 것이 난제다.

체계적으로 균형 잡힌 포교정책은 없을까. 자유분방한 창작의식 고취를 통한 유행 읽기가 하나의 해답이다. 중생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주기 위한 방편문(方便門)은 불교가 으뜸이다. 소화불량 상태인 불교의 활로를 뻥 뚫어 줄 명약은 이미 불법 안에 있다. 거대 자본주의 논리 속에 불교문화 또한 하나의 브랜드임을 인정해야 할 때다. 이 브랜드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의 불교는 산문 밖과 안 어디서도 분명한 ‘이미지’를 구축하지 못했다. 지금 한국불교에 필요한 것이야 말로 ‘공감 마케팅’이다.

시장경제 논리에 의하면 불자는 ‘문화 생산자’임과 동시에 소비자다. 전법교화 현장에 ‘원소스 멀티 유즈(One sauce Multi use)’를 제안한다. 부처님이 펼친 전법행은 슈퍼영웅의 활약상과 다르지 않다. 영웅은 죽어도 죽지 않는다.

이 시대의 붓다상은 수행전통의 본분은 오롯이 유지하되 ‘트렌드-아이콘(Trend-Icon)’으로 거듭나야 한다. 최근 템플스테이 열풍이야말로 공감 마케팅에 적중한 성공케이스다. 세월과 무관하게 정서의 향수를 자극하는 ‘전원일기’ 붓다도 좋다. 쇼 · 오락 분야의 개그맨 붓다, 멜로 붓다, 전위 예술 붓다, B-boy 붓다 모두를 포용하자.

‘삶’에 대한 궁극의 물음에 떠오르는 제1아이콘이 불교가 되는 길은 불교가 일상의 문화로 동화되는 것이다. 그 방법론에 있어서 불교는 문화브랜드 선언을 하고 유행을 수용해야 한다. 불법의 바다에는 범고래(프리윌리)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연등축제, 불교행사 넘어 국민축제로”

조계종 포교종책연찬회서 연등축제 방향성 논의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돼야 연등축제의 국제화 · 전국화가 가능하다.”

올해 50만여 명이 동참하는 등 전국 최대의 도심축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인 연등축제가 불교계 행사를 넘어 한국 문화의 대표 브랜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연등축제를 국민축제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연구실장 도신)은 6월 26일 ‘부처님오신날 국민축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29차 포교종책연찬회를 열었다.

15년 여 동안 행사가 계속 되면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다’는 문제제기와 홍보 부족, 행사 진행 인프라 부족 등의 한계를 뛰어넘어 한국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토론회였다.

이 자리에서 축제기획 불무 김유신 대표는 시민 참여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등축제를 불자들만의 것이 아닌 우리 민족 고유민속의례 전통이라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시민 및 외국인들의 제등행렬 참여공간 확대 ▲전통성과 대중성, 문화관광적 특성 또는 교육적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 적극 유치 ▲연등축제 전문요원 양성 ▲축제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난장터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요약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연등축제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서는 연등축제의 데이터베이스화, 지역 연등축제 관련 실무자 협의를 구성, 지역 연등축제 실무자 대상 연수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시했다.



6월 26일 열린 조계종 포교정책 연찬회 모습.

이어 NGO미래경영연구소 이영철 소장은 “연등축제에는 전략적 사업기획과 평가체계가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며 ▲과학적 전략을 가진 내부역량 및 자원분석, 국내외 수요자 메가트렌드(거대 조류) 예측, 국제축제 분석을 통한 포지셔닝 전략 수립 ▲단계적 목표치와 참여자 타깃 설정, 브랜드 이미지 구체화 ▲시의성 있는 프로그램 매칭 등을 제안했다.

연등축제가 ‘국민축제’로 승화될 가능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4일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의 2008 연등축제 참석은 ‘축제 발전 도약틀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고무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후 문광부는 조계종과 문화재위원회 등과 함께 연등축제의 무형문화재 선정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연등축제의 홍보 및 편의시설 부족, 통역 문제 등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연등축제에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방안도 논의 되고 있다.

봉축위원회 박상희 팀장은 “그 동안 서울에서 진행된 연등축제의 성과를 지방으로까지 확산킬 것”이라며 “연등축제가 전국적으로 퍼져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참여자 중심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기반시설부담구역서 사찰 제외를”

조계종, 국토계획이용법 개정안 관련 문제 제기

“입법예고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에서 종교시설, 특히 전통사찰은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이 6월 5일자로 입법예고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관련, 지난 3월 28일 폐지되었던 ‘기반시설 부담금’이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9월 29일 시행)로 재도입되어 불교계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란 건축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시행하는 제도로, 개발행위로 발생하는 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충실하고 동시에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

문제는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종교시설, 특히 전통사찰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와관련 조계종 기획실은 6월 26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사찰이나 비영리복지시설의 증 · 개축시 많은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으므로 삼보정재의 낭비는 물론 수행과 포교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피해사례로 서울 견지동에 건립중인 전법회관에 3억원의 부담금이 과잉 부과된 예를 들었다.

김성우 기자

“연등축제 다시 오겠다”

올해 참가 외국인 236명 중 95% 응답

불기 2552년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에 참여했던 외국인 대부분은 축제에 감동했으며 다시 한번 참여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회(위원장 지관)는 5월 3~4일 우정국로에서 열린 연등축제에 참여한 외국인 2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분석한 <2008 연등축제 외국인 방문객 조사연구 보고서>를 6월 24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응답외국인 94.7%는 연등축제에 “다시 방문하겠다”고 밝혔고, 올해 연등축제를 포함해 두 차례 이상 방문했다는 응답도 19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외국인들의 47%가 길거리 가로연등으로 수놓인 거리풍경을 연등축제의 대표 이미지로 꼽았고, 연등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제등행렬에 대해서도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외국인들은 두 명중 한명이 인터넷이나 지인의 추천으로 연등축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응답자들은 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휴식공간 부족, 다양한 먹거리 부족 등을 불편사항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 봉축위 박상희 팀장은 “화장실 등 편이시설 보강, 외국어 통역서비스 확대, 외국인용 기념품 제작 등으로 국내외국인 함께하는 신행과 포교의 한마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

청와대 불자회장 강윤구 사회정책수석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사임



이명박 정부들어 두번째 청와대 불자회장에 강윤구(사진) 신임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이 내정됐다.

청와대불자회는 지난 4월 첫 청 불회장에 취임한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이 사임함에 따라 강윤구 신임 사회정책수석을 후임 회장으로 내정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연금보험국장과 차관 등을 역임한 강 수석은 퇴임 후에는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로 재임하면서 불교사회복지연구소 연구자문위원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사직을 사임하는 대신, 불교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재단 이사 등을 맡아 불연을 맺어왔다.

한편, 6월 25일 정정길 대통령 비서실장과 맹형규 정무수석과 함께 취임인사차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한 강 수석은 이 자리에서 “불교사회복지연구소 연구자문위원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사직을 사임하는 대신, 불교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 : 02-2004-8279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사단법인 한국불교 삼론종 법계고시 실시

한국불교 삼론종에서는 종단의 전통성을 회복하고 종도 교육의 일환으로 불기 2552년 5월 7, 8일 삼론총림 부석사에서 제1차 법계고시를 실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법계고시 사전강의


■ 법계고시 시험중


■ 법계고시위원

한국불교삼론종 총무원장 이 성월

"자연장 장묘문화 포교 기회로"

조계종 '장사법 개정에 따른 불교계 정책수립' 포럼 개최

"자연장 이용한 장례문화 선도는 포교기반을 다지는 길이다."

5월 26일 시행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조계종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6월 27일 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인재개발원(이사장 허경만)이 정책포럼을 열고 중지를 모았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장사법 개정에 따른 불교계 정책수립을 위한 포럼'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정범 스님(조계종 중앙종회 포교분과 간사), 이상인 과장(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과), 박춘배 과장(경기도청 노인복지과), 박석암 기획팀장(강화 전등사), 이덕진 교수(창원전문대)가 참여했다.


6월 27일 열린 장사법 개정관련 정책 포럼에서 발표하는 정범 스님.

정범 스님은 '불교계의 사업방안 제안 및 검토'를 통해 "자연장 중심의 화장(火葬) 문화로의 전환은 불교계에 더없는 기회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현재 각 지자체마다 화장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이 불교계가 나설 적기"라며, "기존 사찰 다비 시설을 보완 · 정비해 활용하자"고 역설했다. 현재 조계종 전통 다비장은 해인사 · 범어사 · 백양사 등 교구본사에 갖춰진 상설 다비시설과 여건이 허용되는 사찰에 마련된 임시 다비시설로 나뉜다.

정범 스님은 사찰 다비시설 활용 방안으로 인구밀집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 사찰에서 사찰다비시설을 시범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스님은 "사찰은 토지를 제공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시설비를 부담해 시설 비용을 분담하자"며, "사찰 다비비설과 수목장림을 연계한다면 국민 편의의 원스톱 장사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잘못됐던 납골문화를 예로 들어 불교계 위상을 추락시켜서는 안된다는 당부도 있었다.

정범 스님은 이를 위해 ▲종법 상 수목장 관리체계 성문화 ▲종단 내 수목장 총괄관리기구 신설 ▲수목장 운영 사찰에 책임분담금 납부 의무화 ▲개별사찰 민원발생시 종단 차원 해결 등 선결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이상인 과장은 '장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연장 제도 안내'에서 ▲환경 · 주민 친화적 ▲경제성, 지속가능성 ▲세대간 연대성 등 자연장 도입 취지와 장점을 설명했다. 이 과장은 "자연장 정책 방향은 궁극적으로 화장시설, 자연장지, 봉안시설 등을 갖춘 종합추모시설이다. 사찰이 자연장 환경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박춘배 과장은 '경기도 장사시설 현황과 정책방향'을 통해 화장장 1곳, 공설묘지 4곳, 납골당 6곳으로 경기도내 수도권 장사시설 현황을 설명했다. 박 과장은 "화장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돼 선박등 이동식 화장시설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정부차원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석암 전등사 기획팀장은 '수목장 운영사례'에서 "강화 전등사에서 수목장 운영 결과 불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면서, "올바른 방향제시를 위해 테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정책포럼을 지켜본 한 장례문화 전문가는 "수년간 수차례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종단 의견수렴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연구자 도덕성이 결여된 것"이라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교구본사별 장의전문 도량을 지정해 지역별 거점을 마련한다면 종단의 장례문화 선도가 가능할 것이다. 기존 사찰을 이용할 경우 수행 환경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다비시설은 상설이 아닌 차량 등에 탑재한 이동식으로 꾸며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경기여고 불교문화재 훼손 물의

교내 석탑·석등 등 임의로 해체…문화재청, 보존방안 마련키로

서울 개포동 경기여고(교장 주영기)에서 불교문화재 3점이 훼손돼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5월 말, 학교 공원화 사업 중 주 교장이 지시해 교내 중앙정원 등에 위치했던 5층 석탑과 석등, 교계 첫 의료병원인 '불교제중원(佛敎濟衆院)' 표지석을 땅에 묻은 것.

전문가의 문화재 검증도 없이 매장된 사실에 교사들이 반발하면서 6월 4일, 석탑 등은 다시 꺼내졌지만 석탑과 석등은 해체된 채 학교 방송실 창고로, '불교제중원(佛敎濟衆院)' 표지석은 화단에 방치됐다. 이 과정에서 석등 다리 하나는 부러져 훼손되기까지 했다.


경기여고 화단에 방치된 '불교제주원' 표지석.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6월 26일 관계전문가 실태조사에서 경기여고 불교문화재가 1920년대 조성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6월 27일 현재 문화재청은 경기여고로부터 이관 받아 국가기관에서 관리하거나, 경기여고 내 별도 공간에 마련하는 방법 등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용역업체에 의해 '불교제중원' 표지석만 오고 기단석은 정동에 남아있는 등 학교 의지와는 관계없이 교정에 있던 물건들이었다"는 경기여고 관계자의 말은 근대 불교문화재 관리대책이 시급함을 일깨운다.

조동섭 기자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최우수 의료기관 선정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원장 이진호)이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한 2007년 의료기관평가에서 전체 15개 부문 'A등급'을 받아 최우수 의료기관에 선정됐다.

500 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 희망기관을 대상으로한 평가는 ▲진료 및 운영체계 ▲부문별 업무성과 ▲임상질지표 ▲환자만족도 등 4개 영역으로 나뉘어 실시됐다.

동국대가 A등급을 받은 15개 부문은 환자 권리와 편의, 인력관리, 진료체계 등 진료 및 운영체계 6개 부문과 환자진료, 의료정보 · 의무기록 등 부문별 업무성과 9개 부문이다. 또한 환자만족도부문에서는 외래 'A등급', 입원 'B등급'을 받았다.

조동섭 기자

"강의석씨 재판 학내 종교편향 현실"

종자연·참여연대, 초심·고등재판 분석 긴급토론회

종교편향 문제로 학교법인 대광과 법적 대치중인 강의석씨 문제를 다룬 긴급토론회 '강의석씨 1심, 2심판결 비교 및 학교현장에 미칠 영향 토론'이 6월 24일 열렸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과 참여연대공익법센터의 공동 주최로 서울 인권실천시민연대 교육장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강의석씨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시각으로 강의석씨와 학교법인 대광 간의 초심, 고등재판을 분석했다.

종자연은 "4월 15일 있었던 '학교자율화' 조치에 따라 종교사학이 학생들에게 종교수업을 강요할 수 있게 되어가는 현 상황에서 강의석씨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종교 사립학교의 현황과 운영개선 방안'(김행수 전교조 사립위원회 사무국장), '종교사학에 빼앗긴 학생의 존엄과 자유'(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교사), '강의석군 판결에 나타난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고찰'(조재현 성균관대 비교법연구소 연구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종자연은 강우석씨의 대법원 재판비용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02)2278-1141

김강진 기자

팔공산 갓바위 케이블카 추진

사찰·환경단체 "문화재 훼손·생태계 파괴" 반발

설악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케이블카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 산은 전국 10여 곳. 전국의 명산들이 케이블카 설치 문제를 둘러싼 공방에 휩싸인 가운데, 대구시가 연간 1천만명이 넘게 찾는 팔공산 갓바위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나서 환경단체와 인근 사찰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구시는 6월 23일 대구시 동구 진인동 식당가에서 팔공산 갓바위까지 1269m에 걸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 124억원은 갓바위 부근 주민 150여명으로 구성된 '갓바위 케이블카 유치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응재)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경북 경산시와 경북도, 경북도 문화재심의위원회, 문화재청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공사를 시작해 2010년쯤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겨냥한 이 계획에는 동화사 경내 통일대불 지하공간(2000㎡)에 '선수련원'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갓바위의 정식 명칭인 석조여래좌상이 보물 431호로 지정돼 있어 문화재 보호구역 및 그 외곽 500m 지역에는 케이블카를 놓지 못하도록 돼 있는 법률에 따라 현재 상태로는 이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없다. 또 갓바위 인근 사찰 선본사와 케이블카가 지나가는 땅의 소유주인 관암사, 그리고 지역 환경단체들은 "케이블카가 팔공산 자연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며 공사를 막겠다는 뜻을 비쳐 충돌이 예상된다.

김성우 기자



직장직능 연합신행단체 직지사서 임원수련대회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7월 5~6일 김천 직지사 만덕전에서 '직장직능 연합신행단체 임원수련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련대회는 수련프로그램과 특강, 화합의 장 등을 통해 신심증장과 더불어 침체된 직장직능불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01년 이후 7년만에 열린 직장직능 연합신행단체 수련대회는 입제식을 시작으로 종교환경변화에 따른 신행단체 임원들의 역할과 사상체질에 따른 조직 활성화 방안모색 등을 주제로 한 2차례의 특강, 1080배 참회정진, 화합의 장,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스님의 법문, 걸기명상, 참선 등으로 진행된다. (02)2011-1891

노덕현 기자

봉행

(사)대한불교대승종 제10대. 제11대
총무원장 이 · 취임 대법회

귀의삼보하옵니다.
불타의 자비광명이 법계에 두루 하시기를 삼보전에 기원드립니다.
금번 대한불교대승종 **제11대 총무원장으로 추대받은 법진 도일 큰스님**과 아울러 **제10대 총무원장 법천 청화 큰스님의 이 · 취임**을 봉행코저 하오니 제반불사에 공사다망 하시더라도 꼭 왕림하시어 뜻 깊은 법석의 자리가 되도록 빛내주시길 앙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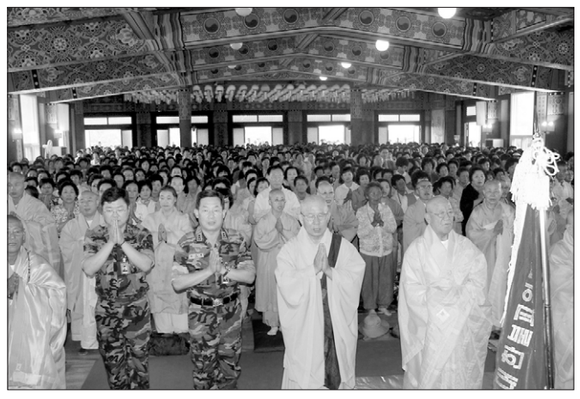
◆일 시 : 불기 2552년(2008) 7월 15일 (화요일) 오후 5시
◆장 소 : 서울 중구 장충동 소피텔앰베서더 호텔 2층 대연회장 / 02)2275-1101
◆연락처 : 02)951-1074 / 010-9903-1257

사단법인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이 · 취임 법회
봉행위원장 법암 혜심
집행위원장 법장 원해
합장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국정원·삼사관학교서 한국전쟁 58주년 맞아 천도법회 봉행





6월 25일 국정원에서 열린 ‘호국 영령·순직 직원 천도추모법회’(왼쪽)와 육군 사관학교에서 봉행된 ‘전몰 장병 위령 천도재’.

한국전쟁 발발 58주년을 맞은 6월 25일, 국가정보원과 육군 삼사관학교에서는 호국영령과 전몰장병을 추모하는 법회가 나란히 열렸다.

국정원 불자모임인 세기법우회와 국정원 퇴직 불자모임인 양지법우회는 이날 국가정보원 내 소강당에서 회원 100여명과 구룡사 신도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호국영령·순직직원 천도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세기법우회 S 회장은 봉행사에서 “이번 천도법회를 통해 자신의 탐진치를 돌아보고 국민을 받드는 민족의 공복(公僕)으로 거듭가겠다”며 “어렵고 힘들어도 보현보살의 인욕바라밀로 이겨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양지법우회 Y 회장은 봉행사에서 “1700년 호국불교가 나라를 지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이번 천도법회는 6·25를 맞아 국정원 순국영령뿐만 아니라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모든 영가를 위한 법회로 매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불 스님은 영가법문을 통해 “산 영가와 죽은 영가가 다르지 않기에, 지금 우리 또한 천도해야 한다”면서 “이번 천도법회로 자신을 천도하는 새로운 안목을 열어 국가안보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가를 위해 일하지만 이름조차 드러낼 수 없는 국정원 전현직 불자들은 발원문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국가안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구룡사 합창단은 남 모르는 곳에서 묵묵히 국가를 위해 일하다 순국한 영령과 직원들을 위해 아낌없는 음성공양을 올렸다.

한편,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총무원장 지공)이 주최하고 영주 관음사가 주관한 ‘호국 전몰장병 위령 천도재’가 같은 날 영천 육군 삼사관학교(교장 손무현 소장) 충성호국사(주지법사 혜산) 대법당에서 봉행됐다.

이번 법회에서 관음사 주지 도기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자비정신으로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되새겨 안정된 미래를 준비하자”고 말했다. 이어 법회를 후원한 삼사관학교 손무현 교장은 “국가의 안녕을 위해 몸 바친 호국 영령들을 위해 추모 대법회를 열어주신 불자님들께 후배로써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추모사를 했다. 이날 법주인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지공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불보살의 위신력으로 고통받는 호국 영가를 천도하는 것은 불교만의 고귀한 자비행이다. 항상 불자로서 국가의 안정을 위해 기도하자”고 법문했다.

이날 영주 관음사신도회는 장병들을 위한 교육자료 위문품도 전달했다.

김성우 · 노덕현 기자



6월 24일 봉행된 사도세자 246주기 제향에서 헌다하는 조계종 원로의원 정무 스님.

‘사도세자’ 제향 복원

화성 용주사, 100년만에 불교식 봉행

뒤주에 갇혀 훙서(薨逝)한 사도세자가 100년 만에 용주사의 제향을 흠향(歆饗)했다.

화성 용주사(주지 정호)는 6월 24일 오후 7시 사도세자의 246주기 제향을 봉행했다. 문중이 아닌 사찰이 봉행하는 제향으로는 100년 만에 복원된 행사였다. 1789년 사도세자의 묘가 지금의 융릉으로 옮겨진 뒤 능찰로 건립된 용주사는 지난해 정조대왕의 제향을 복원하는 등 효행도량의 맥을 이어 오고 있다.

용주사가 주관하는 사도세자의 제향은 국보 제120호인 용주사 범종을 다섯 번 울리는 것으로 시작해 독경과 헌다례·부모은중경 봉독·헌화 등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행사에서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은 “백행의 근본인 효를 몸소 실천해 보인 정조대왕은 오늘날까지도 귀감이 되고 있다”며 “정조대왕과 사도세자의 제향 복원은 용주사의 존재 이유를 찾는 뜻 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용주사는 사찰의 원형을 회복하고 효행본찰의 위상을 고양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홍살문을 복원하고 호성전의 현판도 제막했다. 사찰 내에 홍살문이 서 있는 경우는 용주사가 유일하다. 융릉의 능찰인 용주사 대웅보전 옆에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 정조와 효의왕후 등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호성전이 있기 때문이다. 효행의 의미가 깃든 홍살문을 복원한 용주사는 이날 제향에서 효문화 비전도 선언했다.

제향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정무 스님, 안양호 경기부지사, 박보환 김성희 국회의원, 전무송 경기도 문화의전당 예술총감독, 정수자 시인, 이석 황실문화재단 총재, 오근택 오산시문화원장, 홍기헌 수원시의회 의장, 박천복·진재광·백승대 경기도의원 등 1000여명이 참여했다.

임연태 기자

“아이 걱정 말고 일요법회 오세요”

능인선원, 5세이상 자녀 베이비시팅 서비스

서울 능인선원(원장 지광)이 일요법회 시간동안 어린 자녀들을 돌봐주는 서비스를 실시해 눈길을 끈다.

능인복지관은 6월 22일 일요법회를 시작으로 매주 5세 이상 자녀를 일요법회 시간(오전 10시~오후 1시)동안 베이비시팅 해주는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능인복지관 관계자는 “일요법회 때 복지관 유아센타로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오면 복지사들이 아이를 돌봐드린다”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보호자가 맡기고 가야 하며, 법회가 끝나면 데리러 와야 한다”고 말했다.

능인선원의 일요법회 베이비시팅은 어린 자녀 때문에 법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젊은 부부 신도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채는 아이 때문에 법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다른 사찰의 신도들이나, 법회 참석률 때문에 고민했던 주지 스님들이 벤치마킹할만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 (02)571-2988

김성우 기자

생활불교조계종 첫 주지연수 교육

백암 한화리조트서 개최

생활속의 불교를 종지로 하는 (사)생활불교조계종(총무원장 도선)이 창종 후 첫 주지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총본산인 경북 영양 관법사에서 입제한 주지연수교육은 200여 종도가 참석한 가운데 ‘Wake up 일어나라 눈을 뜨자’를 주제로 6월 24~26일 2박 3일간 백암 한화리조트에서 진행됐다.

입제식에서 부종정 정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본은 교육이다. 신념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총무원장 도선스님은 “생활불교를 기치로 중생포교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승가교육이 기본이 돼야 한다”며 “과거 나태한 자세를 버리고 참마음으로 깨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6월 24일 영양 관법사에서 열린 생활불교 조계종 주지연수 입제식.

이번 주지연수에서는 암도 스님(조계종 前 포교원장)의 ‘생활불교 실천’에 대한 강의와 제반 불교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직장직능 연합신행단체 임원수련대회

7월 5~6일 김천 직지사서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오는 7월 5~6일 김천 직지사 만덕전에서 ‘직장직능 연합신행단체 임원수련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련대회는 수련프로그램과 특강, 화합의 장 등을 통해 신심증장과 더불어 각 연합단체 임원진간의 친목 도모와 침체된 직장직능불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01년 이후 7년만에 열린 직장직능 연합신행단체 수련대회는 입제식을 시작으로 종교환경변화에 따른 신행단체 임원들의 역할과 사상체질에 따른 조직 활성화 방안모색 등을 주제로 한 2차례의 특강, 1080배 참회정진, 화합의 장,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스님의 법문, 걷기명상, 참선 등으로 진행된다.

수련회에는 각 신행단체별로 5~20명의 임원진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02)2011-1891

김성우 기자

구독신청 · 기사제보 | 02-2004-8200

참선단식 간화선의 생활화와 단식수련 단식과 간화선체험

몸에 끄달리면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 –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수행이다.
일상의 삶을 통해 접근하는 간화선 수행의 지름길을 찾는다.
생활 속에서 화두참구로 공부 힘을 얻고 삶의 방향을 세운다.

– 일상에서 바로 들어가는 간화선 생활화
6박 7일 동안에 공부 힘을 얻을 수 있다.
– 공부 힘이 생기면 생활이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공부 힘은 운명과 천성에도 좌우되지 않으므로 사주팔자를 한탄할 필요가 없다.
업장과 습관도 본래공적하다.
단식의 신체적 자극을 통해 외부로 향한 타성을 내면의 세계로 회복하는데
대단히 뛰어난 수행이다.
참선과 단식수행으로 사고의 틀을 헐고 무한자재의 절대근원의 자아를 회복한다.

시원한 제주앞바다에서 만나는 간화선 삼매체험 단식수련

간화선과 금강단식의 진행과 특징

1. 체질개선 해독 피부미용 아토피 체중감량(1일 최고3kg) 고혈압 당뇨 위장 대소장 심장 간장 폐 신장 치료 예방 절연 등 부작용 없는 다양한 효과. 예비단식 보식이 필요 없음
2. 자아통찰로 운명 천성이 바뀜. 심신개벽 자신감 신념증대 창의성 능력개발 성격개조 우울증 신경쇠약 정서안정 공포불안 대인관계 인내심 집중력 기억력
3. 단식은 마음으로 한다. 몸과 마음은 나누어지지 않는다. 단식으로 부담 없이 가볍게 화두참구에 들어간다.
4. 신체 정신부담을 줄인 정진과 단식병행 – 몸과 마음은 나누어지지 않기에 가능하다.
5. 바로 끊고 바로 먹는 금강단식. 단식 부담은 최소 위험부담은 없음.
6. 단식 전 예비단식, 단식 후 보식이 전혀 필요 없음. 7. 물만 마시고 난치병 성인병을 치료할 수 있다.
8. 하루일과 – 선법문 좌선 행선 운동 묵언 취침

가. 홈페이지 www.wseon.com / 원명선원.kr
나. 대상 및 일정 : 일반인 60세한(6박 7일) ◆1차→08. 7. 29~8. 4 ◆2차→08. 8. 8~8. 14
다. 회비할인 : 7월 15일까지 접수시 회비의 30%할인(홈페이지 수련회 안내문의 내용에 따름)
라. 입금계좌 : 농협 953-17-000706(예금주-원명선원)
마. 접수후 항공편을 속히 예약바람(제주도외 지역해당)
바. 연락처 : 제주시 화북 1동 원명선원(교대옆) ☎ 064)755-3322

통찰의 도량 한라산 원명선원 물만 마시고 성인병을 치료 할 수 있다!

우울증 덜어주는 '香의 효능'

해외불교칼럼


향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향내가 나는 나무 조각이나 수액, 잎사귀 등을 불에 태워 연기를 피우는 향의 주요기능은 심식정화(心識淨化), 그리고 분향묵좌(焚香默坐)라 일컫는 심신수양이다. 또 사람의 체취와 구취(口臭) 등도 거둬내는 향은 고온다습한 인도 등지에서 비롯한 이래, 등촉 및 꽃과 함께 불전에 공양되어 왔다. 그밖에 몸에 바르는 향을 도향(塗香), 그리고 불에 태워서 쪼이는 향을 소향(燒香) 또는 훈향(薰香)이라 한다.

향나무, 백단, 침향, 정향 등의 수목, 유향과 안식향의 수지(樹脂), 그리고 사향과 용연향 등 동물의 분비물이 향의 주된 원료다. 동서고금의 여러 종교지도자들은 분향(焚香)이 영적 분위기와 신앙적 감성의 조성에 매우 효과적이라 여겨왔다.

5월 20일 사이언스데일리 지는 일부 향연(香煙)이 두뇌건강에도 유익하다는 연구결과를 보도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과 이스라엘 히브류대학 합동연구팀은 보스웰리아라는 식물의 수지인 프랑킨센스(乳香)를 태운 연기가 뇌 이온채널을 활성화하여 불안감과 우울증을 완화시키는 과정을 밝혀냈다. 해당 논문의 공동저자인 라파엘메슐램의 말이다.

"이는 다시 말해서, 이제 전혀 새로운 종류의 항우울제가 바로 우리 코앞에 놓여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향에 관한 숱한 고대문헌들을 무시하고, 특히 보스웰리아의 구성성분이 지닌 심리활성적인 효과에 대해선 아예 외면해 왔다. 불교, 힌두교 등 종교계도 분향(焚香)에 상징적 의미만 부여해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우리 팀은 보스웰리아의 수지 성분인 인센솔아세테이트를 생쥐에 실험한 결과, 이 성분이 동물의 불안감과 근심을 경감시키는 한편, 항우울적 행태도 자극함을 입증했다."

연구팀은 생쥐에 인센솔아세테이트를 투여하여, 그 성분이 두뇌의 감정연관 부위와 신경회로에 복합적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FASEB 지의 편집장인 제럴드 와이스만 박사의 소견이다.

"이번 연구결과를 보니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란 칼 마르크스의 주장이 틀린 게 아니군요. 잘 아시다시피, 모르핀은 양귀비가 원료며 카나비노이드는 마리화나로 만들고 LSD는 버섯에서 뽑아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한두 가지는 예나 지금이나 늘 제의(祭儀)나 명상, 기도 등 신앙과 유관한 행위에 사용되어왔어요. 이러한 심리활성적인 약물들의 연구를 통해 신경생물학에 대한 이해를 더욱 넓히게 됐어요. 프랑킨센스에서 순수 정제된 인센솔아세테이트가 두뇌의 특정 목적부위에 작용한다는 사실이 확인됨으로서 신경조직질환의 파악도 더욱 쉬워졌습니다. 이 연구로 인해 수천 년간 지역, 문화, 언어, 종교를 초월하여 전승되어온 일부 영적 행위에 대한 생물학적 설명이 가능해졌어요. 즉, 향을 사르면 온 몸과 맘이 푸근하고 상큼해진다는 거죠."

미국 국립건강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15세부터 44세 사이의 미국성인 중 약 1480만 명의 무능력(disability) 증세를 유발하는 주요원인이 우울장애다. 또 현재 미국성인 중 약 330만 명이 우울장애의 이전단계인 감성장애, 그리고 약 4000만 명이 불안장애와 우울장애의 합병증에 시달린다. 마침내 심리안정의 효능이 입증된 향이 물질적 외화(外華)와 정신적 내빈(內貧) 사이를 떠도는 현대인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는지? 하지만 뭐든 지나치면 덜함만 못한즉 향 또한 알맞게 사용함이 옳을 것이다.

편역: 성휴 스님

출처 : Science Daily, Scent of Earth

"모스크바 유학시절 佛門의 길로"

몽골 엥흐바야르 대통령 인터뷰

독실한 불자로서 불교문헌과 서적들을 자국어로 번역 출판한바 있는 몽골의 엥흐바야르 대통령은 6월 15일 인도 익스프레스 지와 인터뷰에서 자신은 모스크바 유학시절 불문에 들어섰다고 술회했다.

구소련의 혹독한 종교탄압으로 한때 몽골 전체인구 중 약 13%인 11만여 명에 이르던 승려들이 '사회의 공적(公敵)'으로 내몰렸다.

1937년에서 1938년 사이에 2만여 승려를 포함하여 약 11만 명의 지식분자들이 학살당하고 남은 승려들은 강제노동 중동사, 아사하거나 고문 등으로 불구가 됐다. 또한 사찰 760여개가 약탈 파괴되고 일부는 군 막사, 창고, 마구간 등으로 바뀌었다.

"그렇듯 살벌한 정황에서 몽골불교전통의 영성적인 길을 새로 개척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따라서 저는 신앙적인 접근으로 당국의 감시를 부르기보다는 공산주의식 변증법 및 러시아식의 형이상학적 의문을 제기하는 우회방식을 택했습니다. 몽골인의 신앙주류인 대승불교는 중생제도를 위해 스스로 윤회의 길에 들어선 보살의 이상을 추구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장남인 내가 막내 누이와 집안을 스스로 알아서 돌봐야 한다고 가르치셨고, 이는 내 친구와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감으로 이어졌지요. 저는 그런 책무를 다하고자 정계에 들어선 지금도 매일 밤낮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특히 어려운 시기에 진정한 용기와 대자비의 가피를 입습니다."

출처: Indian Express

구독 문의 02-2004-8200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mind is flapping." "마음이 펄럭인다"

Four lamas were meditating in a monastery. All of a sudden the prayer flag on the roof started flapping. The younger lama came out of his meditation and said, "Flag is flapping" A more experienced lama said, "Wind is flapping" A third lama who had been there for more than 20 years readily continued: "Mind is flapping." The fourth lama who was the eldest roared visibly annoyed, "Tongues are flapping!"

라마 네 분이 참선수행을 하는데 지붕 위에 걸린 기도용 깃발이 갑자기 펄럭였다. 그러자 애송이 라마가 참선을 멈추고 입을 열었다. "깃발이 펄럭이도다." 그러자 그보다 수행을 좀 더한 라마가 한 마디 거들었다. "바람이 펄럭이도다." 곧이어 스무 해가 넘도록 수행을 한 세 번째 라마도 달랑 한 마디 덧붙였다. "마음이 펄럭이도다." 드디어 욱 치밀어 오른 최고참인 네 번째 라마가 으름장을 놨다. "혓바닥들이 나불대도다."



번안:성휴 스님, 그림:이태수

월드스타 불심도 스타

올리버 스톤 ❻

전쟁 통해 생명의 고귀함 깨달아

영화 '플래툰'에 자신의 참전 경험 담아
'전쟁'이라는 집단광기에 대한 양심선언

부대에 배치된 지 겨우 열흘 남짓, 월맹정규군의 기습으로 올리버 스톤 일병은 목에 총상을 입고 긴급후송이 된다. 그때서야 그는 자신의 운명을 생사를 가르는 저울에 달아보겠다는 한심한 자포자기가 사실인즉 지극한 자기애의 반어적 표현이었음을 깨닫는다.

이젠 어떻게든 살아남고 싶지만 세상만사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다. 다시금 전투에 투입된 그는 촌락에 불을 지르고 사람을 살상하는 일상에 절로 휩쓸려간다. 그리고 여느 병사들처럼 냉소적으로 바뀌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마저 상실한다.

"전쟁터에 용기란 없다, 단지 광기만 있을 뿐이다." 그의 대작 중 하나인 플래툰(Platoon)은 전쟁이란 이름의 제도적 집단발광에 대한 양심선언이다. 이 영화는 베트남의 미군공군기지에 막 도착한 수송기의 뒷문이 열리며 시작된다. 우울한 대낮의 적막이 깔린 활주로에 내려선 신병들의 불안한 눈길은 전사자가 담긴 검은 시체자루들에 머뭇거린다.

부대에 배치된 신병 크리스는 반스와 엘리어스란 두 상관을 만난다. 그들은 두려움에 떠는 신병들의 이름조차 묻지 않는다. 그들의 눈에 그 풋내기들은 어차피 선착순으로 사라질 소모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얼마 후, 병사 몇 명이 수색정찰 중 부비트랩에 걸려 죽는다.

눈알이 뒤집힌 중대원들은 이른바 베트콩동조부락으로 몰려가 쑥대밭을 만든다. 또 말이 통하지 않는 마을주민들에게 킬킬대며 총질을 하고 심지어 어린 소녀마저 강간한다. 게다가 반즈는 촌장의 아내가 하는 말투가 거슬린다며 가족들의 눈앞에서 태연히 쏴 죽인다.

때마침 이 광경을 목격한 엘리어스는 소총 개머리판으로 반즈의 턱을 걷어 치고 난투극이 벌어진다. 반즈는 군인이란 공인된 살인면허소지자, 그리고 엘리어스는 군인이자 평균치의 양심을 지닌 보통 인간으로 대비된다. 어느덧 반즈파와 엘리어스파로 나뉜 병사들은 마치 애들 불장난하듯 라이터로 온 마을을 불바다로 만들곤 유유히 사라진다.

통상감각을 벗어난 이런 광기는 공포감에서 벗어나고자 오남용하는 독주와 환각제로 인해 극단으로 치닫는다. 히스토리 플레이스의 베트남 전황기록에 따르면, 1969년 주월 미군 중 약 절반이 마리화나, 헤로인 등의 상용으로 야전병원에 후송되고 그 희생자가 전투사상자의 수를 웃돈다.

올리버 스톤의 현장체험은 화면 곳곳에 생생히 드러난다. 반쪽짜리 드럼으로 만든 야전분뇨통에 득실대는 구더기 떼에 휘발유를 부어 태우는 장면, 또 침침한 벙커 속에서 신나는 쳐 벌이는 광란의 파티 등은 졸병 올리버 스톤의 처연한 자화상과 다를 바 없다.

어느 날 작전에 출동한 중대 전원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다. 후퇴명령에 따라 각자 흩어져서 도주하던 중 반즈와 엘리어스가 단둘이 마주친다. 얼마 전 싸움의 응어리가 남은 반즈는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서는 엘리어스의 가슴을 쏜다. 헬리콥터로 탈출하던 크리스는 죽은 줄 알았던 엘리어스가 피투성이가 되어 베트콩에 쫓기는 모습을 내려다보지만 속수무책이다.

베트콩의 총을 거푸 맞은 엘리어스는 뭔가 호소하듯 두 팔을 쳐들며 쓰러진다. 이내 반즈를 의심한 크리스와 몇몇 소대원들은 반즈를 없애려다 되레 당할 뻔 한다. 며칠 후 야간전투에서 반즈가 크리스를 죽이려 듯다가서는데 때마침 미군의 폭격으로 둘 다 쓰러진다.

이튿날 중상을 당한 반즈를 찾아낸 크리스는 얼마 전 반즈가 엘리어스에게 했듯 정조준해서 확실히 보내버린다. 퇴각하는 헬리콥터의 소음 속에 허탈한 내레이션이 깔린다.

"우린 우리끼리 싸웠던 거예요. 적은 우리 자신 안에 있었죠. 이제 나에게 전쟁은 끝났지만 내내 내 맘속에 남을 겁니다. 엘리어스도 반즈와 티격태격하며 평생 동안 내 영혼을 사로잡겠죠. 때론 내가 그 둘을 아버지로 하여 태어난 아이처럼도 느껴지는군요."

이는 아카데미상 4개 부문수상의 걸작 '플래툰' 제작의 변이기도 하다.

"살아남은 자들은 그 전쟁을 기억해야 하며 거기서 배운 걸 남들에게 가르쳐주고 생명의 고귀함과 참뜻을 찾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단한번의 현실체험도 끔찍한 장면들을 스크린을 통해 고스란히 되비춰준 올리버 스톤 도반의 카르마는 어떤 걸까?

<계속>

성휴 스님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아름다운 등

미래의 소중한 꿈을 담아 삼보공양을 찬덕연등이 함께 합니다


영가등



주름등



팔각봉축접등


청사초롱


육각조립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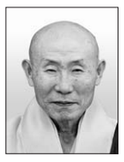

공단등


오색등


칼라(보카시)연등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일주문



지장기도법회
봉화 축서사 선원장 무여 스님은 6월 28일 군포 법해사에서 지장기도법회 초청법사로 참석해 법문했다.



미얀마중국 구호기금 1000만원 전달
부산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은 6월 23일 미얀마 태풍 참사자와 중국 쓰찬성 지진 참사자의 구호 성금 1000만원을 조계종 총무원에 전달했다.



백중까지 매주 본사 주지 초청법회
대구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은 6월 28일부터 8월 15일까지 '우란분절(백중) 49일 지장기도대법회'를 열고 매주 본사주지 초청법회를 개최한다. (053)982-0101



법주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당선
보은 법주사 기획국장 현관 스님은 6월 26일 법주사에서 열린 조계종 제5교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됐다.

"낳은 조국은 한국, 길러준 나라는 인도"

소설 '광장' 주인공 印 한국불교회 현동화 회장



"나를 낳은 조국은 한국이고, 방황하는 나를 받아준 나라가 인도입니다. 한국과 인도 두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생각에 인도성지 한국사찰 불사에 동참했습니다."

최인훈의 소설 <광장>의 실존인물로 자서전 제목처럼 '격랑의 세월 인도에 닻을 내리고' 살아온 현동화 회장(76 · 재인도한인협회 고문)이 한국을 찾았다. 1953년 수송선 아스토리아호를 타고 한국을 떠난 후 여러 번 찾은 고국이지만, 인도성지에 한국사찰 건립 불사를 위한 이번 방문은 의미가 달랐다.

1932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난 현동화 회장은 인민군 중위로 참전했다가 포로 생활 후 석방 때 남도 북도 아닌 제3국을 택해 인도에 정착했다. 인도군 사진기술자와 한국 대사관 노무자관리 등을 거쳐 무역업과 운수업, 여행업 등 다방면에서 성공을 이뤘다. 재인도한인협회장을 역임하며 한국과 인도의 가교 역할을 한 그는 1972년 아프카니스탄에 직조 기계를 수출해 한국 최초의 연불 플랜트 수출이라는 한국 산업 발달사에 큰 획을 그은 기념비적 인물이다.

현동화 회장의 불교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현동화 회장은 "미군 폭격으로 정신을 잃었다. 잠시 후 부상 입고 누워있는 내 몸과 군관학교 동기들이 나를 두고 이야기 나누는 광경이 보였다. 아무리 소리쳐도 내 말이 전해지지 않는 듯 했는데, 곧 사방이 캄캄해졌다"고 죽음을 경험한 당시를 회고했다.

현 회장은 죽을 고비를 넘긴 이후로 북한에서 교육받은 유물론을 부정하게 됐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떨칠 수 없었던 그는 인도에서 가톨릭 영세를 받기도 했다. 현동화 회장은 "인도인 주교의 암투병 모습에서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은 회의에 빠졌다. 1980년대 인도 북부 불교 유적지를 찾았을 때 폐허로 남은 무위무상(無爲無常)함에 가슴이 찡해지며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고 말했다.

현동화 회장은 "유물사관 때문인지 조직화된 종교에는 강한 거부감이 있다. 종교는 자신의 신념, 마음의 문제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 온 경험 때문에 유물론자지만 전생과 내생을 믿게 됐다"는 현 회장은 인도에 있는 많은 티베트 승려들과 교분을 쌓았다. 1996년에는 인도 델리 아쇼카호텔에서 달라이라마 초청법회를 열기도 했고, 수차례 달라이라마 방한을 추진하기도 했다.

현 회장은 2001년 아요디아 시(市)에 <삼국유사>에 기록된 48년 인도 아유타국에서 한국을 찾아 불교를 전래한 가야국 김수로왕 왕비 허황옥 기념비를 세우는데 혁혁한 도움을 줬다.

한때 현동화 회장 자신도 무국자였던 탓일까? 현 회장은 "티벳 난민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얼마 전 정우 스님(통도사 주지)이 컨테이너 5개 가득 옷을 보냈을 때 통관을 못해 전해지지 못하던 것을 도와 다람살라에 전한 것도 현동화 회장이었다.

현재 인도성지에 불사중인 월우 스님(고려사), 도웅 스님(녹야원), 성관 스님(대한사)도 "현동화 회장이 없었다면 지금의 불사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입을 모았다.

인도에서 55년을 기업을 일구며 평생을 살아온 현동화 회장의 남은 계획은 인도성지에 여법한 한국사찰을 건립하는 것이다. 현 회장은 "월우 스님 등을 돕기 위해 베이징올림픽 후 달라이라마 초청법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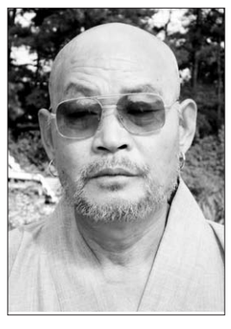
이번 방문에 윤필암을 찾은 것이 첫 한국사찰 방문일 만큼 한국불교에 문외한이라는 현동화 회장, 하지만 그는 인도에 한국불교를 알리는 보현보살이었다.

"일본, 미얀마, 베트남 등 불교국가 중 한국사찰만 인도성지에 없었습니다. 인도성지에 한국사찰을 건립하는 것은 한국불교 위상 문제입니다. 한국 불교계의 전폭적 지지와 관심 바랍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노인복지 함께 할 불자 찾습니다"

'달마노인복지회' 운영하는 달마스님



"불가에서 평생 지냈으니 죽기 전에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노인복지에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금은 형편이 좋지 않지만, 원력만큼은 식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불교아미타종의 종정 달마 스님은 1급 시각장애다. 어릴 때 침을 잘못 맞은 탓이다. 완전 맹인은 아니어서 출가할 수 있었고 지금도 사물을 미약하게나마 구분할 수 있다. 10여 년 전 아미타종을 창종한 스님은 노인복지로 금생을 회향하겠다고 발심했다. 비영리단체 '달마노인복지회'를 통해 무의탁 노인들의 공동체를 꾸리겠다는 것이 달마 스님의 원력이다. 그러나 도움을 주겠다고 찾아 온 사람들에게 두 번이나 사기를 당해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눈이 불편하고 능력도 없는 나를 이용하는 사람도 다 있더라"는 스님은 "이젠 더 이상 속지 않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만큼 여건이 허락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평생 달마도를 그려 온 스님은 "나와 뜻을 함께하며 노인복지로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 싶으신 분들과 인연을 맺고 싶다"고 말했다.

임연태 기자

이전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가 6월 27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 대성스카이렉스 101동 305호로 이전했다. (02)734-8050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위덕대등 자율 경영으로 불교인재 양성"

회당학원 혜정 신임 이사장



"위덕대 등 진각종립 학교의 자율적인 학교 경영으로 불교인재 양성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진각종 학교법인 회당학원 제21대 이사장으로 선임된 혜정 정사(수원 유가심인당 주교)는 "교육전문가들인 총장과 교장선생님들이 종립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6월 16일 새 이사장으로 선출된 혜정 정사는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인 산하 위덕대학교와 진선여중 · 고, 대구 심인중 · 고의 운영을 법인이 관리하는 차원 보다는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혜정 정사는 진각종립 위덕대학교의 현황과 관련, "진각종은 밀교종단이라는 다소 생소한 종단이다 보니 세간에서 정통 불교종단 보다는 민족종교로 오해된 측면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위덕대 설립 이후 진각종이 불교종단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게 돼 투자이상의 포교효과를 거둔 게 사실이다"고 평했다.

혜정 정사는 "장기적으로 경주 위덕대 본교의 서울 · 경기 캠퍼스를 마련하는 등 장기 발전방안을 마련, 불교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성우 기자

성덕 스님 입적

대구 동화사 前 주지



대구 동화사 前 주지 성덕 스님이 6월 24일 새벽 3시경 칠곡 송림사에서 세수 65, 법랍 53세로 입적했다.

성덕 스님은 1958년 벽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 66년 동일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4년 구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다. 이후 스님은 조계종 제10대, 11대 중앙종회의원과 호계위원, 법규위원을 역임하고 청도 적천사, 대구 대성사, 칠곡 송림사 주지를 맡아왔다. 영결식은 26일 오전 송림사에서, 다비식은 동화사 다비장에서 거행됐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불교 가톨릭 손잡고 음악회 열어



불교와 가톨릭이 함께한 '초여름밤의 음악회'가 6월 14일 진주시 하대동 (재)노인요양병원 프란체스꼬의집 광장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수익금은 불우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 청운경남남부지사장

전북불교회관 종범 스님 초청법회 봉행



전북불교회관은 6월 22일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을 초청해 '참된 주인이 되자'는 주제로 법회를 봉행했다. 매월 넷째 주 일요일 열리는 가족법회에는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했다. 조동제전북지사장

대전서구노인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쌀 지원



대전 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관장 장곡)과 결연을 맺은 대전 탄방초등학교 어린이들이 6월 23일 복지관어르신들의 무료급식을 위해 쌀 1012kg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쌀은 탄방초등학교에서 6월 18~20일 모은 것이다. 손효선 기자

명원문화재단 국민대학교와 M.O.U. 체결



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의정)과 국민대학교(총장 이성우)는 한국전통문화와 전통 차 문화의 교육 • 연구 • 보급을 위해 6월 26일 국민대학교 총장실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정규 교육과정 신설, <명원민속관> 지원, 교육과정 제공 등을 약속했다. 김강진 기자

강북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성산)은 시니어 봉사클럽 봉은사 연화대학과 함께 이용장애인 및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했다. 이번 무료급식에서 봉은사 연화대학에서 기금 100만원을 후원하고 회원 15명이 자원봉사자로 나섰다. 김강진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www.hypnos114.com

전생·빙의

인간 잠재의식 직접 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자기 개선은 물론 타인도 도울 수 있다.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잠재의식속에 숨겨진 심리적 근원을 밝혀 인간을 변화시키는 최면의 위력"

KBS 무한지대-큐
MBC TV특종 놀라운 세상
SBS 백만불 미스터리 부부솔루션등 출연

한국최면과학원장 임 재 형 박사 직강
미국 최면전문대학 객원교수
국제 임상최면 전문가(ICHT)
심리상담 전문가,성폭력 가정폭력 상담 전문가
한국최면지도사 협회장
국제최면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원
대학교평생교육원 최면학 강의 및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에서 생활최면 특강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의 실제, 최면요법 등

빙의치유
▶빙의령을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영가와의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현재 접수중

미국최면전문대학과 학술교류 협정
한국최면과학원 대표전화 : 1544~2741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대전 042)222-0737
대전시 중구 대사동 248-301청운빌딩2층

故 金在日 法師 東山般若會葬에 찾아주시고, 크나 큰 恩惠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歸依 三寶하옵니다.
언제나 건강하셨고 활기차게 활동하셨던 아름다운 法友, 김재일 法師님!
법사님은 진정한 재가불자, 부처님의 상속자이셨습니다. 법사님께서 교계 사부대중들과 함께 이루신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과 그 佛事들이 길이 전승됨은 물론, 한국불교를 위해 "늘 새로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故 김재일 법사님 장례식을 무사히 마친 것은 함께 해주신 사부대중 덕택입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드려야 도리이오나, 총총히 서신으로 대신하오니 널리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大衆傳法 敎學振興 德山 金在日法師 49재 일정을 알립니다. (문의 : ☎ 02)732-1206)

초재 : 6월 24일(화)	동산법당
2 재 : 7월 1일(화) 오전10시	동산법당
3 재 : 7월 8일(화) 오전10시	동산법당
4 재 : 7월 15일(화) 오전10시	동산법당
5 재 : 7월 22일(화) 오전10시	동산법당
6 재 : 7월 29일(화) 오전10시	홍천 연화사
7 재 : 8월 5일(화) 오전10시	동산법당

장의위원장 동산불교대학 이 사 장 安東壹
장 의 위 원 동 산 반 야 회 신 도 회 장 李鐘賢
장 의 위 원 붓 다 클 럽 총 재 李相雨
장 의 위 원 동산불교대학 총학생회장 金德潤
장 의 위 원 동산불교대학 총동문회장 李和烈
장 의 위 원 동산불교법사 단 장 林元鎬
장 의 위 원 동 산 포 교 사 단 장 車琅汕
장 의 위 원 동 산 대 학 원 회 장 姜榮吉

동산반야회 임직원 일동

미망인 전연화 딸 김수미
아들 김동선 사위 김건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불교계 현황과 과제

김민자(50 · 서울 은평구 대조동)씨는 요즘 고민이다. 시아버지가 치매 증세로 식구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의 주변 사람들은 시아버지를 전문요양시설에 모시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시설'이란 것이 썩 내키지 않는다. 김씨 자신의 양심 문제도 있지만 월 100만원을 넘는 시설 입소 비용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전문적 지식도 없이 노인을 돌보자니 이만저만 고생이 아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씨에게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노인인구 500만 시대에 접어든 대한민국.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치매나 중풍 등 중증노인성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노인 비율 역시 증가일로에 있다. 노인요양보험제도가 7월 1일자로 드디어 시행됐다. 그 동안 시설문제, 수급자 선정 논란 등 제도시행에 앞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고령사회에서 반드시 시행돼야 할 제도라는 것은 사실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도대체 무엇이고 불교계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시행해야 하는 것일까.

양질의 서비스로 경쟁력 높여야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무엇?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독일의 수발보험제도를 참고한 한국형 노인수발제도라고 보면 된다. 중증질병을 가진 노인들에 대한 가정 내 보호가 약화됨에 따라 국가가 그들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돌보겠다는 것이 궁극적 취지다.

지금까지는 이런 노인 서비스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됐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해 일반국민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사람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급여대상자 선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된 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매겨 1~3등급을 정한다. (아래 표 참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가장 좋은 점은 시설 또는 집에서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지정한 시설에서 간병 및 복지전문교육을 받은 국가공인 자격증을 보유한 '요양보호사'들이 간병 및 보호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즉, 전문화된 서비스로 노인성질병을 국가적 차원에서 케어하겠다는 의지다.



<표>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범위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상태	종일 침대 등에서 누운 상태로 생활	종일 앉은 상태. 휠체어로 이동가능	벽면 손잡이에 의존 실내 이동, 타인 도움 없이 외출 어려움
치매정도	최중증치매(판단 및 의사소통 불가능)	중증치매(일상생활 혼자 못함)	치매(타인 도움으로 일상생활 유지)
대상자 수 (2008년 현재)	약 6만명	약 4만 3000명	약 6만 8000명

☑ 불교계 진행 상황은?

지난해 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한다는 보건복지부 발표가 있었을 때부터 각 노인복지시설과 종교계에서 이 제도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노인복지시설은 제도의 변화에 따라가야 한다는 입장 때문이었지만 종교계의 경우,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시행해야 앞으로 중요한 포교 포인트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계는 현재 이웃종교인 개신교나 가톨릭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관심이 낮은 수준이다. 아직 제도 시행 초기라 각 종교별 시설 숫자 등 정확한 정보 파악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개신교나 가톨릭에 비해 체감적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황진수 교수에 따르면 개신교는 이미 제도 시행에 앞서 정보를 취득한 것은 물론 치매 · 중풍을 앓는 노인들을 어떻게 개신교계 시설로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집중적 연구를 완료했다. 또한 목사 중 일부는 요양시설을 만들기 위해 사택을 개조하기까지 했다는 것이 황 교수의 설명이다.

게다가 교회 자원봉사자들을 활용, 요양보호사 양성까지 나서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에 앞선 모든 준비 작업을 끝내놓았다는 것도 충격적이다. 제도 시행을 위해 각 교회단위의 모금활동 또한 이미 활발히 이뤄졌다.

이에 비하면 불교계의 활동은 지극히 미미한 형편이다. 극히 일부의 전문가들과 복지행을 펼치고 있는 스님들 사이에서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회자되고 있다. 이는 불교계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이 전국에 10여 개를 넘지 못하는 수준인 것만 봐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양성기관 숫자가 총 1000여 곳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0.1%도 안 되는 셈이다.

황 교수는 "불교계가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다가는 5년만 지나도 뒤쳐질 것이다"며 "노인포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복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단위기간별로 복지전문가의 분석을 토대로 전략 회의 등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불교계에서 무작정 손을 놓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각 시도별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설명회 여는 것은 물론 자체적 홍보자료를 제작, 전국 사찰 및 노인복지시설 500여개에 적극 홍보해 온 상태다.

또한 전국 교구 본 · 말사 사찰에서도 노인요양시설을 착착 개관하거나 개관 준비 중에 있다. 김천 직지사, 영천 은해사, 양양 낙산사 등은 이미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경주 불국사 등도 곧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재단 대오 스님은 "사찰 재정과 공간활용에 있어서 우선 해결돼야 할 문제가 많은 것도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이 제도 시행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작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인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세 가지는 변하지 않는다. 비용 · 서비스 · 접근성이 바로 그것이다.

☑ 불교계 앞으로 어떤 노력을?

첫째, 종교시설이라 할지라도 비용, 즉 시설의 지속성이 고려되지 않으면 난립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가운데서 살아남기 힘들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시설 노인과 재가노인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불교계에서는 어떤 시설을 갖추는 것이 정부지원금과 이용자 부담금을 적절히 조율해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무조건 요양시설 설립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충분히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은 16.5㎡(5평) 이상의 소규모 사무실과 요양보호사 3명 등의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서비스의 질은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이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산하 평택노인요양원 유애정 부관장은 "환자 케어서비스의 질적 부분에 대한 가족들의 요구가 까다로워질 것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때문에, '케어매니저'와 같이 노인요양시설에서 처한 상황에 맞게 정확한 진단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셋째, 접근성의 문제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건이다. 이는 요양시설을 찾는 이용자와 가족 뿐만 아니라 시설 종사자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다. 노인에게 조용하고 맑은 공기를 자랑하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접근성이 떨어지면 수요자 또는 직원 수급이 힘들어져 시설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질 좋은 프로그램 개발 역시 시급한 문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웰-다잉 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을 앞으로 노인요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또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여가 프로그램 등을 요양원 직원들이 직접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진행하는 것 역시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 조언했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Tip 요양보호시설 성공하려면?

#1 시설 입소자의 인권보호

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인권보호는 시설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금번에 통과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제6호 각목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등 학대행위를 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고 영업정지나 시설폐쇄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다.

#2 시설 서비스·환경 개선

직원들에게 프로그램개발 운영을 위한 서적 보급 및 친절교육, 타 시설 비교견학을 통한 전문프로그램의 모델링 또는 벤치마킹 등을 통해 입소노인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야한다. 입소노인들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기 전에 찾아서 먼저 해결해 주는 의료재활서비스와 질병예방 활동 등을 능동적으로 전개하여 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입소노인들이 선호하는 식단 마련, 웰빙 건강식 제공, 전통차 개발 제공 등 이상적인 급식영양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어르신의 휴게 공간 확보, 시설 내 악취 요인 제거, 충분한 편의시설 확보, 가족면회실 설치 등 쾌적한 시설환경을 구축해 한다.

#3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고령자는 시설 내에서 넘어지거나 침대에서 떨어지는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신체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사고 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용자 수발사고나 종사자 사고에 대비한 영업배상보험 등에 대한 기존보다 면밀한 대비가 요구되며, 시설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숙지토록 해야 한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따라 기본적 대책, 사고예방 대책, 사후적 대책으로 4단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시설인식개선 홍보강화

노인요양시설은 시설에 대한 오해로 인해 혐오시설로 인식, 지역에서 기피시설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설이 혐오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반시설 또는 편의시설로 인식되도록 지역사회에 시설을 개방하고 홍보해야 한다. 즉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의 노인복지를 가꾸어 나간다는 자세로 주민과의 신뢰 구축과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의 개발과 홍보에 대한 아이디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5 시설인력 전문성 교육 강화

시설 직원들의 자질향상과 정보접근성 확보를 위한 직원들의 직종별 전문교육과 보수교육 등 외부 교육기회를 최대한 부여토록 하고, 인권보호 교육, 안전교육, 회계 등 행정교육 등 정기적인 자체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고객 중심의 사고로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노인복지시설협회 김철중 회장 <한국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과 문제점> 중)

大韓佛敎曹溪宗 第九敎區 송림사 住持 紫湖堂 性德宗師 第九敎區葬 奉行에 대한 人事 말씀

歸依三寶하옵고
지난 6월26일(음 5월23일) 大韓佛敎曹溪宗 紫湖堂 性德宗師 의 영결식을 엄숙히 奉行하였습니다.
먼길에 직접 찾아와 주신 종단의 원로대덕 큰스님들과 제방의 큰스님들,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 그리고 사부대중께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또한 조화·조전 등으로 조의를 표해주신 각계 인사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큰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더욱 수행정진에 매진하겠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올림이 도리인 줄 아오나 우선 지면으로 인사 올림을 널리 해량하여 주시길 앙망합니다.

佛紀 2552年 6月 27日

자호당 성덕종사 49재 안내		
구분	일 시	장 소
초재	불기2552(2008)년 6월 30일(음 5월 27일) 월요일	송림사
2재	불기2552(2008)년 7월 7일(음 6월 5일) 월요일	송림사
3재	불기2552(2008)년 7월 14일(음 6월 12일) 월요일	송림사
4재	불기2552(2008)년 7월 21일(음 6월 19일) 월요일	송림사
5재	불기2552(2008)년 7월 28일(음 6월 26일) 월요일	송림사
6재	불기2552(2008)년 8월 4일(음 7월 4일) 월요일	송림사
회향	불기2552(2008)년 8월 11일(음 7월 11일) 월요일 법원진제 동화사 조실스님 법문	송림사

大韓佛敎曹溪宗 第九敎區 송림사 紫湖堂 性德宗師 門道一同 合掌

‘묵서지편’에서 찾은 고려시대 佛國寺



6월 20일 ‘불국사 석가탑 묵서지편의 기초적 검토’를 주제로 열린 조계종 학술세미나서 전문가들은 발표 후 종합토론 시간을 가졌다. 좌로부터 신용철(통도사 성보박물관)씨, 천주현 연구원(국립중앙박물관 보존처리팀), 김성수 교수(청주대), 남동신 교수(덕성여대), 정재영 교수(한국기술교육대), 안승준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김상현 교수(동국대), 정영호 관장(단국대 박물관), 노명호 교수(서울대), 이승재 교수(서울대), 최연식 교수(목포대), 박상국 원장(한국문화유산연구원), 주경미 교수(부경대).

최연식 교수, 조계종 학술세미나서 발표

석가탑 ‘묵서지편’은 불교미술사, 이두 등 국어학 뿐 아니라 불교의례와 불교사적으로 중요한 자료다. 문서 해독을 마친 ‘묵서지편’ 어떻게 연구될 수 있을까? ‘묵서지편’을 갖고 고려시대 불국사 상황을 재조명한 논문이 있어 눈길을 끈다. 6월 20일,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범하)가 ‘불국사 석가탑 묵서지편의 기초적 검토’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세미나는 석가탑 ‘묵서지편’ 연구를 집대성한 자리였다. 최연식 교수(목포대 • 사진)의 ‘석가탑 발견 묵서지편의 내용을 통해 본 고려시대 불국사의 현황과 운영’은 ‘묵서지편’ 해독에 따른 불교사적 연구의 가능성을 열어 보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최연식 교수는 “‘묵서지편’ 중 <무구정광탑기>의 기록에 따라 11세기 전반 불국사가 법상종 사찰이었다는 것이 증명됐다. 11세기 후반 이후 법상종 사찰로 바뀌었을 것이라는 기존 견해는 수정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는 불국사가 고려시대까지 화엄종 사찰이었다거나 11세기 후반 이후 법상종 사찰로 바뀌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최 교수는 “일반적인 선종 계열 사찰의 삼강전(三綱典)과 달리 불국사 삼강전은 도감, 부도감, 부감, 사 등으로 독특한 구성을 갖춰 교종 사찰의 구체적 사례”라 설명했다. 독특한 삼강전 구성에 대해 최연식 교수는 “삼강전은 선종 이전부터 있던 기관이다. 교종과 선종사찰의 구성이 다를 이유는 없지만 선종과 교종 사찰이 분립해 발전하면서 차이를 보였을 것”이라 추정했다. 그는 “삼강전은 사찰 최고운영기구가 아닌 실무운영기관이었다”면서, ‘묵서지편’에 기록된 대관전은 삼강전에서 분화된 기구로 설명했다.

최 교수는 ‘묵서지편’에 기록된 특별 법상과 사리 봉안의식 자료를 당시 신앙과 의례 모습을 보여주는 구체적 자료로 주목했다. “<무구정광탑기>에 석탑 중수작업 진행 중 봉행한 산신설경(山神說經)과 공덕천재(功德天齋) 기록은 당시 불교와 토착신앙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으로 본 최연식 교수는 “<무구정광탑기> 내용에 따르면 산신설경은 정기적으로 거행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불국사에 산신을 모시는 전각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덕천재는 인도 토착신 락슈미가 불교에 포섭돼 불교 수호신으로 변화된 공덕천녀를 모시고 복덕을 비는 법회다. <금광명경> ‘공덕천품’에 의거한 공덕천을 모시는 법회는 한국불교에서 주로 고려 무인집권기 이후에 보였고, 궁궐에서 공덕천도량(功德天道場) 형태로 개최됐다. 최 교수는 “공덕천재도 산신설경과 같이 정기적으로 거행됐을 것이다. 불국사에 공덕천을 모시는 특정 전각이 있었을 것”이라 추정했다.

최연식 교수는 “‘묵서지편’에 기록된 사리를 모시는 절차 및 의식이 755년 화엄사에서 <화엄경> 사경시 사경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의식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또 <서석탑기>에 불국사 승려와 신도 등의 7 · 7재(齋)와 기일재 기록이 있음도 언급했다.

고려시대 불국사 승려는 몇 명이었을까? 최 교수는 “<무구정광탑기>에 기록된 승려는 모두 90명 이상이며, 그중 불국사 소속 승려는 78명”이라 발표했다. 그는 “1024년과 1038년 당시 불국사에 머물며 석탑 중수 작업에 동참한 승려는 모두 300여명으로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고려시대 승려 명단 중 최대분량”이라고 주장했다. 최연식 교수는 “승려의 소임에 따라 ‘묵서지편’에 기록된 승려 중 약 20%가 승직을 가진 고급승려였고, 승직이 없는 일반 승려 중 일부는 화상(和尙)의 존칭으로 불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박지선 교수(용인대)의 ‘묵서지편의 보존처리와 연구에 관한 제안’, 노명호 교수(서울대)의 ‘석가탑 묵서지편의 문서의 연결복원과 판독’, 이승재 교수(서울대)의 ‘묵서지편의 어학적 의의’, 최연식 교수(목포대)의 ‘석가탑 발견 묵서지편의 내용을 통해 본 고려시대 불국사의 현황과 운영’, 주경미 교수(부경대)의 ‘묵서지편의 석탑 부재 및 사리장엄 관련 용어’, 박상국 원장(한국문화유산연구원)의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묵서지편’이 발표됐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묵서지편’ 석가탑에서 어떻게?

‘묵서지편’ 최초 수습한 정영호 관장 증언



1966년 불국사 석가탑 사리장엄물 및 묵서지편을 직접 수습했던 정영호 관장(단국대 박물관).

석가탑에서 900여년을 침묵한 ‘묵서지편’은 어떻게 수습됐을까? 1966년 석가탑에서 ‘묵서지편’을 최초 수습한 정영호 관장(단국대 박물관)이 말하는 당시 상황을 정리했다.

1966년 9월 ‘경주 불국사 엉망진창’이라는 한국일보 기사를 보고 스승 황수영 박사 등과 경주 불국사를 찾았다.

석가탑은 1·2·3층 옥개석 모두가 삐뚤어진 상태였다. 석가탑을 두고 당시 물리학자 등은 지진에 의한 것이라 주장했다. 불국사 스님들도 “지진으로 경상 위에 놓인 <경전>이 떨어질 정도였다”고 증언했으나 정 교수는 달랐다. 석가탑 옆 다보탑이 멀쩡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결국 석가탑 옥개석이 삐뚤어진 원인이 밝혀졌다. 불국사 수위가 도굴을 위해 건축용 작기로 탑을 뒤졌던 것.

바로 해체작업이 시작됐고, 석가탑 2층에서 사리장엄물이 수습됐다. 주지실에서 주지 경암 스님, 황수영, 최순우 박사 등과 뚜껑을 열었더니 밑바닥에 파란 묵지가 있었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도 쪽으로 나뉘어 있었다. 좌장격인 김상기 교수가 “측천무후글자다. 더 이상 손대지 말라”고 지시했다.

석가탑 해체를 두고 김재원 관장(초대 국립중앙박물관장) 등이 마음대로 해체했다며 반발하기도 했으나, 문화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유물 모두를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이관했다.

그 후 ‘묵서지편’은 1996년 한겨레신문에 손보기 박사가 묵서지편 존재를 세상에 알릴 때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됐다. 1997년 수장고에 보관된 보라색 라보자기에 싸여진 ‘묵서지편’ 해체가 시작됐다.

‘묵서지편’ 보존처리는 현재 진행중이다. 천주현 연구원(국립중앙박물관 보존처리팀)은 “석가탑 유물 보존처리 지시후 구성된 소위원회를 통해 2007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 1차 보존처리를 마쳤고, 2008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묵서지편’ 보존처리를 마칠 예정”이라 말했다.

당시 석굴암 해체는 정식발굴이 아닌 긴급 수습으로 공식 사진자료는 없다. 정 관장이 촬영한 것이 전부다. 정영호 관장은 기록보존을 위해 자신이 갖고 있던 촬영필름을 국립중앙박물관에 제공했다. 이 사진들은 불국사 성보박물관에도 제공돼 당시 ‘묵서지편’ 수습의 생생한 현장을 전할 예정이다.

정영호 관장은 “김상기 교수 지시를 따라 비단뭉치를 그대로 둔 것이 다행이었다. 그때 섣불리 해체했다면 오늘날 ‘묵서지편’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 말했다. 조동섭 기자

경봉 스님 학술적 조명 시작됐다

인도철학회 월례발표회서 정도 스님 발표

근대 선지식으로 가장 많은 선묵을 남긴 “공부는 발심에 있다” “바보가 돼야 참사람 된다” 는 법문과 여든이 넘어서도 철야로 정진해 수행납자의 귀감이었던 경봉 스님(1892~1982)에 대한 논문이 학술적으로는 처음 발표돼 눈길을 끈다.

6월 21일 ‘종교와 계율’을 주제로 동국대에서 열린 인도철학회 월례발표회서 정도 스님(동국대 강사)은 ‘경봉 선사의 선사상 일고’를 발표했다.

정도 스님은 경봉 스님의 생애를 출생 · 출가 후 만봉 스님을 만나 ‘소소영영(昭昭靈靈)’한 주인공을 찾아 정진했던 선지향기(1809~1929)와 경전과 실천의 균형을 지향했던 중생교화 시기였던 전법도생기(1930~1953), 마음자리의 선관을 뚜렷히 확립한 회향기(1954~1982)로 나눴다.

스님은 “구한말 성해 스님에서 시작된 영축총림 선맥이 구하 스님과 경봉 스님으로 나뉘었다”고 설명하고, “경봉 스님 선사상의 특징은 ▲(주인공이 돼) 멋있게 살라 ▲평상심시도 ▲선교겸수 ▲유심정토 등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월례발표회에는 서명원 교수(서강대)가 ‘불교의 승가계율과 기독교 수도규칙의 정신 비교연구’를, 백도수 연구원(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이 ‘구전전승에 의한 원시불교 교단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희철 스님(동국대 강사)이 ‘<선문강요집>에 나타난 임제삼구 고찰’을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英 곰브리치 교수 東大 찾는다

‘붓다의 생애와 사상’ 주제로 7월 3일부터

세계적 석학 곰브리치(R. Gombrich) 교수(옥스퍼드대학 동양학부 교수)가 한국 불교학 연구자에게 강의하기 위해 동국대를 찾는다.

동국대(총장 오영교)가 마련한 써머스쿨서 곰브리치 교수는 ‘붓다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7월 3일부터 15일까지 수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10일간 강의한다. 곰브리치 교수 등 해외 석학들을 초빙해 열리는 특강은 경제, 문화, 과학 분야에 대한 7개 강좌가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열리게 된다.

7월 17일부터 29일까지는 황순일 교수(동국대), 미산 스님 등 해외유학파 불교전문가들이 ‘한국 문화와 종교 이해’를 주제로 강의한다. (02)2260-3463 조동섭 기자

“열린 법당 춤추는 동심”

제 41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

본회에서는 부처님 진리를 보다 다양하게 교화시킬 수 있는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실시되는 각 사찰의 불교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실기를 강습하여, 포교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지도자분들께 도움을 주고, 활짝 열린 부처님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불교학교를 만들고자 ‘**열린법당 춤추는 동심**’이라는 주제로 **제 41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합니다. 함께 하시어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어린이 · 청소년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일 시 : 불기 2552(2008)년 7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 ~ 6일 일요일 오후 3시
2. 장 소 : 봉은사 보우당 (서울 삼성동 소재) [교통편 안내] – 지하철 2호선 삼성역 하차(6번 출구 이용) 도보 15분
3. 교육내용

• 강의1 마음을 열어요(Open mind, Ice break)	한재경 – 본회 교육연구위원	• 강의5 분임토의와 발표	장현재 – 본회 교육원장
• 강의2 과학속의 부처님 이야기	박광서 – 서강대학교 교수	• 강의6 환영의 밤 – 레크리에이션	교육분과
• 강의3 찬불가와 노래 지도법	민선희 – 봉은사 합창단 지휘자	• 강의7 클레이 아트	이수진 – 국제공예문화총연합회 김포지회장
• 강의4 교리를 쉽게 아이들에게 전하는 법	지환스님 – 봉선사 연꽃유치원 원장	• 강의8 선요가, 찬불가율동, 레크댄스	교육분과

♣ 제41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는 좀 더 알차고 유익한 강습회를 위해 조별활동(1조 10명)으로 이루어집니다.
♣ 위 일정 외 체험부스(풍선, 종이접기, 페이스페인팅) 운영합니다. 활동을 통하여 1교사 1특기를 체득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4. 참 가 비

구 분	일 반	전문지도자/교사대학	도서벽지 및 군종	비 고
금 액	50,000원	45,000원	30,000원	접수된 참가비는 환불이 안 됩니다. ※ 교재비 및 재료비 포함 ※

5. 준 비 물 : 필기구, 세면도구, 개인용 침구(침낭 또는 얇은 이불)
♣ 사찰에서 강습회를 개최하다보니 잠자리와 세면실이 불편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해 바랍니다. ♣ 공지한 준비물을 꼭 지참해오시기 바랍니다.
6. 접 수 : 선착순 200명 전화 및 인터넷 접수.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홈페이지 – www.burec.org
5. 계좌번호 : 국민은행 006001-04-163577 / 농협 053-01-267940 / 신한은행 324-01-107672
예금주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7. 문 의 : 02)738-7860(代), FAX 02)738-7863 (본회 사무국)

대한불교조계종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 송 묵

영남범음범패 수강생 모집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보존회 사무국에서는 본 보존회 초대이사장이시고 영남범음범패 및 장엄도량의 보유자이신 문구암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판소리, 가곡과 더불어 대한민국 3대 성악곡의 하나인 **범패**와 **전통불교의식**을 체계적으로 전승 보존하고 우리전통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어 종합불교예술로 승화된 부산영산재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저변인구 확대를 통해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수강생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사부대중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교육과정(기본 : 6개월) 전문반 1년 (기본과정 수료자에 한함)
성적 우수한 스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
□ 교육과목 : 사물다루는법 / 각종제반의식
□ 작 법 무 : 천수바라작법무, 오공양나비작법무
□ 국 악 기 : 법고, 태평소, 대금, 단소,(영산회상, 청성곡 등)
□ 개 강 일 : 2008년 7월 18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수시모집)
□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 1동 159-1 백화도량 관음사 대강당
□ 접수 연락처(사무국) : 051)327-5095 / 010-2314-1279

각종 사찰행사 본사무국으로 문의하시면
전수자 스님을 배정하여 여법하게 집전해 드립니다.
(보시금 중 일부는 장학기금으로 쓰입니다.)

행자(예비스님)모집

사단법인 부산영산재보존회
영남범음범패 교육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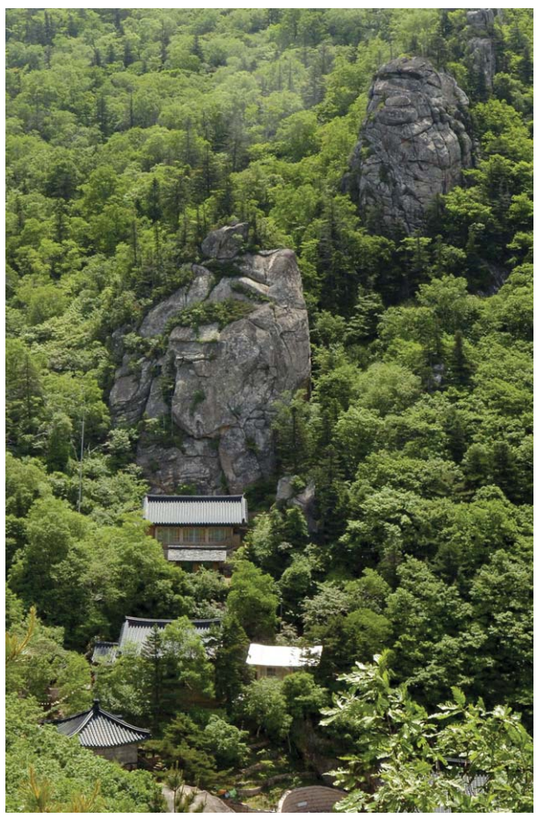


박재완 기자의
사찰풍경

멀고도 가까운 봉정암

지극한 마음으로 오른다 누굴 만나기 위함인가?

十方世界 시방세계
현대불교 buddhanews.com
서기 2008년 7월 2일 수요일 (주간) 제 686 호



해발 1200m. 봉정암은 먼 길이다.
백담사에서 출발한 길은 영시암을 거쳐 오세암을 지났다.
다섯 시간을 걷고 오세암에서 1박을 했다. 다람쥐가 눈을 맞추며 따라온다.
이제 남은 이정표는 봉정암 뿐이다. 잠시 바위에 앉아 모자란 숨을 채운다. 설악산이 짙어간다.
기다리고 있을 길들을 만나기 위해 다시 길을 걷는다.
몸과 마음 모두 지쳐가고 마침내 하늘과 닿은 길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마지막 남은 숨을 몰아쉬며 길 끝에 오른다.
지팡이를 짚고 선 백발의 할머니가 두 눈을 감고 합장을 한다. 봉정암이다.

봉정암 전각들은 설악산 나무와 어깨를 기대고 흰 구름 내려앉은 곳에는 부처님사리탑이 서 있다.
사리탑 안에는 신라 자장(慈藏, 590~658) 스님이 당나라에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가 봉안되어 있다.

길었던 하루가 저물고 봉정암에 밤이 온다.
사리탑 위로 석양이 내리고 정성스레 합장한 불자는 고요한 어둠 속에서 부처님을 만난다.
기다렸던 만남. 한 걸음씩 내딛었던 시간들은 합장한 손끝에 물들고 간절했던 마음은 멀고 먼 그 옛날로 달려가 안긴다.

언제 나왔을까. 은빛 반달이 도량을 물들이고 있다.
마음으로 오르지 않는 봉정암은 멀었고 마음으로 디딘 첫 걸음 속엔 이미 봉정암이 있었다.
부처님을 찾아 떠났던 발걸음은 이제 부처님 품에서 잠이 들고 사리탑 긴 그림자는 시방(十方)으로 내려간다.
별들이 몰려온다. 이제 누굴 만날 차례인가?

글 · 사진=박재완 기자jwpark@buddhapia.com



SHC삼환종합양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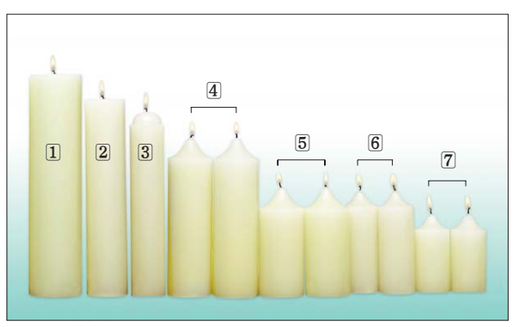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 = 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 양초) 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무료전화 080-0766-8888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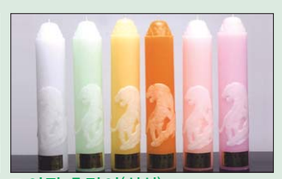
■ 밀납양초(蜜蠟洋燭)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2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3 밀납초원기둥 7.4ϕ × 30Cm 4 밀납초돈타레 5.6ϕ × 27Cm
6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7 밀납초 1호 금강경찬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8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9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 × 10Cm 연소시간 約 24시간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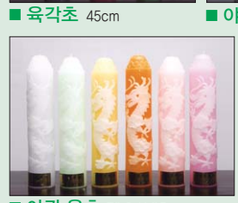


■ 약 쑥향 양초
1 원기둥 7.4ϕCm × 29Cm
2 돈타레 5.6ϕCm × 27Cm
3 밀 대 4.7ϕCm × 25Cm
4 1호 5.9ϕCm × 20Cm
5 2호 5.9ϕCm × 14Cm
6 3호 4.7ϕCm × 13Cm
7 4호 4.7ϕCm × 10Cm

장엄용 양초


■ 육각초 45cm


■ 야광 호랑이(산신) 70ϕ X 35cm


■ 야광 용초 70ϕ X 35cm


■ 원기둥 마패 7.4ϕ X 30cm
등신불 마패 4.7ϕ X 19.5cm

주소창에 "양초.net" 라고 치세요~ 주소(P) 양초.net

부처님 말씀 선율에 담아 '음성 공양'

부산시 다채로운 불교 음악회 열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화물연대 총파업, 유가폭등 등으로 메마른 가슴에 '음성 공양'으로 촉촉한 단비가 내렸다. 6월 25일부터 3일간 부산시내 곳곳에서 불교음악회가 잇달아 열렸다.

25일 오후 7시 30분 부산불교신도회관 5층 교육관에서는 '이종만 실장과 함께하는 수요음악법회'가 열렸다.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손정현)가 함께한 음악법회는 '찬불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실장을 초청해 불교 음악의 가치와 음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듣는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이날 음악법회에서는 이종만 실장이 직접 작곡한 '오늘은 좋은날' '길 떠나자' '연꽃이 피었어요' 등 여러 찬불가를 노래했다. 이 실장은 노래와 함께 '좋은벗 풍경소리' 앨범을 26집까지 제작하며 어려운 가운데 꿋꿋하게 불교음악을 지켜온 진솔한 삶 이야기도 들려줬다.

이종만 실장은 '음악이 생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장돌뱅이' '새벽길' '어느 보조 웨이터의 이야기' '자유의 바람' 등 한국 포크음악계 대표 가수로 알려져 있다.

26일에는 부산 금정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제2회 이순희 작곡발표회-스승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찬불합창'이 열렸다. 찬불음악만다라회가 주최하고 부산불교연합회와 불교합창단연합회가 특별 후원한 이번 음악회에는 작곡가 이순희씨가 작곡한 찬불가 22곡이 소개됐다.

이를 이순희 작곡가가 직접 지도하는 연꽃합창단, 일관도백양합창단, 노래와 친구들, 자비실천회합창단 등이 불러 더욱 뜻 깊은 자리였다.

연꽃합창단이 부른 '부처님 오시었네(작곡 이순희, 작사 정산 스님)', 일관도백양합창단이 부른 '정성(작곡 이순희, 작사 강추자)', 노래와 친구들이 부른 '부처님 오신 날(작곡 이순희, 작사 지심화)', 자비실천회합창단이 부른 '생신 축가(작곡,사 이순희)' 등 주옥같은 찬불가가 이어졌다. 2시간동안 이어진 발표회는 800여 객석을 가득 메운 관중의 기립 박수로 성대하게 막을 내렸다.

27일 금정문화회관에서는 또 한번 음악으로 불법을 전하는 '음성공양'이 울려 퍼졌다.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장 김형진)가 주최하는 '난치성 질환 및 소아암 어린이 돕기 자선음악회- 선, 모차르트와 만나다'가 개최됐다.

니르바나 필하모닉의 자선음악회는 난치성 질환과 소아암 어린이들의 심각한 현실을 바로 알리고 치료비 마련을 위해 2003년부터 6회째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음악회 수익금은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한국혈액암협회 등을 통해 소아암 환우들의 치료비로 지원됐다. 누적 지원금만 1억원에 달할 정도로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 공연은 책 <영화로 떠나는 불교여행>의 저자 월호 스님의 해설이 음악과 함께 이어지는 독특한 테마 연주로 진행됐다. '몸(기술), 마음(예술), 성품(천재성)' 등 세 가지 주제에 맞춰 <영화로 떠나는 불교여행> 중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영상을 발췌해 영화와 음악을 함께 감상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테마연주는 불교와 모차르트의 현대음악에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월호 스님과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기획공연으로 마련한 새로운 형태의 공연이다.

김형진 단장은 "이번 음악회는 어린 환자들과 가족들의 아픔을 음악을 통해 나누는 자비의 실천"이라면서 "음악과 불교를 통해 불자는 물론 현대인의 메마른 감성을 채워줄 문화비타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6월 26일 제자들과 함께 직접 작곡한 찬불가들을 음성 공양하는 '제2회 이순희 작곡발표회'가 열렸다.

혜인 스님 '신심' '원력' 출판기념법회 '성황'

신심은 불심, 원력은 보살의 마음 담아



제주 약천사 회주 혜인 스님은 유쾌하면서도 불자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법문을 수록한 <신심><원력> 두권을 출간하고 기념법회를 열었다.

제주 약천사 회주 혜인 스님의 저서 <신심>과 <원력> 출판기념법회가 6월 24일 부산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前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과 진주 극락선원장 금담 스님,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 등 스님 50여 명과 허남식 부산시장, 신도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무비 스님은 서평을 통해 "한없이 기쁘고 환희로 가득 찬 책"이라며 "신심과 원력이 모든 의심체의 열쇠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축사에서 허남식 부산시장은 "불심의 도시 부산에서 혜인 스님의 출판기념법회가 열려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금담 스님과 관음사 주지 지현 스님도 축사를 통해 "사람들을 감동시키던 혜인 스님의 법문이 엮어져 사부대중이 책으로 만날 수 있어 기쁘다"며 한마음으로 축하의 뜻을 전했다.

한편 박근혜 국회의원이 화환과 축전을 통해 "직접 뵈었어야 하는데 요즘 국정이 어지러워 참석하지 못해 너무 죄송하다"며 "혜인 스님의 <신심> <원력> 출판기념법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혜인 스님의 인사에 앞서 스님의 수행 이력을 담은 100여 장의 사진이 수록된 영상을 상영했다. 이어 혜인 스님은 "불자들의 신심이 더욱 깊어지고 원력을 키워 가면서 열심히 살길 바라며 그동안 설법했던 내용을 모으고 다듬어 <신심>과 <원력>이라는 2권의 책으로 엮었다"며 "이 책이 가정에는 화목의 꽃을 피게 하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희망과 용기를 싹트게 해 신심과 원력으로 보살의 강을 건너 모두가 부처의 동산에 오르는 성불도반이 되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해인사 '거창군 삶의 쉼터' 개관

노인·여성·장애인 사회복지전문기관 26일 열어

경남 거창군에 노인 · 여성 · 장애인 사회복지전문기관이 문을 열었다.

거창군이 총 사업비 100억여 원을 투입해 건립한 '거창군 삶의 쉼터(관장 심우)'는 910평의 부지의 노인 · 여성 복지관 1개 동과 595평 장애인 복지관 1개동으로 총 1500여 평 규모로 신축됐다. 실제 운영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이 2월 4일 거창군으로부터 위탁받아 경남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가 맡는다.

'거창군 삶의 쉼터'는 노인, 여성, 장애인 통합 시설로 사회적 약자인 이들의 교육과 복지, 문화, 의료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노인 · 여성 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체력단련실, 여성상담실, 노래방, 주간보호센터, 경로식당, 요리교실 등이 꾸며졌다. 이곳에서 웰빙 사찰음식, 사진 편집, 네일아트, 천연비누 만들기, 벨리댄스 등 다양한 강좌를 마련해 지역 여성들에게 문화 여가 생활을 제공하게 된다.

장애인 복지관은 주간 보호실, 수중치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작은 도서관, 컴퓨터 교실 등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꾸며져 다양한 의료재활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심우 스님은 "거창군 지역 사회의 군민과 단체가 더불어 복지 · 행복 공동체를 만들고, 거창군 사회복지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복지관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거창군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055)945-2014 박지원 기자

종합 국제 불교센터 '첫 삽'

홍법사 600평 대웅보전 건립 기공식

부산 금정구에 종합 불교센터가 들어선다.

홍법사(주지 심산)는 6월 27일 오전 11시 신행과 문화, 복지를 아우르는 대웅보전 건립 기공식을 갖고 본격 불사에 착수했다.

대웅보전은 대지면적 600평으로 대웅전 300평, 요사채 300평에 4층 높이 규모로 총 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된다. 현재 1차 공정 단계로 60억 원 정도 공사를 진행하고, 추후 대웅전 옥상의 대불을 모시는 작업을 40억 원 규모로 진행해 완성할 예정이다.

이번 대웅보전 불사는 기존 기도와 법회만을 위한 법당의 역할을 넘어 제사와 참선, 문화 기능을 두루 갖추게 된다.

요사채는 침대와 샤워시설을 현대식으로 완비해 호텔에 못지않은 편안한 숙식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원형으로 설계해 동 · 서 · 남 · 북 어느 한 방향이 아닌 모든 곳으로 두루 원만하게 흘러가길 바라는 뜻을 담았다.

본격 기공식에 앞서 대만 불광산사 前 주지 심정 스님 초청 법석이 마련됐다. 심정 스님은 "보시를 하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공덕이 쌓여 다음 생에까지 이어 복으로 돌아온다"며 보시의 중요성을 설했다.

이어 진행된 석주 제막식과 대웅보전 건립 기공식에서 주지 심산 스님은 "전통 양식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건축자재로 이 시대의 건물을 지어 후세에 물려줘야 한다"며 "다음 세대를 위한 어린이 포교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원만 회향을 기원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대만 불광산사 前 주지 심정 스님,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 금정경찰서 박길수 서장 및 신도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됐다. 박지원 기자

부산 미타선원 '초심자를 위한 참선강좌'

용두산 미타선원(주지 하림)은 '초심자를 위한 참선강좌'를 연다. 7월 1일 개강해 8월 26일까지 2개월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2시간씩 진행된다.

이번 강좌에는 초심자가 알아야 할 기본자세와 호흡, 마음가짐 등 기본강좌와 실참지도가 개설된다. (051)253-8687 박지원 기자

장사 성공의 법구 금강삼고저

안되는 장사, 안되는 사업, 산재 사고도 예방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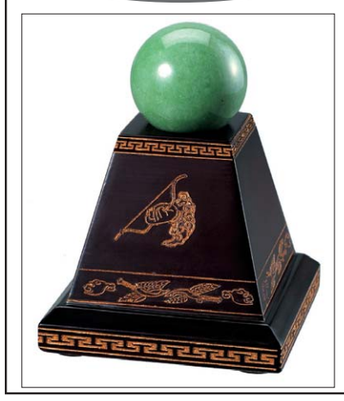
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법구인 금강삼고저는 밀교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가 보기만 해도 도망가고 화로부터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며 사업장의 성공을 위해 동서사방에서 인연의 귀인들을 불러드리는 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심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문안쪽 위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장사와 사업 흥왕의 비방 법구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영험의 구슬 보궁여의주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것이 이루워 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었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갖어요, 어머니는 아들 형제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번 낙방만 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과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건강장수 하고 관료가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져 변한것이라고도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헤칠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는 구슬로 사갈라 용궁에도 있고 여의륜관세음부처님 두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워지는 비방의 법구로 삼고 있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문제로 인해 1년을 또 고통속에 시험 준비를 하고, 승진시험도 승진심사날 심사위원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있다.

■시험을 보면 꼭 1~2점차로 낙방

보궁여의주는 수험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주고 부처님 가피로 승리하는 비방의 법구다.

불광사에서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길상원목으로 품위있게 제작하고 수험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준다. (신용카드분할가)

보시가격:9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남성용금나노반지갑

여성용은나노장지갑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원하는 재물을 얻고 원하는 계획이 성취되는 영험

소중한 남편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닿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역시 연이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大다라니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돈이 들어오게 하는 비방의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고급소가죽에 금나노, 은나노 처리 까지한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불광사에서 지갑 사용하실 분 의 물질의 소원과 원대한 계획이 성공되게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린다. 남성용 금나노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은나노장지갑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금산사 무자년 하안거 포살법회



6월 23일 금산사에서 열린 포살법회.

"보살비구 일원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중에 사뢰옵니다. 대중이 시켜 계를 외우게 됐사오니, 혹 잘못이 있거든 자비로 지시해 주옵소서."

조계종 제17교구 포살법회가 6월 23일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 대적광전에서 일원 스님을 포살법사로 봉행됐다.

120여명 스님들이 대적광전을 가득 메운 가운데 다섯 번 범종이 울리는 것으로 포살법회는 시작됐다. 좌복 앞에 <범망경 보살계 포살본>을 둔 스님들은 장궤합장을 하고 삼보 예경에 이어 "이제 모든 대중에게 물으니, 이 가운데 깨끗합니까? 이 가운데 깨끗합니까?" 하는 포살법사 질문에 침묵으로 답했다.

이어 일원 스님은 계경을 외우고 십중대계와 48경구계를 설했다. 수행자 본분을 지켜 정진할 것을 대중들에게 당부한 스님은 송계(頌戒)한 공덕을 일체중생에게 회향하는 것으로 포살법회를 마무리 했다.

포살법회에 참석한 한 스님은 "금산사는 두 달마다 있는 교구종회에 앞서 포살법회를 봉행했었다. 스스로 점검하는 포살법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라 평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연꽃 보러 전주 오세요"

금산사 교구종회에서 연꽃축제 개최하기로



아름다운 연꽃이 유명한 전주 8경 중 하나인 덕진연못(사진)에서 연꽃축제가 열린다.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는 6월 23일 2008년 제3차 교구종회를 열고 우리문화연구소와 함께 7월19~20일 연꽃축제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전주 덕진공원 내 수변무대일원에서 개최될 이번 연꽃축제에서는 전북도립무용단의 영산재 공연과 유등제, 국악한마당, 마술 및 품바공연, 청소년 페스티벌, 전통무술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열린다.

원행 스님은 "축제기간 중 전국에서 많은 관람객이 모여들 것을 예상한다. 각 사찰별로 사경, 연등만들기, 부처님 그리기,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불교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포교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고라 말했다.

이날 종회에서는 10월 18일 봉행되는 개산대제 일정과 11월중 사회복지법인 전입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개최도 의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문화재가 아파요"

금산사 미륵전 등 낙서판 된 문화재…시민의식 실종





낙서로 오염된 완주 화암사 우화루(위)와 금산사 미륵전(아래).

승례문 화재 후 문화재보존에 전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어도 지역 역사와 특성을 간직한 문화재들은 여전히 낙서로 몸살을 앓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국보 제62호 금산사 미륵전과 보물 제662호 완주 화암사 우화루 벽과 기둥을 돌아가며 빽빽이 가득 찬 낙서는 '낙서금지' 팻말을 무색하게 한다.

낙서 유형도 가지가지. 자신의 이름, 소원을 적어놓은 글에서부터 연인의 사랑과 다녀감을 기념하는 글, 짝사랑 고백 글, 미니홈피 홍보, 아이돌 스타 이름 등 다양하다. 펜으로 적은 것은 오염 수준이 낮아보일 정도로 뾰족한 못과 칼, 송곳 등으로 파내 단순한 낙서를 넘은 훼손 수준의 도넘은 낙서도 많다.

김제 금산사와 완주 화암사에서는 낙서를 막으려 CCTV를 설치했다. 하지만 종무소 담당자들은 "한꺼번에 몰려드는 수학여행 학생들의 낙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낙서하려다 도망가는 여학생에게 이유를 물었다. "절에 이름을 새겨놓으면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는다"는 천연덕스러운 답이 돌아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문화재는 보수를 하려해도 문화재청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찰에서 보수하기가 쉽지 않다. 학생들에 대한 문화재 보호 지도와 부모와 교사의 적극적인 인솔 · 감독이 요구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bud1080@naver.com

지역불자 힘 모아 청소년 포교 활로 모색

종립 정광학원 관음보살상 점안 불사 회향

전남지역 5개본사와 지역사찰, 학교동문들이 힘을 모아 광주지역 유일한 종립학교 정광중 · 고등학교 교정에 높이 9m의 청동관세음보살상을 봉안했다.

6월 22일 학교법인 정광학원(이사장 천운) 정광중 · 고등학교 룸비니 동산에서는 수산 스님(백양사 방장), 혜초 스님(태고종 종정), 천운 스님(대흥사 조실), 성오 스님(백양사 주지), 영조 스님(송광사 주지), 김동철 의원(국회의원) 등 전남지역 5개 본사와 불갑사, 금선사, 용추사, 성모사, 용화사, 태평사, 보현정사 등 광주전남지역 사찰 사부대중 및 동문 · 교직원 500여명이 모여 청동관세음보살상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수산 스님은 법어에서 "성상 봉안에 동참한 이들이 정광 학생들 마음속에 관세음보살님 미소를 선물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 공덕을 칭송했다.

정광학원 이사장 천운 스님은 인사말에서 "정광 학생들을 포함한 청소년들이 관세음보살 미소를 날마다 보며 편안해진 마음으로 지혜가 증장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관세음보살성상 건립 실무를 맡아 진행한 이동배 교법사는 "전남지역 많은 어른스님들과 동문들의 아낌없는 도움 덕분에 성상을 건립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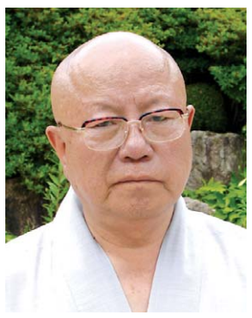
한편 이날 성상 건립후 남은 시주금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장학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무소유 가르침을 실천하는 우성 스님

힘든일 있으시면 언제든 오세요



신록이 우거진 익산시 외곽 미륵사지 북동쪽에 천호산은 보현보살(백운암), 문수보살(문수암), 관음보살(백련암)이 상주한다는 천혜의 길지다.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웃한 암자를 도반삼아 위치한 곳이 천호산 백운사(백운암)다. 백운사에 가면 무소유 가르침을 실천하는 우성 스님을 만난다.

세수 50이 넘어 발심 출가한 지 20년 남짓 된 우성 스님이 1991년 백운암을 찾았을 때 폐찰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허름한 법당과 요사채는 쓰러지기 직전이었고 신도는 물론 백운암을 찾는 발길도 끊긴지 오래였다. 우성 스님은 늦게 출가한 만큼 게으름을 피울 겨를도 없이 천일기도에 입재하고 일심으로 기도에만 매달렸다. 스님의 정진 소식이 입소문을 타니 자연히 찾는 신도들도 하나 둘 늘었다.

첫 번째 천일기도 회향 후 신도들 간청에 스님은 두 번째 천일기도에 입재했다. 그때 발생한 화재는 그나마 있던 전각들도 잿더미로 만들었다. 우성 스님은 낙심 않고 백운암 복원을 위해 다시 두 번째 천일기도를 회향했다. 세 번째 천일기도를 회향할 즈음 큰법당, 약사전, 관음전, 삼성각, 미륵불, 범종각, 요사채 등 10여동의 전각이 들어서고 도량이 일신됐다. 암자였던 가람은 규모가 커짐에 따라 백운사(寺)로 승격됐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스님이 계시다는 소문에 많은 신도들이 백운사를 찾아 스님과 함께 기도에 동참했다. 가까운 익산지역은 물론 서울, 부산, 심지어 미국에서도 일시 귀국해 기도하고 가는 신도도 생겨났다. 스님은 돈을 모으는 대로 주변 토지를 매입하고 전각을 건립했다. 토지 등은 모두 조계종단에 귀속시켰다.

"노후를 준비하셔야 하지 않느냐"는 우문에 빙긋이 웃은 스님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부처님께 귀의한 사람이 무슨 노후준비냐"는 스님의 현답이 돌아왔다.

우성 스님의 정진은 포교로 이어졌다. 스님은 여산 부사관학교 법회에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일, 포교 관련 일뿐 아니라 지역 불교행사에도 앞장섰다. 지역 불교 관계자들은 "익산불교가 중흥의 계기를 맞은 것은 우성 스님 공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스님의 공로에 교구본사 금산사(주지 원행)는 우수사찰 표창을 수여하기도 했다.

백운암 복원 위해 두번 천일기도

백운사의 다른 자랑꺼리는 '부처님 진신사리탑'이다. 70여평 사리단 중앙에는 13m 높이 8각9층 부처님 진신사리탑이 있다. 진신사리탑 좌우는 각 9.5m 높이의 4각5층탑에 아난존자와 사리불존자의 사리가 봉안됐다.

우성 스님은 욕심도 많다. 또 다른 불사를 쉼없이 계획 중이다. 스님은 "부처님 진신사리탑 앞에 전각을 세워 불자들이 편안하게 기도하고 참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래 불교의 주역이 될 청소년불자들을 육성하기 위해 청소년 수련원을 건립할 계획도 있다.

"어느 곳이나 부처님이 안 계시는 곳은 없습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자기 최면, 치료최면
(최면 시술사 과정)

개강일 : 2008년 7월 5일(토요일) 오후 1시

▷ 교육 기간 : 6주(24시간)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60만원 ▷ 교육 대상 : 스님, 포교사, 불자

특기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수행과 포교 또 중생 구제에 바쁜 스님들께 귀의 합니다.
소승은
스님들께서 시간에 쫓기시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스님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에 모든 거품을 빼고 최단기, 최소 교육비로 보시 하고자 합니다.
소승은 자리이타의 정신과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 - 무초 정락 합장 -

(사) 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앞 ☎ 02) 763-0661~2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부처님 딸’ 된 나이팅게일 후예들

국군간호사관학교 불자 생도 수계법회…일면 스님 35명에 수계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간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으며….”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 선서의 일부다. 이 선서는 불교의 오계 중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제1계와 내용이 상통한다. 나이팅게일의 후예인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들이 ‘붓다의 딸’로 거듭났다.

국군간호사관학교 불자 생도 및 간부들은 6월 24일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며 일면 스님(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을 수계사로 수계를 받았다. 이날 수계를 받은 불자는 35명으로 간호사관 생도 24명과 간부 11명이다.

이날 일면 스님은 “오계를 불자가 아닌 누구라도 진실하게 지키며 살아간다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순간만이라도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간호사관생도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상대방을 해(害)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노루에 쫓기는 포수 이야기를 하며 생도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던 나무꾼에게 사슴이 다가와 포수에게 쫓기고 있으니 목숨을 살려달라고 한다. 나무꾼은 사슴을 가엾게 여겨 바위 뒤에 숨겨줬다. 그러자 곧 포수가 나타나 사슴을 찾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나무꾼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 포수에게 거짓말을 해도, 혹은 진실을 말해도 오계 중 어느 하나는 어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면 스님은 “어떤 선택을 한다 해도 나무꾼은 오계를 어기는 것이겠지만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이 있듯이 생명을 위해 사사로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하지 않느냐”며 “만약 전쟁이 일어났다면 모두에게 위협이 되는 상대라면 해할 수밖에 없고, 그것만이 죽을 목숨을 살리는 일일수도 있다”고 말했다.


6월 24일 열린 국군간호사관학교 수계법회 모습.

이날 세 번째로 계를 받았다는 홍예지(23) 생도는 “우리 간호사관생도들은 환자를 보살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계 중 제1계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편이라 가끔 수계받을 당시의 다짐이 흔들릴 때 다시 한 번 계를 받곤 한다”며 “오늘 일면 스님의 말씀을 듣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오계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계법회에서는 그동안 주지가 공석이었던 자운대 의무부대 호국약천사 주지 임명식도 함께 열렸다. 약천사 신임 주지로 임명된 동학사 교무 도일 스님은 1985년 일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2년 동학사 승가대학교를 졸업하고 1999년 중국 운남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손호선 기자

“총 내려놓고 茶器 들어요”

차문화협회, 옥천 2201부대서 다도교육

군인들을 위한 다도(茶道) 교육이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다. 충북 옥천 2201부대(이하 옥천 연대) 장교 및 간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은 6월 20일을 시작으로 매주 1번씩 이뤄진다.

평소 독실한 불자인 2201부대 최경식 연대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다도 교육은 한국차문화협회 충북지부 옥천분원 강경미 차 예절 전문지도사범의 지도로 진행됐다.

첫날 교육 홍보가 잘 되지 않아 참가한 장교 등 간부는 9명이었다. 이에 대해 최경식 연대장은 “아직 많은 홍보를 하지 못해 인원이 얼마 되지 않는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앞으로 많은 병사들이 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인사법과 다기의 명칭, 차의 9가지 덕(德) 등을 익혔다. 강경미 사범은 상황에 맞는 다도 인사법에 대해 설명한 뒤, 찻잎을 우려내는 다관(茶罐), 차를 따라 마실 때 쓰는 찻잔(茶盞), 잎차용 탕수를 식힐 때 사용하는 숙우(熟盂) 등 다기의 명칭과 쓰임새를 하나하나 설명했다. 또한 ▲머리를 맑게 해 준다 ▲눈을 밝게 해준다 ▲귀를 밝게 해준다 ▲밥맛과 소화를 촉진시켜준다 ▲술을 깨게 해준다 ▲잠이 적게 해준다 ▲갈증을 멈춰준다 ▲피로를 풀어준다 ▲추위나 더위를 막아 준다 등 차의 9가지 덕을 설명하며 다도를 배우는 이유를 명확히 짚어줬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강하영 작전과장은 “군대에서는 군대만의 예절이 있는데, 군대 예절과 전통 예절은 약간은 다른 면이 있어 놀랐다”며 “나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다도를 배우면 자연스레 소통하는 시간이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옥천연대는 장교 및 간부들의 다도 교육과 함께 전 사병을 대상으로 다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손호선 기자



예불하는 노루 보셨나요?

지리산 견불사(주지 보덕)에 가면 예불하는 노루가 있다? 6월 13일 어미 잃은 아기 노루가 견불사에 찾아들었다. 보덕 스님을 어미처럼 따르고 있는 아기 노루는 스님을 따라 대웅전에서 매일 아침, 저녁 예불에 참석하고 있어 화제다. 아생 노루 ‘호야’가 2시간이나 앉아 기도에 참석하고 있다는 입소문에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055)962-3931 혜철 충청지사장

헬기 동원 신축불사 ‘구슬땀’

구절사, 헬기로 자재 운반·조립식 공법 도입

시공사의 소장과 직원들이 사찰에서 숙식하며 대웅전 신축 이전 불사를 하고 있어 화제다.

충북 옥천군 군서면 상중리에 위치한 구절사(주지 혜도)는 식장산 해발 623.6m 자락에 위치해 옥천 방향에서는 접근로가 가파르고 산세가 험할 뿐 아니라, 대전 방향에서는 걸어서 2~3시간이 소요되는 곳에 위치한다.

자재를 옮길 방법이 없어 공사가 불가능했던 구절사(전통사찰 제43호)에 6월 2일부터 사업비 2억원(국·도비 1억6000만원, 자비 4000만원)을 들여 전통사찰 구절사의 법당(49.5㎡) 신축 이전 불사가 진행되고 있다. 건축에 필요한 기와와 목재, 석재 등 120t 가량의 자재를 헬기로 운송하게 돼 공사가 시작된 것.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이번 신축 불사에 사용될 기와를 동기와로 선정,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또한 법당에 들어가는 기둥과 같은 각종 목재의 경우 현장 작업 여건을 감안, 지난 4월 청원군 가덕면에서 설계에 따라 사전 제작을 해 현장에서 조립만 하도록 하고 있다. 완공은 7월 15일 예정.

이에 대해 혜도 스님은 “어려운 작업환경으로 여러 차례 시공사가 바뀌는 등 난항을 겪어왔다”며 “하지만 옥천군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헬기를 동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이 이뤄져 사찰과 신도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돼 기쁘다”고 말했다. 손호선 기자

불국토를 찾아서 | 청주 청수사

“대중과 함께하는 도량으로”

“알 지(知), 새벽 효(曉), 스님~ 안녕하세요~.”

청주시 내덕동 주택가에 중심에 위치한 청수사(회주 성관)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청수사 총무 지효(知曉)스님을 보자 아이들이 하는 인사다. 스님이 전혀 낯설지 않은 눈치다.

이곳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은 3월부터다. 청수사는 불사 당시 사회복지법인 선재원이 운영하는 ‘화엄지역아동센터’를 염두에 두고 건물을 설계했다. 그 후 1월 낙성법회를 봉행한 뒤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화엄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

이곳에는 종교를 불문하고 가정환경이 어려운 16명의 아이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 아이들을 위해 청수사는 365일 문을 열어놓고 불교와 인연을 맺도록 하고 있다. 이곳에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독서 · 미술 · 영어 · 한자 지도 등 학교 공부에 필요한 프로그램부터 뮤지컬 관람, 라틴댄스 교육, 리본 공예 등의 취미활동까지 다양하게 진행중이다. 지효 스님은 “앞으로도 아이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수사는 7월부터는 저녁시간에도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효 스님은 “오후 6시가 되면 프로그램이 끝나 아이들이 집에 가곤 하는데, 요즘 많은 가정이 맞벌이를 하고 있어 아이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냥 아이들을 맡아주는 것이 아니라 숙제도 봐주고 놀이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진행해 엄마와 같은 손길로 보살필 것이다”고 말했다.

청수사는 이 밖에도 불교 경전을 통한 기초교리 강좌를 개설해 체계적으로 수행과 보살행을 닦는 불자들을 배출하고 있는 전법도량이기도 하다. 2004년 9월부터 개강한 강좌에서 배출한 불자만 해도 약 350여명이다. 직장인들을 위한 금요법회도 진행된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부처님의 말씀을 보다 쉽고 바르게 익히고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진다.



가정형편 어려운 아이들 위한 아동센터 운영
불교기초 강좌·직장인 위한 금요법회 개설도

지효 스님은 “주 5일근무제에 따라 주말 여가 활동이 증진되고 있는 추세여서 주말 법회보다는 금요법회를 선택했다”며 “주말에 법회가 있어 의무적으로 사찰에 방문하기 보다는 나들이 삼아 찾을 수 있는 사찰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절이 대중 속으로 들어와 함께하는 이유에 대해 청수사 회주 성관 스님은 “원래 불교는 부처님 당시부터 대중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일들은 모두 당연한 것을 하는 것 뿐”이라며 “불교의 본 모습을 잘 계승해 대중과 어우러진 불교를 행하겠다”고 말했다. 손호선 기자

고무신고 만 행 화

특 무 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진회색

사부대중 선 물

지압슬리퍼
• 가격 : 5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단위)
• 색상 : 진회색,검정

지압 · 동 깔창
쪼극세사
실 리 콘
동 99%
가격 15,000원
• 사이즈 : 230-280

조각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자연색

건강샌들
• 가격 : 9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단위)
• 색상 : 진회색,검정

지압동 깔창

사계절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3-1밴드
• 가격 : 90,000원
• 규격 : 215-255mm
• 색상 : 검정,회색

망사단화
• 가격 : 7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3-1끈
• 가격 : 90,000원
• 규격 : 215-255mm
• 색상 : 검정,회색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 를 검색해 보세요
◆ 본사, 전시장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종각역 2번 출구 100m거리)

일주일 철야 정진법회 안내



본 보림선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하계 철야 정진 법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보림선원 일주일 철야정진 법회는 백봉선생님께서 확철대오 하신 후 본격적인 대중교화를 펴실 때 학인들을 개오(開悟)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여름과 겨울에 정기적으로 실시 하셨으며 입적 후에도 철야정진을 놓치지 말라는 유훈에 따라 제자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는 세속에서 맺어진 생업을 가지고 혈연을 돌보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학인들이 일주일 철야정진 기간 동안 좌선과 설법을 통해 불교공부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 하시어 많은 공부인을 양성하셨습니다. 뜻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일주일 철야정진 기간동안은 백봉선생님의 육성법문과 불교공부를 할 수 있는 바탕 마련을 위한 교재로 하고 선생님의 도반이시자 제자이신 보림사 회주 묵산스님께서 지도 해 드립니다.)

아 래

■ 일 시 : 2008년 7월 30일(목) 오후 8시부터
2008년 8월 5일(화) 오전 7시까지
■ 장 소 : 보림사 선방(서울 성북구 정릉4동 약수길 17-1호)
■ 회 비 : 일반 9만원
■ 접수및문의 : 010-6332-4096
■ 준비물 : 간편한 참선복, 세면도구
■ 교통편 : 지하철 4호선 돈암역 하차 정릉 청수장행 143, 162, 1012, 1013 → 대우아파트 하차 (돈암역 25분 소요)

조계종 보림사 회주 묵 산 합장
보 림 회 회장 장철순

양 지 국 악 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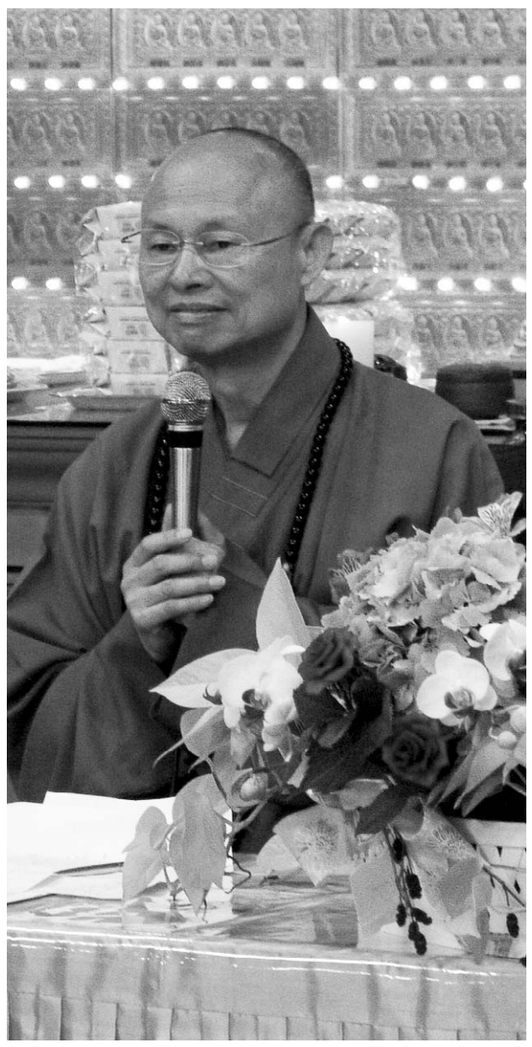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부처님 광명은 삼천계로, 감로의 법은 오대주로

강사 : 심정 스님(국제불광회 중화총회 회장)
주최 : 조계종 중앙신도회, 서울불광산사, 국제불광회, 서울협회
일시 : 2008년 6월 24일 11시
장소 : 서울 불광산사 대법당

'부처님의 광명은 삼천대천세계로, 법의 감로수는 오대주로' (佛光普照三千界, 法水常流五大洲)
인간불교(人間佛敎) 이념을 전하고자 국제 포교에 앞장서온 심정(국제불광회 중화총회 회장) 스님이 한국을 방문했다. 성운 대사의 염원을 이어받아 전 세계를 두루 다니며 홍법의 발자취를 남기는 현대의 선지식이다.
이날 법회는 지난 해 10월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자매결연으로 첫 인연을 맺은데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법석이다. 평소 무료봉사와 의료활동으로 나눔에 앞장선 '반갑다연우야'를 비롯해 많은 불자들이 함께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장(김의정)은 축사에서 "불광산사 방장인 성운 대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저 앞장선 거룩한 뜻과 수행을 존경한다. 중화민국이 유래 없는 발전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설법을 통해, 한국의 불자들 또한 부처님 정법대로 정진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법문으로 우리 모두가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발원한다. 더불어 성운 스님의 뜻을 이은 홍법(弘法) 정신이 세상 곳곳으로 전해지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심정 스님은 1944년 대만에서 출생, 68년 출가해 임제종(臨濟宗) 49대 제자로 다음해에 구족계(具足戒)를 수지하였다. 현재 법랍 40세로 동방불교강원 교수 • 불광산 종무위원회 서기 • 말레이시아 용화사(龍華寺) 주지 • 미국 서래사(西來寺) 주지 • 타이베이 보문사(普門寺) 주지 • 북해불학원 원장 • 불광산 종무위원회 종장 • 불광산사 주지 • 불광산 도감원 원장 등을 역임 했다.

지난 수 십 년간 성운 대사께서 깊은 인연을 맺어온 한국불교와의 관계를 저 또한 이어가고자 합니다. 불광산사가 한국의 통도사와 자매결연을 맺은지 30년이 흘렀습니다. 통도사 월하 스님을 비롯해 현재의 주지(정우)스님에 이르기 까지 많은 교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운 대사께서는 1991년 국제불광회를 설립하고 재가 불자들이 불법을 널리 전하도록 격려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석존이 계실 때는 삼보(三寶)가 전법의 기준이 되었습니다만 대승불교의 삼보는 재가불자를 포함합니다.
저는 '불교란 생명의 철학'이라고 자주 말합니다. 출가자들의 공적인 목적은 생사를 해탈하는데 있습니다만 재가자들은 부귀뿐만 아니라 더 좋은 미래를 위한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해서 과거에서 지금 생까지 왔고 어떻게 다음 생으로 이어갈 것인가 는 출가자와 재가자 모두의 공통된 화두일 것입니다.
불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출가자뿐만 아니라 재가자 또한 가능한 수행입니다. 재가자는 결혼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면서 더 많은 고통과 즐거움을 누립니다. 불법이라는 기초에 의거해 생활하면서 얻은 체험을 결합하여 불법을 설합니다. 이로써 재가불자의 경험담은 출가자들 보다 더 많은 법문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는 신도분의 자녀를 위해 결혼식에서 증명을 합니다. 참고로 불교 결혼식은 반드시 사찰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호텔에서도 가능합니다. 식장에 불단을 만들어 법당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주례자로서 신랑 신부에게 어떻게 살아가면서 사랑하라고 덕담을 합니다. 한번은 결혼식의 많은 친인척들을 포함한 하객을 대표해 중화민국 국민당 주석이 축사를 했습니다. "심정 스님의 주례사는 전부 이론일 뿐이다. 저는 두 분께 저의 실제 경험을 말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재가불자가 본인의 실제 경험과 불교의 가르침을 접목하여 말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봅니다.
석가모니붓다께서 열반하시고 5~600년이 지난 후에야 대승불교 흥기가 왔습니다. 경전의 서언이 불법승을 위주로 대비구와 대아라한을 열거하던 방식에서 재가불자를 대상으로 변화합니다. 특히 <유마힐소설경>을 보면 출가자 보다 뛰어난 재가불자와 만날 수 있습니다. 유마힐 거사는 몸이 상당히 안 좋아서 많은 출가자들의 병문안을 받습니다. 거사는 출가 스님들께 불법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대답을 하지 못했고 그 이후 출가자들은 유마힐 거사와의 만남을 꺼렸습니다. <유마힐소설경>은 머무는 곳이 어디건 불법을 전함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유마힐 거사는 신통력이 뛰어났습니다. 유마힐 거사가 묵은 곳은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들어와 편안히 머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마음이 넓으면 사람의 많고 적음을 떠나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1장의 공간'이란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 모두를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절의 주지 스님으로서는 좋은 신도를 받아야 좋겠지만 나쁜 짓을 일삼는 신도 또한 받아 줄 수 있어야합니다. '1장의 공간'은 방장(方丈)스님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여성을 이야기하는 <승만경>을 소개합니다. 승만 부인이 보살계를 받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성불할 때 까지 절대 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배와 어르신께 자만심을 갖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외모가 잘나



우울할 땐 '비우기' 설법
선정 닦는 기초운동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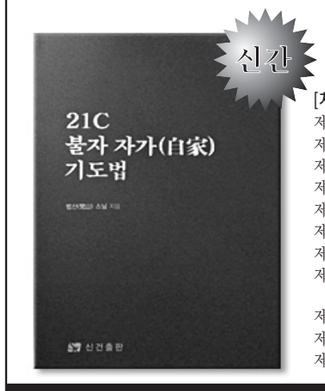
거나 못나거나 재산의 유무에 대해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와서 도움을 구하면 저의 능력이 다하도록 돕겠습니다. 사찰을 경영하는데 있어 생기는 수익은 모두 중생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중생을 위해 여섯 바라밀과 사섭법을 행하겠습니다. 삼보를 호지하는 것을 잊지 않고 지혜로써 정법이 계속 이어지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승만 부인은 매우 젊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재가 불자들의 불교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지혜롭고 원력이 수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운 대사께서는 불법의 지식이란 재가불자들도 충분히 지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재가불자로 이뤄진 단체인데 이런 재가불자 단체야말로 전법의 요람입니다.
불법을 배울 때 더 좋은 미래와 내세를 위하는 마음으로 불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생에는 가족이 더욱 화목하게 해달라고, 다음 생에는 더 많은 권력을 얻게 해달라고 하는 바람으로 말입니다. 보시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생에 뿌려진 씨앗은 내생의 열매가 됩니다.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한다면 보살도를 닦아 모든 중생이 이고득락(離苦得樂)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야(공성의 지혜)를 닦아야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사회 환경이 어지럽고 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스트레스가 가속화 될 때야말로 참선 수행은 탁월한 정진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인들이 괴롭고 우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해결로 '버리기(비우기)' 방법을 설합니다.
아시아 어느 지역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을 들려드리지요. 야자수 열매에 주먹이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어 놓는 것입니다. 그 안에 먹을 것을 넣어두고 잠시 자리를 피하면 곧 원숭이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야자수로 옵니다. 야자 구멍 안에 손을 집어넣고는 손을 빼려 하지만 손이 빠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냥꾼이 와서 잡아갈 때 까지도 원숭이는 허둥거리기만 할 뿐 먹이를 쥔 손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인간도 이와 같습니다. 손안에 쥐어진 부와 권력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마디 말에도 노심초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즐거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정을 닦는데 있어서 기초운동의 개념입니다. 즐거워지기 위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양 입 끝을 위로 올립니다. 둘째는 눈을 하회탈처럼 합니다. 세 번째는 주의력을 코끝에 두고 들숨과 날숨의 호흡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 입가를 위로 올릴 경우엔 혀가 입 밖으로 나오기 어렵고 번뇌와 망상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력을 코끝에 집중하면 숨의 깊이가 더욱 깊어집니다. 화를 내려고 할 적에 숨이 가빠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의력을 코끝에 집중하면 화를 낼 수 없습니다. 이런 수행을 꾸준히 해 보십시오. 즐거운 마음이 유지될 것입니다. 즐거워지는 방법을 항시 유념해서 항상 미소를 잃지 않도록 해 보십시오.
저는 참선을 할 때 윗니와 아랫니를 살짝 맞대고 이를 다물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머리에 힘을 짜고 목에 힘을 빼고 어깨 힘을 빼고 경추의 힘을 빼라고요. 윗니와 아랫니를 가볍게 다물면 자연스럽게 미소 짓는 얼굴이 됩니다. 그리고 들숨과 날숨에 주의를 기울이다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데 신경을 안 쓰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제가 추천하는 즐거워지는 방법은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아침저녁으로 반복해서 연습을 한다면 우리 안의 번뇌와 잡념은 청소 한 듯 깨끗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생활을 하면서 보고 듣고 접촉하면서 내 마음에 맞고 맞지 않음을 분별합니다. 그러한 번뇌가 은행에 저축을 하듯이 쌓이게 되면 쉽게 쓸어내 지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즐거워지는 방법을 따라 해보십시오. 번뇌와 망상은 자연스럽게 순화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부처님의 가피와 더불어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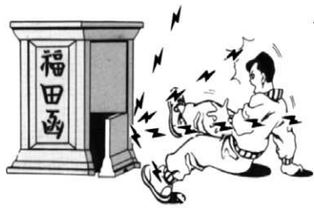
입종안내
대한선불 조계종
총무원장 영곡 효주
종회의장 법달 원정
교육원장 효타 원공
사정원장 무착 효산
호법국장 무타 대한
각 지역구 종무원장 입종을 환영합니다
대한선불 조계종은 선을 생활화하는 종단으로써 불기 2552년 5월 17일 창종 하였습니다. 대승적 불교를 지향하며 이 땅에 불국토 건설을 함께하실 스님들을 기다립니다.
■ 교육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324-4번지 효타암
전화 051)524-9406 / 010-7121-9406
■ 총무원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753-1번지 무진암
전화 054)744-0181 / 010-3178-1223

21세기 불자 자가(自家) 기도법

해조(解祖) 범산(梵山)큰스님이 쓰신불자 한 사람이 꼭 한 권씩 수지 독송해야 할 "21C 불자 자가 기도법"이 드디어 불자님들께 선을 보입니다.
이책은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자기 집에서 혼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음으로 불자님들에게는 필수적인 경서 입니다.
· 해조(解祖) 범산(梵山)스님
· 1949년 전남 순천출생
· 東山 無盡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수계
·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역
· 대한불교 원효종 경남종무원장, 중앙종회의원 역
· 현)해동불교대학,대학원교수
· 현)몽골불교대학 객원교수
· 현)여래암 주지
[논문]
· 인도불교의 철학적 고찰
· 원시불교의 선정사상에 대한 연구
· Buddkism과 인도철학과 제학파의 비교 연구
· 공사상에 대한 일 고찰
· 독서문화의 정착 방안에 관한 고찰 등
[저서]
· 그 속에 길이 있었다 · 웃으며 가는 저승길
· 공저 국역상용법요집 · 외 전문분야 다수


[차례]
제 1장 - 기본학습
제 2장 - 중요경전
제 3장 - 불공편
제 4장 - 진언과 다라니
제 5장 - 각종발원문
제 6장 - 기도체험수기
제 7장 - 불서출판수지공덕
제 8장 - 내면탐사와 여래33천통기도
제 9장 - 자가기도법
제10장 - 불교기초지식
제11장 - 권선문
◆ 택배발송(발송비 무료) ◆ 정가 30,000원
◆ 문의 : 055-761-7462 / 011-552-3222
◆ 계좌번호 : 농 협 801032-51-032261
우체국 610790-01-001194 (예금주: 여래암)
홈페이지 www.yeraeam.com / cafe.daum.net/yeraeam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왕중왕 성중성(王中王 聖中聖)
활안 스님 편저
불교정신문화원 | 4만8000원



부처님의 일생을 經과 律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을 아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아는 자는 법을 보리라' 하신 말씀을 잊을 수 없어 그 음성을 편집하여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생은 만남으로부터 시작되고 이별함으로 끝이 나지요. 그러나 만남에도 관계없고 이별에도 관계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부처님의 사랑이요, 진리요, 법입니다."

'부처님은 왕 가운데 왕이시고, 성현 가운데 성현이며, 하늘 가운데 하늘이라.'

<왕중왕 성중성(王中王 聖中聖)>은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깨달음을 펼치시고 길 위에서 열반에 드신 부처님의 일생을 경(經)과 율(律)로써 아우른 4권의 전집이다.

'세계는 한 꽃이요. 만민은 동체(同體)라는 일념(一念)'으로 부처님의 언행이 고스란히 담긴 대장경을 50년간 탐독해온 활안 스님(사진)의 신념이 맺은 결실이다.

인류의 스승이자 중생의 벗으로 살다 가신 부처님의 발자취를 더듬어 간다. 부처님의 어록을 바로 이해하고 부처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 동화되어 교감을 나눈다. 원력(願力)으로 태어난 붓다의 씨앗이 출가의 과정을 거쳐 평생 전법을 위한 행진으로 이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제법실상(諸法實相)의 도리를 인연이 함께 하는 모든 중생에게 설하셨던 역사속의 붓다를 되살린다.

활안 스님은 거친 풀밭과 흙먼지로 풍성한 인도의 그 길을 평생 잊지 못한다. 삼의일발(三衣一鉢) 만으로 걸사(乞士) 또한 자청했다. 흔적만 남은 기원정사와 죽림정사에서 2500년 전 부처님과 제자들의 체취를 마음껏 맛보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려 대장경 · 일본의 신수 대장경 · 중국의 속장경 그리고 빨리어와 산스크리트어 원문을 대조하는 노력 또한 아끼지 않았다.

본문에는 부처님의 일생에 관련한 사진 자료도 함께 첨부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여러 경전의 말씀과 승단의 계율 제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어둠속에 갇힌 이들에게 등불을 건네주신 부처님의 자비는 '자등명(自燈明) 법등명(法燈明)'으로 귀일한다. 참되고 한결같은 여래의 음성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위대한 깨달음 속에는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행복에 대한 해답이 있음을 강조한다.

가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세월 열정으로 빚어낸 읊조림



달 긷는 집
한승원 시집
문학과지성사 펴냄 | 7000원

'푸른 우듬지를 하늘로 쳐들고 있는 나무의 뜻을 천축국의 왕자가 나무(南無)라고 읽으라 했는데, 나는 나 없음의 나무(我无)라고 어눌하게 소리 냅니다.'

한국인 고유의 정서와 불교를 융합해 온 소설가 한승원이 네 번째 시집 <달 긷는 집>을 냈다. 고희를 바라보며 문단에서 보낸 40년을 훌쩍 넘긴 세월의 열정으로 빚어낸 읊조림이다.

산사에 피고 지는 꽃에 버무려진 어린 시절 고향의 향수는 무상하다. 무위사(無爲寺)에서 만난 구름 나그네가 일러주는 삶이란 애초에 없던 내 마음을 그려낸다. 토굴에서 차를 마신다. 사랑하는 나의 허방에서 목탁 구멍속의 작은 어둠과 같은 자화상과 만난다. 시인의 기억 속에 저장된 생의 흔적들이 다양한 사물과 만나 연민어린 대화를 나눈다. 총 71편의 시에 담긴 시인의 긴 호흡은 문학의 본질을 오롯이 드러낸다.

<달 긷는 집>은 옷감의 결과 무늬와 바느질 흔적과 호주머니를 엮앤 들꽃과 같은 수수한 시집이다. '만유(萬有)'와 대화해온 한승원의 문학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바다와 꽃에 더불어 불교적 색채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 시의 생명력에 묻어나는 시인의 개성이 마음 한 자락 허허롭게 내어주며 아쉬움 없다 고백한다.

가연숙 기자

우리 시대 부끄러운 위선을 밝히는 시선



베드타운
하종오 시집|창비 펴냄 | 7000원

'화단에서 벚꽃이 흩날려도 싱크대에 진열해 놓을 그릇이나 거실을 장식할 가구나 피부를 바꾸어줄 화장품이 화면 속에서 그녀들을 내다볼 때면 그녀들도 신제품이 된다.'

그로테스크한 분위기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지리멸렬한 일상을 무덤덤하게 묘사한다. 일상의 풍경에 담긴 시인의 성찰이 집요하다. 좁혀지지 않는 경계의 틈새를 넘나드는 묘한 취미다.

타자들의 삶에 집요한 시선을 던져 또 하나의 풍경을 일궈온 시인 하종오의 <베드타운>이 출간됐다. 베드타운과 자연부락을 오가는 시인의 시선이 교차한다. 도시와 농촌이라는 이분법적 구조가 둘이 지니는 오묘함으로 얽혀있다. 낱낱의 시편들은 제각기 나름대로의 흥취를 지니며 묘사된다.

2006년 <불교문예> 작품상을 수상한 시인은 현대 한국사회를 표상하는 공간으로 대별되는 베드타운과 자연부락이 모두 삶을 일구는 진정한 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독백처럼 관조하듯 중심을 외치지만 울림으로 꽃 피우지 못하는 것은 시인조차도 변방의 노래를 부르는 까닭일 것이다. 그가 말하는 '민중'이란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의 자아이다. 어떤 강력한 주의주장 없이 우리 시대의 곪을 대로 곪은 부끄러운 위선을 적나라하게 그려낸다.

가연숙 기자

불교수행 핵심용어 짚어



왕초보 수행박사 되다
고명석 글 |민족사 펴냄 | 9500원

왕초보가 일상에서 마음을 닦는 법은?

수행의 종교인 불교가 전수하는 실천 입문서이다. 템플스테이 시즌에 발 맞춰 의미있는 휴가를 보내고자 하는 이들의 필수품으로 추천한다.

웰빙 열풍을 타고 단순히 산과 바다에서 여름 휴가를 즐기기보다 템플스테이를 통해 의미 있는 휴가를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올 여름 불자뿐만 아니라 비불자도 산사에서 수행을 통해 마음의 건강을 되찾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잘못된 불교수행은 외도나 신비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는 법.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수행의 고수도 알듯 모를 듯 했던 불교 수행의 핵심 용어를 차근차근 제시하였다.

<왕초보 수행박사 되다>는 한국불교의 전통 수행법인 간화선 · 염불선 · 주력선 · 간경선과 최근 템플스테이 바람을 타고 각광을 받고 있는 절수행법,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위빠사나 수행법을 소개한다. 또한 구체적인 실례를 통해 불교 수행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제시한다.

특히 기초적인 좌선법에 대한 체계적 설명을 통해 집중하는 법만을 강조한 잘못된 좌선법의 피해를 예방한다. 불교 수행법을 통해 고요한 선정 속 자신과 타인을 올바로 보고 집착을 떠나 자유로운 나를 발견한다.

노덕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신심	혜인	클리어마인드
2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정준영 외	운주사
3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4	원력	혜인	클리어마인드
5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6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7	나를 깨우는 108배	구본일	김영사
8	인연(1)	정찬주	작가정신
9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10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석지현	민족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불교서적이 모이는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봉 해동불교무량종 행
종 도 모 집
해동불교무량종은 석가모니부처님의 자각, 계송, 각행원만의 근본교리를 바탕으로 상구보리하화중생의 보살도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생활 속의 적극적인 포교를 종지로 합니다
학성 (무량 대종사)
· 총재 및 조실 : 김정일 (법일 대종사)
· 종정 대행 총무원장 : 학성 (무량 대종사)
· 중앙고시법계위원장 : 박찬옥 (춘파 종사)
· 중앙교육원장 : 신원식 (도우 종사)
· 중앙포교원장 : 이광춘 (혜엄스님)
· 중앙사정원장 : 김광윤 (성일스님)
· 비 서 실 장 : 조종훈 (광원스님)
◆ 사암등록 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이력서 소정양식 1통
· 승려, 교임, 전법사 신고서 1통 · 명함판 사진 7매
(재) 해 동 불 교 무 량 종
총본산 : 전남 여수시 소라면 관기 1구 10번지 무량사
전화 061)683-7147 / 010-3114-4074
※입종시 사암등록증과 주지임명장과 법계증서, 수료증서, 승려증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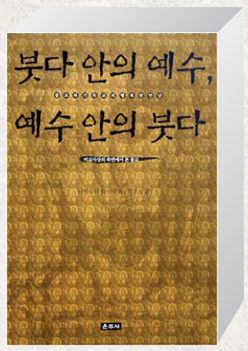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마루판
◆ 조립식 원두막 방갈로 7000×3500×3300(mm) 가격:750만원
◆물로 청소하는 평상 1800×1030×350(mm) 가격 : 190,000
연결, 이동 사용 할 수 있으며 보관 설치가 간단한 평상
갈라지거나 터짐이 전혀 없고 주기적 도색이나 관리가 필요 없어 반 영구적이며 특히 촉감이 부드럽고 비 온후 바로 앉을 수 있는 제품
지 구 산 업
www.bangaro.com/ 조립식평상
TEL:(063)323-3011~2
FAX:(063)323-3010
계좌번호 (농협) 519 - 02 - 203482 예금주 : 지구산업 곽 영 호
전품목부가세별도 전국대리점모집

고성능 CCTV 카메라를
원하시는 곳에 저렴한
가격으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옥천대성사 예절 스님
현대불교 충청(대전충남충북)지사장
고장 발생이 거의 없는 꼼꼼한 시공
사찰보안
300GB 대용량 영상기록
DVR
모니터
카메라 4대
250만원 (설치비포함)
작동점검, 케이블 보수
A/S 및 정기점검 서비스
전화문의
043-732-5560
010-9422-8453
알려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설치장소를 답사하고 설계를 마친후 설치작업이 시작됩니다.
연도시스템
첨단 카메라 시스템으로 사찰재산 안전하게 !!!

譯者, 책을 말하다

불교와 기독교 이해의 폭 넓히는데 기여


저자 나카무라 하지메(오른쪽) 교수와 역자 오진 스님



붓다안의 예수 예수안의 붓다
저자 나카무라 하지메|역자 오진 스님|운주사|1만4000원

오늘날 세계는 글로벌시대로 마치 전 세계가 하나라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 많은 나라들이 내적 외적으로 분쟁과 전쟁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그 분쟁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민족이나 종족 간 문화 또는 종교의 다름으로 인한 갈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쟁의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피폐한 역사의 현장에 내던져져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와 이슬람의 대립이 현저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종교 간 다원적 공존과 관용'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인류의 행복한 미래를 장담하지 못하리라는 우려를 갖게 한다.

자신의 신앙과 타종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상호 간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갈등을 부추기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종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종교에 대한 열린 마음과 올바른 이해는 평화로운 세계를 위한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다.

큰 충돌은 대부분 상호 사소한 오해와 무지에서 시작된다. 특히나 세계와의 접촉면이 급격하게 넓어지고 있는 한국의 상황은 그에 대한 준비가 더욱 요구된다. 갈등과 충돌을 줄이려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 중요 종교들의 가치관과 세계관 등에 대해 알아야 함은 물론, 각 종교들과 밀접하게 관계되고 있는 생활 습관이나 사고방식 등의 생활 문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세계인이 되기 위해서는 각 종교 간 비판과 반목이 아닌 '공존'과 '관용'의 정신을 길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종교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와 사상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것은 나아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게 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조화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구현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 책 <붓다 안의 예수, 예수 안의 붓다>는 나카무라 하지메 박사가 1960년대 하버드대학에서 공개강의한 초고를 개정 발전시킨 것이다. 당시의 청중들이, 그리고 대부분의 독자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서, 저자는 이 책을 서양인들(기독교인)을 위한 불교 강좌로 꾸몄다. 즉 서양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독교도로서의 지식이나 사고방식에 견주어 불교의 교리나 사상을 비교하여 설명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혹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교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또는 불교의 가치관이나 추구하는 바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 또는 반대로 동일한 관점에서 불교도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갈등·출동 줄이려면 이해·배려 전제 '공존'과 '관용'의 정신 길러야 해

이 책에서 저자는 기본적으로 불교와 기독교 두 종교가 다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즉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두 종교가 갖는 유사점을 찾아내 비교하는 방식으로 공존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주요하게는 두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보편종교로서의 성격, 붓다와 예수 두 교조의 생애, 기본 교리, 인간에 대한 진단과 처방, 교단의 성립과 발전, 윤회, 구원 등의 주제를 다룬다.

저자인 나카무라 하지메 박사(1999년 작고)는 인도철학과 불교학 그리고 동양사상 및 비교사상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새삼 소개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세계적인 석학이다.

나카무라 박사는 생존 시 기독교와 불교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비교한 이 책이 한국 국민들에게 소개되길 원했다. 역자 역시 비교종교학에 관심이 있던 터라 이 책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여 한국에 소개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능력이 부족하고 인연이 닿지 않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아프카니스탄 피랍사태 등 한국의 선교활동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일부 기독교인들의 배타적이고 광적인 선교활동이 한국 내에서도 여러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출판을 미루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여 이렇게 부족함을 무릅쓰고 만용을 부리게 되었다.

역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멀리 한국의 상황은 이 책의 필요성과 가치를 더욱 절실히 느끼게 한다. 최고 권력층으로부터 시작된 종교적 편향과 배타성이 도를 넘어, 다른 종교를 자극함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종교에 대한 맹신과 타종교에 대한 배타성은 결코 사회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궁극적으로 자신의 내적 평안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아무쪼록 종교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나카무라 박사의 메시지가 한국의 종교계와 지성계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자성과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평화와 안정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많은 장애와 난관을 극복하고 노력할 때만 향유할 수 있는 결과물인 것이다. 이 책이 불교와 기독교 두 종교 상호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하여, 한국 사회가 종교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나아가 사회 구성원들이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2008년 6월 24일 일본 동경 여로에서

역자 석오진(釋悟震)

한 권의 불서 성불의 씨앗 불서읽기 캠페인

내 인생의 불서 한권

유마경 대강론
백봉 김기추 | 불광출판부 | 2001

연꽃의소리 박금표 대표

인연은 스스로 만드는것



경전을 아무 의식 없이 독송하다 갑자기 탁 멈춰지는 부분이 있다. 눈으로 읽는 경전해설서에서도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긴다. 나에게는 그러한 경험이 몇 번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대목이 <반야심경>의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遠離顚倒夢想 究竟涅槃)' 부분과 <유마경>의 '중인불청 우이안지(衆人不請 友而安之)'라는 구절이었다.

나는 절에 가서 부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좋았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별로 못하고 지냈다. 어느 날 <한글반야심경>의 '뒤바뀐 생각을 여의어 마침내 열반에 이른다'는 구절을 읽으며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들은 정말 옳은 것이었을까? 옳은 것을 그르게 알고, 그른 것을 옳은 것이라 믿으며 살아온 일들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자 정신이 번쩍 났던 것이다. 삶의 바른 길을 제대로 알려줄 지침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일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 경전을 읽기 시작했다.

경전을 시작하게 한 '반야심경' 삶의 태도 바꾸게 한 '유마경'

<반야심경>의 한 구절이 나에게 경전 공부를 하게 한 구절이었다면, 내 삶의 태도를 바꾸게 한 것은 <유마경>이었다. 법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낱낱이 설명하는 <유마경> 불국품의 '중인불청 우이안지(衆人不請 友而安之, 뭇사람이 청하지 않더라도 벗이 되어 이를 편안케 한다)'라는 구절을 읽는 순간 한 없이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보게 된 것이다.

누가 도움을 청해도 내 형편이 불편하면 거절할 궁리부터 하게 되는데, 청하지 않아도 벗이 되어준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누가 굳이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도움을 청하지 않더라도 주변의 아픔이나 불편함을 둘러보며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벗이 되라'는 <유마경>의 구절을 좌우명으로 삼은 후 내 생활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는 했지만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는 못하다. 사소한 일에는 도움의 손길을 잘 내밀다가도 정작 중요한 일에는 뒤로 물러설 때가 많다.

요즘 불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불자들이 '자기 수행'이라는 이름하에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세상의 고통을 함께 나누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인연 없는 중생은 부처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로 포교에 게으른 것은 아닌가. <유마경>의 '중인불청 우이안지(衆人不請 友而安之)'의 구절은 우리에게 '인연은 기다리는 것이 스스로 나아가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소극적이고 내면적인 불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불교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처럼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뭇사람이 청하지 않더라도 벗이 되어 편안함을 주는 유마가 되는 길에 동참해보자고 법우들에게 손을 내밀고 싶다.

'내인생의 불서 한권'은 불서를 통해 삶의 지혜를 얻거나 행복을 새롭게 발견한 체험담을 싣는 코너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생생한 체험담을 기다립니다. 담당자: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연화기공(蓮花氣功) 수련

기도할때나 수련할때 그림이 보이며 붉은색,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이 보이는 스님, 불자님들께 높은 차원의 기공비법을 전수 합니다.

▶대상 : 스님 및 일반불자

❶ 천목(天目), 천문(天門)을 여는 비법 전수
❷ 기공의 최고봉인 五氣朝天, 三契聚精 수련방법 전수
❸ 영가를 보는 비법전수
❹ 빙의 치료비법 전수
❺ 병치료 비법 전수
❻ 인체 투시 기능 개발 비법전수

※ 신내림 굿 하였으나 효험이 영하지 못한 분들에게 높은 차원의 비법 전수하여 소원 성취하게 합니다.
※ 수년간 수련과정에서(수련하지 않은분 포함) 머리속에서 번개치고,우뢰울고,야밤삼경에 태양을 보시는 분들에게 높은경지로 이끌어 줍니다.
※ 각종 질병 환자에게 기치료 하여 드립니다.
※ 본기공 수련에 참석하시는 분은 평생회원으로 모십니다.

관음정사 연화선원 02)943-8573/010-4500-8234
• 찾아오시는길 : 4호선 길음역 3번출구 – 정릉 청수장가는 버스 – 훼미리마트 3거리 – 중앙하이츠아파트 – 관음정사

한글한문(겸용) 불교상용의식집

실무자 스님이 염불 한글화 하여!
"염불자가 경전의 내용을 알고 염불하는"
《의식집》을 만들어 소개합니다.

내 용 소 개

①한문염불(기존염불)과 우리말염불(경전 내용으로 구성)을 염불자가 어느 쪽이든 자유롭게 선택하여 집전 할수있게 만들었습니다.
②우리말 염불화를 하기위하여 한문의 (음)만 달은 것이 아니고 경전의 내용을 염불로 구성하여 편찬함으로 염불을 하면 자동적(주입식)으로 경전공부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③의식의 분야에 따라 각각 5권으로 분류하여 염불내용을 위주로 조직하여 책의 분량을 줄여서 소장용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④염불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운운)을 최소한 적게하고 실무차원에서 염불자의 작은 애로 까지도 배려하여 초보 집전자도 편안하게 집전 할수있게 하였습니다.
⑤염불의 한글화는 우리 불교의 과제인데 염불하는 방법을 한부분 소개한다면 "삼청을 하는 청사를 "2청은=한문염불(기존염불)로 하고 "1청은=우리말염불(한글염불)로 한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 없이도 자동적으로 한글화 할수있는 지름길이 된다고 확신 합니다.

구 성
• 제 1권 : 예경:각청편 • 제 2권 : 천도:시식편
• 제 3권 : 수계:방생편 • 제 4권 : 장의편
• 제 5권 : 점안편

(이상 5권이면 기본염불 완료) 총 5권 특별보급가 67,000원
앞으로 상용의식집을 운주사 및 전국 불교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용의식집을 보신 후 격려전화를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성묵 합장 –

문의 전 화 054)974-1345
핸드폰 011-277-8024
불서총판 운주사 02)3672-7181
(농협 : 211012-52-203756) 박명덕 ※각권 별도 구입 가능

조계종 77조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보급판 전등록 전5권 / 보급판 무문관 / 보급판 벽암록
보급판 천부경 / 보급판 금강경 / 보급판 신심명 / 보급판 증도가
보급판 반야심경 / 보급판 선문염송 전30권 중 11권
보급판 환단고기 전5권 / 보급판 법융선사 심명
보급판 선가귀감 / 주머니 속의 심경 / 영원한현실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세월을북채로세상을북삼아



법성게 출간

법회 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육조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육조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탐구정신 강하면 무기나 혼침 사라져

오늘의 禪語

㉕ 무기공 혼 침 도 거 산 란

좌선 중에 화두를 잊어버린 상태(망각)를 '무기공(無記空)'이라고 합니다. 즉 좌선을 할 때 마음 상태가 고요(=寂寂)하면서도 화두가 생생(=惺惺)해야만 하는데, 고요함에 빠져서 화두를 망각해 버린 상태, 화두를 상실한 상태를 '무기공'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무기(無記)'라고도 합니다.

무기공에 대한 여러 선승들의 언급이 있지만 고려 말 나옹 선사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좌선 중 고요함에 푹빠져 화두 망각한 상태가 무기공
오매불망 간절한 탐구정신 지켜야 화두참구 가능해

"고요한 가운데 화두가 없는 것을 '무기공'이라고 한다(寂中無話頭, 謂之無記)."

나옹 스님의 말씀대로 '무기공'이란 고요함만 좋아한 나머지 화두를 망각해 버린 상태, 그리하여 아무런 의식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좌선 중에 번뇌가 일어나지 않아서 마음이 고요한 것은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너무 고요함에 푹 빠져 화두를 망각한 상태가 무기공입니다. 그래서 옛 선승들은 "고요(寂寂)한 가운데 화두가 뚜렷(=惺惺)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기공은 '혼침(昏沈, 혼몽함)' '도거(掉擧, 끝없이 잡념과 분별심이 떠오름)' '산란(散亂, 불안정)'과 함께 참선에서 가장 중시하고 있는 선병(禪病, 조심해야 할 사항)입니다.

혼침(昏沈)은 정신이 멍한, 흐리멍덩한 상태를 말합니다. 졸음이 쏟아져서 혼미몽롱(혼몽)한 상태, 비몽사몽 같은 상태도 혼침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무기공과 비슷한 것 같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마음 상태는 고요해야 하고 정신 상태는 말짱해야 하고 뚜렷해야 합니다. 뚜렷하여 화두가 마치 눈앞에 있는 듯해야 합니다. 이것을 선어로는 '적적성성(寂寂惺惺)'이라고 합니다. '적적'이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 고요한 상태를 말하고, '성성(惺惺)'이란 '뚜렷함' '생생함' '분명함'을 말합니다.

'도거(掉擧)'는 알음알이와 잡념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알음알이는 무작정 분별심이 아니라 지식을 바탕으로 한 분별심입니다.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언뜻 떠오르는 생각들입니다. 잡념은 부질없는 생각, 쓸데없는 생각들입니다.

'산란(散亂)'은 마음이 들떠 있는 상태, 안정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마음이 산란하여 도무지 화두가 들리지 못하는 상태인데, 대부분 앞의 도거가 1차적으로 원인을 제공하고, 또 사색적인 · 문학적인 사람,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 좀 더 심한 편입니다.

좌선(참선)을 해 본 사람들은 다 경험하는 바와 같이 처음 10분 정도는 화두를 잘 들고 있다가도 시간이 흐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졸음이 온다거나 멍하니 앉아 있는 때가 많은데 이것이 혼침이고, 또 번뇌는 일어나지 않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요함에 함몰되어 화두를 망각해 버린 상태가 무기입니다. 또한 잡생각이나 분별심이 끝없이 떠오르는 상태가 도거이고, 웬일인지 마음이 들떠서 화두도 잘 들리지 않는 상태가 산란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무기공에 대하여 많은 선승들이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은 '마음이 고요한 상태' 그것을 선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혜 스님이 묵묵히 앉아 있는 묵조선을 '삿된 선(默照邪禪)'이라고 비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고요한 가운데 화두가 없는 것'이 무기라는 정의는, 화두를 가지고 공부하는 간화선에서 내린 정의입니다. 조사선이나 묵조선에서는 그냥 멍하니 아무런 자각의식이 없는 상태, 정신이 혼몽하여 흐리멍덩한 정신 상태를 '무기공'이라고 합니다. 일체개공에 함몰되어 모든 것은 다 소용없다는 생각 즉 공무(空無, 허무)에 빠져 있는 것도 무기공의 일종입니다.

'무기공(無記空)'은 '무기(無記)'와 '공(空)'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무기'란 '분명하지 않다'는 뜻으로, 여기엔 두 가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것, 확언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둘째,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즉 업(業)의 결과가 선악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을 무기라고 합니다. '공'은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공(空)과 용어는 같지만, 그 뜻은 '공무(空無)'로서 '공허함'에 함몰되어 모든 것은 소용없는 것이라는 생각, 그리하여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무사안일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참선이나 좌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혼침과 무기공을 없애는 방법은 찬물로 세수를 한 것처럼 본인 스스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생생(=惺惺)하게 화두를 참구하는 것 밖에 없고, 다음 도거와 산란은 쓸데없이 분별심과 잡생각 등을 일으키지 말고 마음을 고요(寂寂)하고 차분하게 해서 들뜬 생각을 가라앉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적적(寂寂)'과 '성성(惺惺)'은 참선수행에서 마음의 밸런스(균형)를 잡는 요체이기도 합니다.

무기나 혼침 · 도거 · 산란 등은 모두 탐구정신이 부족한데서 기인합니다. 화두탐구에 대한 생각이 간절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탐구정신(=疑團)이 강하다면 무기나 혼침 등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듯 오매불망 간절하면 이런 것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 **윤창화** 민족사 대표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오로지 쉬어온대로 '쉬고 쉴 뿐'

㉕ 유철마 비구니

위산 · 자호 선사등 당대 고승과 선문답 활달
세간속에 살면서 시공을 초월해 사는 자유인

위산영우(潙山靈祐: 771~853) 선사는 백장 선사의 법을 계승하여 호남성 장사에 있는 위산 동경사에서 선법을 펼친 당대의 고승으로서 선종 오가(五家; 임제 · 위앙 · 조동 · 운문 · 법안종) 가운데 최초로 독자적인 선법을 펼친 위앙종의 조사이다. 위산 선사와 더불어 위앙종의 근간을 형성한 그의 제자 앙산혜적(仰山慧寂: 802~887) 선사를 참문(參問)해 크게 깨달은 비구니선사가 바로 유철마(劉鐵磨)다.

성이 유씨요 '쇠 맷돌'이란 별명을 얻은 유철마 스님은 탁월한 선기(禪機)로 좋고 나쁜 일체의 경계를 맷돌에 넣고 갈아버리는 선풍(禪風)으로 유명했다. 선종 최고의 어록 <벽암록>에서 위산 선사와 법거량을 나누고 <전등록>에서도 자호(子湖) 선사와 선문답을 나눌 정도로 걸출한 선객이었다. 위산에서 10리 떨어진 거리에 암자를 짓고 살았던 철마 스님은 성별과 지위고하를 초월, 활달한 가풍을 보여주었다.

다음은 철마 스님의 안목을 엿볼 수 있는 <벽암록> 제17칙의 공안이다.

"유철마가 위산에 이르자, 위산 화상이 그 비구니에게 말했다.

'이 늙은 암소(老牛), 그대 왔는가?'

유철마가 말했다.

'내일 오대산에서 큰 대중공양이 있답니다. 스님! 가시겠습니까?'

위산 화상이 자리에 옆으로 누웠다.

철마는 곧장 법당 밖으로 나가 버렸다."

이 문답에서 "늙은 암소, 그대 왔는가?"라는 친근한 인사말은 철마 스님의 안목을 시험하기 위해 던진 미끼다. 위산 선사는 평생 당신을 '물소(佛性을 상징)'라고 부르고, 죽은 뒤에 산 아래 신도집의 소로 다시 태어나 이류중행(異類中行: 축생과 더불어 살며 보살행하는 것)할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늙은 암소'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와 같이 본성을 깨달아 보살의 삶을 살아가는 선객으로 인정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이에, 철마 스님은 "내일 오대산에서 큰 대중공양이 있으니, 스님! 가시겠습니까?"하고, 뜻밖의 대답을 한다. 옛날부터 일만의 보살과 함께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성지로 신앙화 된 산서성 오대산은 호남에 있는 위산과 수만리나 떨어진 곳이다. 걸어서 몇 달이 걸리는 문수산에, 그것도 대중공양(齋)을 받으러 가자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격식 밖의 말(格外語)'이다. 이 화두는 철마 스님이 위산 선사처럼 세간 속에 살면서도 시공을 초월해 사는 자유인이자, 번뇌망념을 초월한 성자인 아라한(應供)처럼 '마땅히 공양 받아야 할 사람'임을 밝히고 있다. 문수보살의 상주처인 오대산은 절대 깨달음의 경지로서 일체의 차별경계를 초월한 '보살의 세계(菩薩住處)'이기도 하다.

그런데 위산 선사는 철마 스님의 대답에 아무런 말없이 몸을 옆으로 누워버리고 만다. 당신의 본래 면목인 물소가 되어 벌렁 누운 뜻은 무엇일까. 배도 부른데 대중공양을 하기 위해 멀리 오대산까지 갈 필요가 있겠는가. 지금 여기 누워서 쉬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일까. 이미 깨달음을 얻어 일체 구하거나 집착하거나 분별하지 않는 무사무심(無事無心)의 한가한 도인에게 문수보살이니, 대중공양이니, 깨달음이니, 선문답이 하는 말이 무슨 소용 있을까. 오로지 쉬어온대로 '쉬고 쉴 뿐(休去歇去)'이다.

이런 위산 선사의 모습을 보고, 철마 스님 역시 더 이상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고, '곧장 법당 밖으로 나가 버린다'. 큰스님은 큰스님이고, 철마는 철마일 뿐 대장부(大丈夫)인 것은 마찬가지란 자신감이다.

다음은 철마 스님과 자호 선사와의 문답. 자호 스님이 철마 비구니가 오는 것을 보고 물었다.

"그대는 쇠 맷돌 아닌가?"

"그렇습니다."

"왼쪽으로 도는가, 오른쪽으로 도는가?"

"스님, 그렇게 잘못하지 마십시오."

자호 스님은 주먹으로 때렸다.

이 공안에서 자호 선사는 철마 스님이 오자, '자네는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며 어디를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가?'하고 테스트를 한다. 그러자 철마 스님은 '왼쪽, 오른쪽 헤맨 적 없으니 분별하지 마시라'고 대든다. 그러자, 자호 선사는 일체의 시비분별을 차단하는 방(棒)으로 문답을 끝낸다. 여기서 두 선객의 우열을 논하는 것은 분별심일 뿐이다. 우리 스스로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 낼 수 있는 선객이 되는 것이 급선무다.

김성우 기자

신행게시판

●**강남포교원 〈원각경 함허해〉 강독**=서울 강남포교원이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강남포교원 4층에서 〈원각경 함허해(圓覺經 涵虛解)〉를 공부하고 있다. 작은 〈화엄경〉이라 불렸던 〈원각경〉을 조선초 함허당 득통 선사가 해설한 함허해본으로 공부한다. 한문이 서툴더라도 공부를 통해 접하면 익숙해지는 만큼, 공부하려는 마음을 내라고 강남포교원 측은 조언한다. (02)539-2631

●**흥국사 여름수련화**=고양 흥국사가 여름수련회 일정을 발표했다.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는 7월 26~28일, 중고등학생 여름수련회는 8월 9~11일, 일반인 여름수련회는 8월 2~4일 열린다. 한편 불교대학 제7기 〈금강경〉 강의는 8월 19일~11월 25일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진행될 예정이다. (02)381-7970

●**능인 중,고등 법회 하계 수련회**=서울 능인선원 중 · 고등부 하계수련회가 8월 2~4일 영월 법흥사에서 열린다. 선착순 40명 마감이며 동참금은 4만5000원이다. 공양물(쌀, 과자, 과일 등), 개인 세면도구, 갈아입을 옷 한 벌, 운동화(필수) 등을 준비하면 된다. (017)217-9684

●**석왕사 칠석불공**=부천 석왕사는 8월 7일(음력 7월 7일) 칠석을 맞아 인연공덕 발원 및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기도를 올린다. 오전 9시 30분부터 기도를 시작할 예정이다. 무자년 수능 100일 기도는 8월 6일 오전 10시 입재한다. 회향은 11월 13일 오전 9시. 같은 기간 오후 2시에는 관세음보살보문품 독송기도가 봉행된다. (032)663-7771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대통합종단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입종을 환영합니다.)
본 종단은 사단법인에 등록되어 있는 종단입니다.
유사종단에 유의 하십시오.
◇ 입종 구비서류
● 본종 입종 신청서(총무원, 지방종무원 비치) 요청시 우편발송
● 주민등록 등본 1부
● 승적 증빙서류(전종시 타 종단 승려증,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사찰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1부
● 여권용 사진 5매
● 사찰전경사진(내,외부)
문의 및 접수처 :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총무원
·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64-20
· 전화 : 총무원 (051)527-5431~2 / 팩스 (051)527-7733
· 경남종무원 (055)853-0479 휴대폰 011-583-0479
· 중부종무원 (043)648-8942 휴대폰 010-8849-9573
· 김해,창원종무원 (055)291-4218 휴대폰 011-572-4218

한국불교여래종
입 종 안 내
사찰등록 및 여래종에 입종하여
여래의 사도(스승)로서 포교 및 전도를
함께할 종도 · 문도를 환영합니다.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
행자(남,여) 모집
불교교학 연구및 수행을 통하여 포교및
전도의 뜻을 둔 초심자를 모집합니다.
한국불교 여래종 총본산 대약사사
전화 043)731-2261 / 043)731-6454
팩스 043)731-6453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71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강건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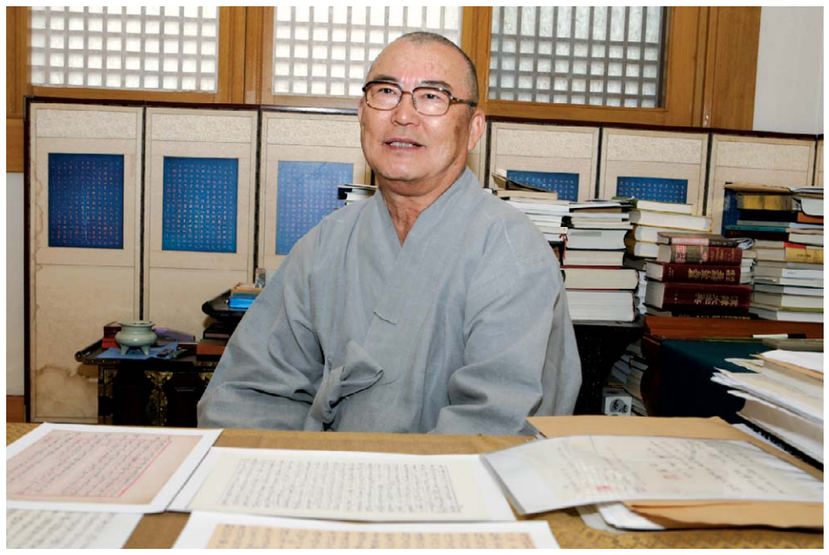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선지식을 찾아서

천제 스님 (해월정사 회주)



“원수까지 부처님처럼 섬기는 것이 참 불공”



‘마음의 부친’ 성철 스님 곁에서 40여년간 시봉
“큰스님 설법 실천되지 못하는 현실 안타까워”

급작스럽게 병사한 아버지의 49재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열다섯 살 소년은 그대로 짐을 챙겨 성철 스님이 계시는 통영 안정사 천제굴로 왔다. 재를 마친 후 스님의 자상하신 말씀이 소년의 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육남매의 맏이였던 소년의 뒤를 이어 일 년 후 여동생이 출가를 하고 이어서 어머니가 출가했다. 이렇게 하여 육남매가 모두 출가하게 됐으니 세세생생 불가와의 연이 두터운 집안이다. 이 소년이 해월정사의 회주 천제 스님이시다.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인 본각 스님은 천제 스님의 속가(俗家) 막내 동생이기도 하다.

세상은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는다고 했던가? 천제 스님은 육신의 부친을 떠나보내고 마음의 부친 성철 스님을 만나게 됐다. 천제 스님은 “전생의 인연을 그대로 이어 오늘에 이른 것”이라 믿고 있다.

첫 10년은 수행 행자로서 성철 스님을 시봉했고, 그 다음 10년은 팔공산 성전암에서 은둔했던 시절에 모셨다. 그리고 그 다음 10년은 가야산 해인총림 방장으로 계시던 때 방장실장으로 모셨고, 다음 10년은 조계종 종정으로 취임하여 열반하실 때까지 종정사서실장으로, 가까이에서 시봉하고 지켜보았다. 사십년이 넘는 세월동안 시봉하였으니 성철 스님의 눈빛만보아도 그 속내를 알아차렸을 것 같다.

“성철 스님은 평생 동안 상좌를 두지 않겠다면서 상좌가 되려는 사람들을 모두 다른 스님에게 보냈어요. 그때 저보고도 다른 스님의 상좌가 되라고 하셨으나 저는 스님이 되지 않아도 좋으니 계속 행자로 있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행자생활만 10년이 되던 날, 은사스님은 자운 율사스님께 계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천제 스님은 성철 스님의 맏상좌가 됐다. 천제 스님이 가장 아끼는 성철 스님의 친필이 있으니 1952년 10월 6일의 기록이다.

‘중노릇,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과 같이 섬긴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위대한 인물은 모든 사람들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다(受施如箭).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과 같이 섬기는 것이 중노릇 잘하는 것이라는 가르침과 함께, 그 말미에 ‘수시여전(受施如箭)이라, 시주받기를 화살 받는 것처럼 두려워하라’는 글귀를 써주셨다. 이 가르침은 천제 스님을 평생 동안 수행자로서 여법하게 살아가는데 큰 버팀목이 됐다.

천제 스님은 성철 스님과 더불어 산중에서 은둔자적인 삶을 살았다. 그러다 성철 스님께서 마지못해 종정직은 수락하셨지만 ‘산승은 산에 있어야 한다’면서 산을 내려가지 않았다. 그래서 천제 스님이 대신해서 사서실장 자격으로 종단에 파견됐다. 그때 성철 스님은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첫째는 인사에 개입하지 말 것이며 둘째는 재산처분에 관여하지 말 것이며 셋째는 큰 사찰주지 하지 말 것을 약조했다. 천제 스님이 종정사서실장을 자처한 것도 산중에서 내려오지 않는 성철 스님을 더 잘 모시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천제 스님은 현재 조계종 법규위원장 소임을 맡고 있다. 종단의 법규위원회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그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와 같은 곳이다. 1998년 종단사태로 인해 10년동안 멸빈자의 몸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사면 복권 조치되면서 법규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런 관례를 보고서 1994년 멸빈당한 사람들이 사면복권을 요청해왔지만, 법규위원회가 관여할 여지가 없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승가 화합 차원에서 1994년 전후 징계자들을 살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럴 때 종단 어른의 확고한 대외의지 표명이 선행돼야 합니다.” 모든 이들이 더불어 잘 살기를 바라는 천제 스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천제 스님은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행정진하는 봉훈관(奉訓館)을 개관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원을 세운 천제 스님은 2004년 건립을 시작해 2007년 10월에 개관했다. 지상 4층으로 된 봉훈관은 4층은 법당, 3층은 시월전(示月殿), 2층은 선실로 사용되고 있다. 천제 스님의 안내를 받아 각 층마다 둘러보았다.

봉암사 결사가 전쟁으로 중도에 그친 일을 못내 아쉬워하셨던 성철 스님은 천제굴에서라도 총림의 일과를 지켜야 한다면서 아침 예불에는 ‘능엄주’를, 저녁 예불 때는 ‘예불대참회’를 했다. 해월정사 법당에는 예불대참회문에 나오는 88분의 부처님을 모셔놓았다.

봉훈관에는 성철 스님이 남긴 친필과 소장했던 경전을 전시 · 보관하는 시월전이 있다. 시월(示月)은 중생이 수행해서 깨달아야 할 성품인 심월(心月)을 보인다는 뜻이다. 시월전에는 성철 스님께서 일상에서 적은 메모나 법문 원고, 경전풀이 등 500여 점에 가까운 유훈이 있으며, 그중 주요한 친필은 액자에 넣어서 전시하고 있다. 근검절약을 몸소 실천하셨던 성철 스님인지라 매일 한 장씩 찢던 일력의 뒤쪽을 이용하여 쓰거나 공책의 일부, 원고지 등에 기록한 것들이다. 가공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시되어 있어 마치 성철 스님 육성을 듣는 듯하다. 성철 스님 진영과 함께 스님이 법맥을 이은 용성스님과 동산 스님 진영도 나란히 걸려 있다. 성철 스님이 수시로 읽으며 뜻을 새겼던 <신수대장경> <속장경>과 같은 경전들도 시월전의 한켠을 차지하고 있다.

“서구의 학술자료들을 얻어 보기가 어려웠던 그 당시, 은사스님은 불교의 교리나 윤회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사람을 보내서라도 구해 와서 보셨어요. 그로 인해 영혼존재의 설명이나 불교의 물리학적인 논리, 최면술의 잠재의식 표현과 전생역행의 시험 등, 시대에 앞서가는 이론을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천제 스님은 2년 전부터 매달 음력 초사흘 법회에서 성철 스님의 메모를 한 장씩 복사해 신도들에게 나눠주며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2층 선실(禪室)에 들어서면 ‘봉암사 결사’에 대한 메모를 크게 확대해서 걸어놓았다. 성철 스님의 정신을 오롯이 되살리고 싶어 하는 천제 스님의 마음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스님은 공주규약에 명시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자들과 신도들에게 설법을 통해 제시했어요. 무속행위 하지 말라, 부처님 파는 사람도 사기꾼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언제나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스님이 전해주신 정신은 남아있되, 현실에서 실천되지는 못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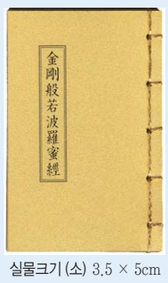
60년이 흐른 지금, 전국의 사찰들이 자급자족 원칙, 특별보시 거부, 축원 금지 등의 공주규약을 얼마나 수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란다. 성철 스님께서 봉암사에서 신도들에게 삼배를 시킨 것은 스님들에 대한 위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고, 백련암에서의 삼천배는 ‘나’라고 고집하는 아상(我相)을 뽑아주기 위해서 방편으로 시킨 것이었다.

‘참 불공이란 목탁을 두드리며 불단에 음식을 차려놓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섬기는 것이다. 원수까지도 부처님처럼 섬기는 것이 참 불공’이라는 성철 스님의 말씀을 새겨들을 것을 당부했다.

문윤정(수필가 · 본지논설위원)

천제 스님은

1966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5·6대 중앙종회의원과 종정예경실장 등을 역임했다. 15세 때인 1953년 경남 통영 천제굴에서 정진중인 성철 스님을 만나 제자가 됐다. 2004년부터 조계종 법규위원장 소임을 맡고 있다. 현재는 부산 해월정사에 주석하고 있으며, 봉훈관을 개관하여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널리 알리는데 힘쓰고 있다.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 장 의 식 상 량 식 불 사 소 용 영 가 장 천 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소 병 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 가로, 세로 74Cm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옴마니반 메훔족자
60 × 20cm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44 꽈리 고추산적

고추 속 비타민C가 산화되지 않는 비결은 캡사이신(capsaicin) 성분에 있다. 캡사이신이 몸 안에 들어가면 중추를 통해 자율 신경의 하나인 교감 신경이 반응한다. 이런 자극에 의해 부신(副腎)에서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분비되면 체내의 지방은 지방산이 되고 당질은 간장에서 분해돼 각각 에너지원으로 신체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고추를 발효 식품에 적당량 첨가하면 유산균 발육이 아주 활발하다. 김치에 고추를 넣으면 고추의 캡사이신에 의해 젖산균 발육이 좋아진다. 따라서 김치를 먹으면 유산균 음료를 따로 마실 필요가 없다. 식용유에 고추를 섞어 두면 산패하지 않는 것도 고추에 들어있는 캡사이신 성분 덕이다.

고추 속 캡사이신 산화방지·살균 작용

지나친 섭취 위궤양·간기능 저하 유발

고추의 매운 맛을 내는 캡사이신은 산화방지와 살균작용을 한다. 김치에 고추를 넣은 후 젓갈을 넣는다. 김치에 젓갈을 넣으면 젓갈의 산패 때문에 비린내가 나는데 고추를 넣으면 산패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치나 다른 요리에도 적당히 이용하면 식욕을 돋우고 소화율을 높여 발육을 돕는다.

자율신경 균형이 잘 유지될 때 건강하고 면역기능이 왕성하게 된다. 그러나 균형이 깨어져 부교감 신경이 긴장하게 되면 코의 점막이 붓고 혈관이 확장되어 콧물이 나고 코 막힘 등 증상이 발생한다. 이 때 고추를 먹으면 캡사이신이 교감신경을 자극해 부기가 가라앉고 염증이 치유된다. 부어올랐던 혈관이 수축되어 막혔던 코도 뚫린다.

캡사이신에는 에너지 대사를 항진시켜 내장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기능도 있어 면역성도 높인다.

그러나 고추를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점막의 심한 자극으로 위궤양이 발생하기 쉽고 간 기능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아무 음식에나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어 먹는 것은 삼가야 한다. 산촌 (02)735-0312



꽈리고추 산적

재료 : 꽈리고추, 도라지, 미나리, 밀가루, 소금, 식용유, 대꼬지, 간장, 식초.

만드는 법

① 꽈리고추는 꼭지를 따고 깨끗이 씻어놓는다.
② 도라지는 살살 두들겨 껍질을 벗기고 도톰하게 쪼개서 꽈리고추 길이만큼 자른다.
③ 미나리는 두툼한 줄기만 잘라서 깨끗이 씻고 꽈리고추·도라지 크기만큼 자른다.
④ 대꼬지에 꽈리고추·도라지·미나리 순서로 꿰어서 마른밀가루를 골고루 뿌려둔다.
⑤ 전 붙일 밀가루반죽을 만들어 꽈리꼬지에 묻이고 철판에 노릇노릇 구워 초간장에 낸다.



청오 스님의 청다향 이야기 ❺

"금생에 해냈어!" 환희의 탄성



금생에 못하면 다음 생에라도 해내고야 말겠다는 집념 아니 목숨을 걸었다. 포기란 단어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다음날 통속에 가득 담긴 증류수 위로 몇 방울 되지 않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향유가 보였다. 5ml 안약만큼의 원액이었다. 한말을 증류시킨 것에 비하면 속된말로 병아리 눈물만큼 극소량이었다.

원액을 한 방울 떨궜다. 단 한방울 떨어뜨렸는데도 방안 공기가 숲속 공기로 가득 채워졌다. 감탄의 마음을 가다듬고 잠들었을까. 새벽녘 잠을 깨며 맞은 은은한 향에 "맞다 바로 이거야"라는 탄성과 박수를 절로 나왔다.

흉년에 쌀 아끼려고 흰죽을 먹었듯이 쌀이 풍족하면 왜 밥으로 먹지 않았겠는가. 저녁에 한방울 떨군 향긋함이 새벽녘까지도 변함없이 처음 잎을 따는 순간 그 향기로 한결 같지 않은가. 마치 태산을 통째로 내손에 움켜진 것처럼 가슴은 환희로 가득 찼다. 덩실덩실 춤이 절로 나왔다. "금생에 해냈어! 해냈단 말이다!" 허공에 큰 소리로 외쳤다. 그때부터 밤낮없이 불을 지피고 향을 뽑기 시작했다.

향은 사람 발길 없는 천혜의 자연 지대에서 자생하는 차(茶) 나무 잎 열매가 머금은 극소량의 황금빛 에센스 원액을 150℃ 이상에서 증류해 뽑아낸 것이다. 그 원액을 사람 체온과 비슷한 36℃로 기화시키기 위해 무공해 청자 생향기(향로)도 발명했다.

한 종류 재료만 사용하면 사람들이 싫증낼 것 같아 원액에는 자연 그대로 피어나는 향기를 위해 여러 산야초도 재료로 삼았다. 산에서 자란 온갖 산야초에서 피어난 향기가 싫증나지 않듯이 여러 종류의 산야초를 이용해 향을 만들었다. 일년 내내 계절마다 다른 원료를 채취했다. 계절마다 여러 꽃에서 꿀은 모으는 토종 벌꿀이 아카시아꿀 등 특화꿀보다 더 좋은 이치다.

우리가 자주 맡는 솔향기도 채취시기에 따라 향이 다르다. 솔은 봄에는 수분이 많아 싱겁고 여름에는 뜨거운 기온 때문에 맑은 향기를 보존하지 못하고 다 품어 낸다. 그래서 솔향은 추운 겨울에 채취한 솔잎을 사용한다. 눈 속에서 소나무도 겨울잠을 잔다. 추운 겨울을 이기고 봄에 스스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힘은 겨울동안 나무 속에 저온 숙성된 황금빛 향기 물질로 여겨진다. 이 극소량의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라도 솔향은 겨울에 채취해야 한다.

봄 쑥 역시 겨우내 얼은 땅을 막 뚫고 올라오는 시기에 향이 진하듯 이 시기에 재료를 채취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향의 차이와 독이 있고 없고 차이가 난다. 자연 본질의 향기는 결코 온실에서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야생, 자연 그대로 계절의 순리에 맞춰 사철 산에 오르며 재료를 모았다. (055)941-1083 <계속>



소중한 이 치과 안은영 원장 ㉝ 턱관절 질환

스트레스 피하고 나쁜 자세·습관 교정해야

스트레스에 노출된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신종 질환 중 대표적인 것이 턱관절 질환이다. 턱관절(악관절)은 아래턱뼈와 머리뼈 사이의 관절이다. 관절뼈 사이에는 관절원판(디스크, 물렁뼈)이 존재해 뼈와 뼈가 직접 닿아 생길 부작용을 막는 역할을 한다. 턱관절 주변에는 턱관절을 움직이기 위한 근육 및 인대도 분포한다.

턱관절 관절원판이 정상 위치를 벗어나거나 마모됐을 때 또는 관절을 움직이는 주변부위 조직에 통증 또는 기능이상 등이 나타날 때 이를 턱관절 장애라 한다. 턱관절 장애는 주로 입이 안벌어지거나, 입 벌릴 때 관절에서 소리가 나거나, 턱관절을 움직일 때 통증이 있다. 통증이 있으면 바로 치료하고, 증상이 만성으로 진행되면 턱관절부위 뿐 아니라 두통 및 목과 어깨 부위로 통증이 퍼지는 경우도 있다. 더 심할 때는 편두통 및 같은 쪽 눈 또는 귀의 통증 및 이명 현상까지 생긴다.

<표1>은 턱관절 질환 자가진단법이다. "예" 대답이 많을수록 질환일 가능성이 높아 턱관절 질환 치료가 가능한 치과를 찾아 검진을 받아야 한다.

관절질환시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은 관절을 쉬는 것이다. 그러나 턱관절은 다른 관절과 달리 침 삼킬 때도 움직여지고, 깁스 등 운동 제한 장치 또한 거의 불가능해 환자 스스로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표1>턱관절 질환 자가진단법

1. 이를 갈거나 꽉 무십니까? (본인은 잘 모르므로 치과검진으로 확인한다.)
2. 아침에 일어날 때 턱관절 주위가 아프거나 뻐근하십니까?
3. 두통이 자주 생기거나 목, 어깨, 귀, 치아가 자주 불편하십니까?
4. 이를 꽉 물거나 입을 움직이실 때 통증이나 불편감이 더 심해지십니까?
5. 귀에서 "윙" 하는 등의 소리가 나십니까?
6. 스트레스로 인해 이를 꽉 물게 되거나 통증이나 불편감이 더 심해지십니까?
7. 입을 벌릴 때 소리가 나거나 걸려서 더 이상 벌려지지 않습니까?
8. 입을 벌릴 때나 밥 먹을 때 하품할 때 아프거나 불편하십니까?
9. 턱관절 부위에 외상을 입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10. 다른 관절에 관절염 등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11. 씹을 때 닿지 않는 치아가 있거나 때에 따라 치아가 다르게 맞물리시나요?
12. 앞니로 음식을 끊기 어려운가요?
13. 치아가 민감하거나 없거나 깨지거나 닳았나요?

턱관절 장애 치료의 기본은 턱관절의 운동제한이다. 입을 크게 벌리지 않도록 하며, 딱딱한 음식을 삼간다. 윗니와 아랫니를 약간 떨어뜨린 상태에서 입술만 살짝 다물어 턱관절에 안정적인 자세를 취한다.

턱관절 증상은 초기에 치료 받으면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로 완치가 거의 가능하다. 그러나 증상이 만성으로 넘어가면 턱관절 안정장치(스프린트)를 사용해야 한다. 이는 턱관절 디스크에 깁스 역할을 해주는 안정장치로 턱관절에 가해지는 힘을 완화한다. 또한 턱관절 디스크의 위치 이상이 생기면 이를 재위치 시키는 전방재위치장치를 이용하기도 한다. 턱관절 디스크 예방법은 다른 관절 질환처럼 턱관절에 무리 없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가 과도히 쌓이지 않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무리하지 말아야 하며, 정상적인 치아의 맞물림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치과검진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나쁜 자세와 나쁜 습관을 교정해야 한다.

이런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고 생활하면 턱관절 디스크 예방은 물론, 턱관절과 관계된 두경부 질환 등이 예방돼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다. (02)776-2882

[법보시 PR]

대중법문

오탁악세를 조복하라

이 무거운 오탁악세(五濁惡世)에는 여러 가지 번뇌도 많다. 청정하지 못한 세계에서 악하고 五逆(오역)의 행위를 저지르려 (善根)선근을 태워 없애며 아득한 생사의 바다 한가운데서 윤회하나니. 원컨대 이와 같은 중생들을 調伏(조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비화경 구절중에서)

비화경(悲華經) 은 대승비분다리경(大乘悲分多利經) 또는 비연화경(悲蓮華經) 이라고도 한역되며 자비의 흰 연꽃의 뜻을 보이는 경이란 제명(題名)이다. 대개 경전의 이름을 붙이는데 몇 가지 원칙이 있어서 그 경 가운데 있는 진리를 표준하여 짓는 경우와 또는 어떤 상징적인 비유로 표현하는 경우와 경 가운데 나오는 주인공을 표준하여 경의 제목을 붙이는 경우와 경 가운데 나오는 주인공을 표준하여 경의 제목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세가지를 서로 혼합하여 지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 비화경은 자비의 백련화 (白蓮華)란뜻을 드러낸 경의 이름으로서 자비로운 진리의 뜻을 가진 연꽃이란 비유의 두 뜻이 합해진 이름임을 알수있다. 여기서 자비의 백련화는 대성 석존을 가리킨 것이고 석가여래는 정토에서 성불하시지 않고 오탁악세에 출현하시어 성불하신 까닭을 밝힌 경이다. 때문에 이렇게 경의 이름 짓게 된것이다.

연꽃은 더러운 곳에서 나지만 아름다운 꽃을 피우니 조금도 더럽힘이 없으므로 부처님이 오탁악세에 출현하시어 일체 중생을 제도하시는 위대한 대자비에 연꽃을 비유하게 된 것이며, 특히 흰 연꽃이 더욱 깨끗한 것을 상징한다 할 수 있으므로 이것은 석존의 무량한 자비에 비유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남해 미륵암 주지 청운

이것은 석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부처님도 이 연꽃에 비유했는데 석존은 특히 예토(穢土)에 출현하여 성불하셨으므로 백련화라고 그 공덕을 한층 더 찬란하게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런 예토에 출현하셨는가? 그 출현에 관한 어떤 인연이 있는가? 그 인연 설화를 다른 정토 성불의 여래와 대조해 설명해보인 것이 곧 이 경이다. 여기에 보인 예문은 제 4 수기품(授記品)의 한 경귀인데, 이야기는 제 3 대시품(大施品)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옛날 어느 부처님 세계에 무쟁념왕(無諍念王)이 있었는데,그 대신 보해 (寶海)가 있었고 그의 아들 보장(寶藏) 이 출가해서 무상도(無上道)를 깨달아 寶藏如來(寶藏如來)가 되었다.

보장여래는 무쟁념왕과 그 왕자들에게 대보리심을 일으키게 했고, 왕은 51가지의 큰 원을 세워서 무량수불(無量壽佛)이 될 것이란 수기(授記=예언)를 주셨다. 그리고 그의 제1 왕자는 관세음보살이 되고 제2 왕자는 득대세지보살(得大勢至菩薩) 제3 왕자는 문수사리보살(文殊舍利) 제8 왕자는 보현보살(普賢) 제9 왕자는 아촉불이 되리라는 수기를 각각 주셨다. 이어서 寶海(보해)의 아들80인과 제자3억인도 모두 보리심을 일으켜서 각각 수기를받았다. 마지막으로 보해는 무쟁념왕을 비롯해서 그의 아들들이 다 정토성불(淨土成佛)을 원하고 부정토(不淨土)를 원하지 아니했으며, 또 보해의 아들들이 다 정토성불(淨土成佛)을 원하고 부정토를 원하지 아니 했으며, 또 보해의 아들이나 제자들도 부정토의 성불을 원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탐, 진 치가 얇은 시대를 선택할 뿐 오탁악세는 돌보려 하지 않는다.

그런데, 보해만은 오백의 원을 일으켜서 악한 세상에서 성불 할 것을 발원했다. 보장여래는 보해가 사바세계에서 성불하여 석가여래라 이름 할 것이라고 수기를 주셨다는 것이 그 줄거리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실은 예문은 대광명불(大光明佛)의 선지식이며 대비일월광명불(大悲日月光明佛)에 대한 일절인데 여기에 예토성불의 취지가 잘 밝혀져 있으므로 소개한 것이다. 정토성불에 대해서 중악오탁(重惡五濁)의 더러운 세상에 태어나서 악한 세상의 중생이 생사의 세계 미혹의 세계에 윤회하고 있으므로 그 중생들을 조복(調伏)해야 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오탁이란 겁탁(劫濁). 견탁(見濁). 번뇌탁(煩惱濁). 중생탁(衆生濁). 명탁(命濁)의 다섯가지 좋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는 세계를 말하는데 인간의 수명이 점차 짧아지는 시대 감겁(減劫)이라 한다. 감겁의 시대가 다하면 명이 다시 점차 길어지는 증겁(增劫)의 시대가 도래한 다는 것이다. 그리고, 감겁의 마지막 시대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회적, 정신적, 생리적, 다섯가지 나쁜 현상이 가증되므로 이것을 더러웁다는 뜻으로 탁(濁)이라 표현한 것이다. 다음에 다섯가지 나쁜 현상을 간략하게 소개 하기로 한다.

1..겁탁: 시대가 흐려서 더럽다는 뜻이니, 이것은 기근(饑饉) 나쁜 질명, 수재, 풍재 같은 천재와 전쟁이 일어나는 등 갖가지 사회악이 범람하는 시대.
2..견탁: 시대의 사조. 사상이 비도덕적으로 불건전한 방향으로 흐르고 사람들의 견해가 삿된데 떨어지게 된다.
3..번뇌탁: 탐. 진. 치의 정신적 악덕이 치성(熾盛)하는 것
4..중생탁: 심신과 함께 중생들의 자질이 저하 됨
5..명탁: 인간의 수명이 차례로 짧아지는 것

처음에는 이러한 오탁이 희박하지만 차례로 오탁이 치열한 시기 곧 오탁증(五濁增)의 시대에 이른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 비화경은 오탁악세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조복(調伏)받아 정토로 만들기를 마음속에 다짐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나타낸다.

[미륵암 청운 011-870-0021]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삶과 예술 북촌에 '청원산방' 개원한 소목장 심용식씨

40년 창호 장인 사랑방 문 활짝



소담스런 고택의 사랑방에서 이른 여름의 더위를 식힌다. 고택의 진가를 헤아린다는 것은 그 집에 살아보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 서까래 실못에 걸린 '돼지 코'가 유머러스하다 문득 생각하면서도 이곳에 함께 머무는 이들에게 복덕(福德)이 가득하길 발원하는 주인장의 넉넉한 마음 씀씀이가 정겹다.

"40년이 넘는 시간을 바치고서야 겨우 문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겠습니다. 우리 전통을 계승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창호를 제작하고 널리 알려온 심용식(56, 성심예공원 대표, 서울시 무형문화재) 소목장(小木匠)이 북촌 한옥 마을에 '청원산방(淸圓山房)'을 개원했다. 형태만을 위주로 삼는 모방이 아니라 드나드는 사람의 심성에 걸맞은 맞춤 창호로 인정미(人情味)를 탐구하는 사랑방이고자 한다.

낙산사 원통보전 법당문 복원 눈길

"인정미 탐구하는 사랑방 만들고파"

'맑고 둥글다'는 뜻의 '청원'은 심용식 소목장의 아호다. 추사 김정희의 필체가 담긴 주련을 비롯해 복과 장수를 상징하는 거북이가 현관부터 손님을 반긴다. 'ㄷ' 자형 한옥에 어우러진 정원으로 마당에 서면 각기 다른 문과 창이 한 눈에 들어온다. 한 편에 자리한 시연장에는 300여 점이 넘는 옛 공구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사랑방의 현판 '계수헌(桂樹軒)'은 초정 권창윤 선생이 '청원산방' 글씨와 함께 썼다. 전통문화와 창호의 앞날을 은은한 달빛처럼 비춰 주길 바라는 소망이 담겨있다고 한다. 집안 구석구석에서 빛을 발하는 한옥 장인들의 숨결이 청원산방의 면모를 더욱 높여준다.

"보기에 듬직하면서 여닫는데 전혀 무겁지 않으니 얼마나 좋으냐"며 장중한 멋을 풍기는 창의 의젓함을 두고 스님들의 칭찬이 뒤따른다. 산불로 2005년 전소된 낙산사 원통보전의 법당 문을 원형 그대로 복원 하며 느낀 감회 또한 남다르다. 불상이 모셔진 법당에 드는 바람세와 빛의 양을 고려해 심혈을 기울였던 시공이었음을 되뇌었다.

심용식 소목장은 좋은 나무를 찾기 위해 우리나라 구석구석 발걸음 내딛지 않은 곳이 없다. 춘향목이

소목장 심용식씨(사진 위). 종로구 계동 북촌에 청원산방을 개원했다. <사진제공=김성철>

지닌 성질을 살려 올곧고 향기로운 창호를 제작해왔다. "손의 감각은 기억한다고 믿습니다." 그가 수작업을 고집하는 이유다. 이러한 열정을 인정받아 2008년에는 '서울전통예술인상'을 수상했다.

"북촌에 좋은 한옥은 많지만 마음 편히 둘러보도록 문 연 곳이 없어 늘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청원산방'을 열었으니 후학양성 뿐만 아니라 대중화에 회향하고자 합니다."

심용식 소목장이 목수의 길을 선택한 데는 거창한 명분이 없다. 묵묵히 쓰다듬어 온 장인의 숨결이 나무의 결로 회통하고 있었다. (02)715-3342

가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인도미술 '대중 곁으로'

국립박물관 '인도미술, 신과 인간의 이야기 테마展'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최광식)은 2009년 6월 21일까지 1년간 아시아관 중앙아시아실에서 '인도미술, 신과 인간의 이야기' 테마전을 연다.

간다라의 불교 조각 · 인도 서북부 · 동부 · 남부 지역의 불교 및 힌두교 신상(神像) · 17~19세기 회화 등 총 43점으로 구성된 인도 미술품이다. 지난 수년간 국내외 최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엄선된 인도 미술 컬렉션이 일반 대중들 곁으로 다가가 본격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회(회장 유창종)가 2008년에 기증한 <간다라 보살상>은 기원후 2-3세기에 제작된 높이 117㎝의 대형 조각이다. 사실적인 묘사와 품위 있는 모습으로 인해 간다라 조각 중에서도 걸작으로 평가된다. 2007년 기증품인 <미투나, 사랑을 나누는 남녀>는 인도 북부 지역에서 제작된 11~12세기 석조 조각이다. 미투나(mithuna)상은 인도 미술의 인기있는 모티브 중의 하나로 풍요와 길상의 의미를 지닌다.



보살상, 간다라, 2~3세기

전시는 '인간을 닮은 신들' '간다라 미술의 신과 이야기' '다양한 신앙과 신들' '회화 속 신과 인간의 이야기'등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다양한 인간 형상을 중시하는 인도 미술의 심미안과 종교 신앙을 소개한다. (02) 2077-9555 가연숙 기자

중국인 '길상' 담은 유물 한자리에

7월 8일까지 북촌미술관서

중국인의 생활 속 깊숙이 뿌리내려 중국사와 호흡해온 길상(吉祥)이 '복(福)'을 주제로 서울 북촌미술관에서 7월 8일까지 전시된다.

중국과 밀접한 지형을 지닌 한국은 생활풍습의 전반적인 형태에서 유사성을 띈다. 길상이란 기복신앙의 한 종류로써 중국인들의 생활 도처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의 종교이자 신념이다. 우리의 무속신앙과 같은 맥락이다.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 보편 전반적으로 신봉되어 왔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정신으로도 볼 수 있다. 중국인들은 여러 가지 사물과 형태, 무늬 등에 상서롭고 길하다는 의미를 부여 해왔다.



복(福), 중국의 길상. 靑

중국에서 길상은 그 자체로써 기복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인기만큼 관련 유물도 다수 남아 있는 편이며 그만큼 재미있는 작품들도 많이 존재한다. 실크로드 박물관(관장 신영수 · 장혜선)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중국의 근대 길상 및 공예 작품으로 회화 · 공예품 · 조각 · 복식 등 약 100여점을 선보인다. (02) 741-2296 가연숙 기자

아! '神氣한 콘서트'

성균관大 새천년홀서 공연

'아주 아픈 날들이 덧없이 흘러갔네. 내 마음 속에 남아 있던 그 꿈들같이. 비나리던 공원길 바람 속에 잠이 들어. 지난 날 햇살 속에 미소 그 속삭임 들리는데.'

'광화문연가' '가로수그늘 아래 서면' '붉은 노을' 등 대중음악으로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한 작곡가 故 이영훈의 마지막 참여 앨범이 박소연의 첫 앨범 '별과 바람의 노래'로 태어났다.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부제로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새천년홀에서 7월 11~12일 양일간 공연한다.

치과원장 박소연에서 가수 박소연으로 거듭나는 한 자아의 열망을 독려했던 에코페미니스트 현경(세계평화위원회 자문의원)과 함께하는 신기(神氣)한 콘서트다. (02) 3474-2465 가연숙 기자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8월 9일개강

2008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33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불교학과)

1년 교과목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무진장스님(본 대학학장)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방대학원교수) · 최종석(금강대교수) · 박종(동산불교대교수) · 정병조(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태원스님(승가대교수)
2년 교과목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김형준(동산불교대교수) · 정엄스님(승가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박종(동산불교대교수) · 최종석(금강대교수) · 이평래(충남대교수) · 김호귀(동국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 주간반 · 통신반) (100명) (50명) (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08년 6월 30일~ 2008년 8월 2일 입학금 2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

4. 입 학 일 시 불교학과 : 2008년 8월 9일 (토) 오후 5시 개강(동산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 부산 : 부다가야서점 051) 865-4383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 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 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 232-7542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 산 불 교 대 학

당신의 쉬고 있는 손! 10억짜리란 사실을 아십니까?

성장 카이로 프락터 양성

교과목 • 골격학, 근육학, 척추 및 골반 선추 교정, 성장 클리닉
• 31쌍의 중추신경계 압박으로 인한 근본적 질환 퇴치, 척추질환, 알레르기, 빈혈, 천식, 기관지, 변비, 어지러움증, 정서불안, 허약체질,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갑상선 부작용 등등

대 상 • 종교인, 의료기관 근무자, 스포츠 맛사지사, 피부 미용사, 물리치료사, 체육관련 종사자, 봉사 활동자,

자 격 • 초보자 및 실직 · 정년 퇴직자

기 간 • 2급과정 (2개월) • 1급과정 (1개월) 미국 팔머대학 교재직강, 2년 전문대 교육 과정을 108 시간 집약완성

장 소 • 지하철 1호선 구일역에서 도보로 5분, SK주유소 뒤, 기숙사 이용 무료

입학일시 • 2008년 7월 10일 (선착순 20명)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중생교육을 위한 맞춤 교육
최면으로 전생,현생,미래생 탐색 · 나를 찾는다

전생 · 빙의 · 자기 최면 · 치료 최면

• 진정 누가 당신을 능숙한 최면술사로 만들어 줄 것입니까?
• 수많은 교육생이 바글 거리는 교실에서 이론 위주의 교육으로 얼마 만큼의 교육 효과를 얻으시겠습니까?
• 수강비가 수백만원 해야만 고급교육 일까요?
• 훌륭한 강사 입니까?
• 최면의 본질적이고 체계적인 최면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개강일 2008년 7 월 10일(목요일) 오후 2시
교육기간 주2회(총8회) 고급속성 과정
모집인원 선착순 20명
교육비용 50만원
교육대상 스님, 성직자, 의사, 한의사, 대체 의학인 체육지도자, 최면 관심자, 일반인
교육내용 자기최면/타인최면/기억력, 집중력 증강/우울증 해소/대인공포/성격개선/스트레스/수면장애/빙의/전생/금연/금주

◆특기 사항
1.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경비
2. 개인별 심층교육, 이론을 토대로 실기 위주의 교육
3.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책임교육, 평생교육
4. 지방 교육생을 위한 기숙사 무료이용



원장 우혜안 스님

사단법인 해동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
서울 · 구로구 구로1동 685-201 천인빌딩 5F
본원 교학과 Tel : 02-853-6010~1

웃음보살 불등거사 <5>

구성 : 김흥인



대문과 나귀와 밧줄만 지킨 하인 [백유경(百喩經)]



주인이 먼 길을 떠나기 전에 하인에게 분부했다. "너는 문을 잘 지키고 나귀와 밧줄을 잘 살펴라." 주인이 떠난 뒤 이웃집에서 풍물놀이가 열렸다. 하인은 풍물놀이가 보고 싶었다. 하인은 밧줄로 문을 매 나귀 등에 얹고 풍물놀이를 즐겼다. 하인이 나간 뒤 도둑이 들어 집안 재물을 모두 훔쳐 갔다. 집에 돌아온 주인은 깜짝 놀라 하인에게 물었다. "재물은 모두 어쨌느냐?" 하인은 대답했다. "어르신께서는 아까 저에게 문과 나귀와 밧줄을 부탁하셨습니다. 그 밖에는 제가 알 바가 아닙니다." 주인은 다시 말했다. "너를 남겨 두고 문을 지키라 한 것은 바로 재물 때문인데, 재물을 모두 잃었으니 문은 어디에 쓸 것인가."

어리석은 사람이 애욕의 종이 되는 것도 이와 같다. 부처님은 항상 '여섯 가지 감관의 문을 잘 단속하고 여섯 가지 경계에 집착하지 말며, 애욕의 밧줄을 잘 보라' 고 가르쳤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양(利養)을 탐하여 구하고, 거짓으로 청렴한 채하며 고요한 곳에 앉았어도 마음은 다섯 가지 쾌락에 탐착한다. 즉 빛깔과 소리와 냄새와 맛에 홀리고 어지럽혀 마음을 덮고 애욕의 밧줄을 묶는것은 바른 생각과 깨달음의 재물을 모두 잃는 것과 같다.

옛 판화의 세계

부처님의 큰 제자들

가섭구도(迦葉求道)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죽원정사(竹園精舍)편 불암사판 1673년간행, 반곽(半郭) 27.2×18.0cm

부처님이 교화를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1200 아라한 등 수많은 제자들이 배출됐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도 전역에 퍼져나가며 불교 교세는 크게 신장됐다. 부처님 제자 중 상수제자가 마하가섭존자다. 이 삽화는 불암사판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삽화 가운데 한 장면으로, 마하가섭 존자가 스스로 머리를 깎고 출가하는 것을 보고, 천신들이 내려와 석가모니 부처님이 죽원정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장면과 마하가섭이 부처님께 제자 되기를 청하는 장면이 순서대로 전개되고 있다.

마하가섭은 출가해서도 욕심이 적고 만족할 줄 아는 소욕지족의 삶으로 항상 두타행(금욕의 고행)을 닦아 하늘과 인간세계의 존경을 받았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실 때 "나의 정법을 가섭에게 부촉한다"는 유교를 남겼다. 마하가섭의 두타행으로 유명한 일화 중 문둥병 여인의 탁발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가섭존자가 탁발을 나갔다가 문둥병 여인과 마주쳤을 때, 마침 쌀죽을 한 그릇 갖고 있던 여인은 가섭존자의 인자한 모습을 보고는 "저렇게 훌륭한 분에게 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병에 걸린 것"이라 생각했다. 여인은 자신의 쌀죽을 가섭존자에게 대접하려 죽을 바리때에 부었다. 그 때 바리때에 부어진 죽 속에 파리가 빠졌고, 파리를 꺼내려던 문둥병 여인의 썩은 손마디도 죽에 빠졌다. 가섭존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쌀죽을 맛있게 먹었다. 이에 감동한 여인은 감사한 마음으로 큰절을 올렸다.

가섭존자는 여인의 소원을 물었다. "저는 가난하고 또 나쁜 병에 걸렸습니다. 빨리 이 몸을 벗고 다음 생에는 하늘나라에 가서 좋은 몸을 받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오래지 않아 가섭존자에 대한 신심을 간직하고 죽은 문둥병 여인은 가섭존자에게 죽을 보시한 공덕으로 도솔천에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 행복한 삶을 누렸다.

선학 스님(명주사고판화박물관장)

허허당의 세상만사



▪ 달새

달새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단지 네가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요
내 가슴에 사랑이 남아 있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너를 그리워 하고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다만,
내 가슴에 그리움이 남아 있기 때문이 아니라.
네 존재의 슬픔을 알기 때문이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성 불 조 각 원 www.sungbul.co.kr




서울 송림원 석가모니부처님


신흥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상원사 500나한


온양 수암사 지장 목탱화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치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성불조각원 이 하는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용두...
■ 연, 법상, 목어, 불명패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담합니다.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 화 : 033)263-1102 · 017-379-0590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전통사찰 등록
문 화 재 등록
법 인 등록
"비법인 설립"
(서류대행)
성산개발
011-9476-9001

달마도 무료보시
중국 소림사 한국 문화원 원장으로 추대해주신 보은으로 불자님 일만명에게 달마도를 무료 보시해 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 170번지 동일빌딩 6층 소림사로 오시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02)720-6363
011-747-8692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상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 전국 택배가능 ◁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원인없이 아프신분 영험
궁금증 즉시 해결
수국사 원성 합장
02)2603-2992
011-340-5963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개인지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재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실제 감정 위주)
051)333-3258
011-591-527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역학, 전생요법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연화기공(蓮花氣功) 수련
기도할때나 수련할때 그림이 보이며 붉은색,노란색,파란색, 보라색이 보이는 스님, 불자님들께 높은 차원의 기공비법을 전수 합니다.
[대상:스님 및 일반불자]
010-4500-8234

스님 되시렵니까?
전화 주십시요
02)584-8844
011-354-8484

각종 불공 범음·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영산재, 수륙재, 각시식,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2)939-3327
011-9923-3329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미얀마 사야도 명상지도
참나를 찾아가는 열린명상원
건 봉 사
뜻 있는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7월부터 합니다 / 매주 토,일)
5인 이상 단체는 수~일(4박 5일가능)
문의 033)433-3847

신비의 일침요법 및 기치유 전수자모집!
일선의 포교에 힘드신 스님과 포교사님들께 23년간의 임상 노하우를 전수 합니다.
1개월이면 누구나 즉시 현장에서 통증을 없애는 신비를 발휘합니다.
속성비결 책임완성까지! *현장에서 체험하십시요*
▷개강일 : 2008년 5월 24일 토요일
* 스님 및 포교사 특혜 *
041)576-0633
네이버에서 '연화도법'을 검색하세요!
대한불교조계종 인덕사 주지 도안 합장

자격취득안내
◦포교사 분야 : 상담포교사,역학상담사 유아놀이포교사,불음법회포교사,주술포교사 풍수지관포교사,국악연주포교사,장묘관리포교사
◦법사분야 : 상담법사,교법사,상담지도법사, 아동지도법사, 불음지도법사,영불지도법사, 장례지도법사,국악지도법사
◦대법사분야 : 교학사,종학사,종사,대사,선사,율사
(법인등기 제1969호)
한국불교지도자연합회
011-412-8040

대한전통불교대학
학인모집 실전위주
영산 작법무, 범음범패, 고장법고, 바라(천수바라)
● 사찰행사 : 천도재, 점안식
*양산서창
010-7579-8200
대진, 도광 합장

몸이 아프십니까?
목 어깨 척추 짝다리 등등
고질통증(허약,의욕,기력 상실자)기공활법교정
* 빙의 천도재,구병시식,신병,효력 못 본분
* 무료결혼식 올려드려요(晩婚)
인생사 www.mukuk.net 치세요
성왕사 무극합장 10~12시 전후 상담
TEL 02)835-2955
010-3817-3387
온라인 농협 712-12-003387

초혼·재혼·국내·국제
대졸 초 · 재혼,신원확실
직장인,공무원,사업가
국제,필리핀,베트남,한족
재혼 70세까지 전화상담환영
02)312-5004
017-766-6888

불화그림 배울분구함
남 · 여 20~30세
노원구 상계동 전철 4호선 당고개역 부근 화실
011-257-4601
02)931-2287

600년된 벽조목(霹棗木)
● 양도가액 3천만원
● 벼락맞은 대추나무뿌리
● 사진 자세히 보실분 다음까페 부처골풍경소리 cafe.daum.net/jijangsw
054)383-8553
011-9585-4908

간병인 구함
건강하신 할아버지 돌보시며 같이 생활 하실분 구합니다
(단, 55세이상 홀로계신 불자님 모십니다)
017-573-2905

국제 조계종 도심속의 통영사
(희망을 열어가는 젊은 부처들)
산사 음악회, 대중행사 전문 포교도량 (무료봉사)
◦서울본사: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역8번 출구앞
◦강원지사: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고속터미널옆
02)3426-1357
010-8726-1357

비구니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칠곡
016-521-0003

미국(L.A.)에서 수행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외국비자 있는 스님에 한함
부전스님 모십니다
042)282-9270

50대 중반으로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남 예산
(조계종 비구니 사찰)
041)335-3091

신심으로 수행할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북지역
043)297-8728

충남 천안시 광덕면 신덕리 12번지 천안공원 앞 천안사 봉안당(납골당)
동참하실분 모집
041)568-4610
010-5777-4799

청정 관음 도량입니다 기도공부 요양하실분 모십니다
연로하신 분들을 친부모처럼 모셔드립니다
010-9367-5982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불심이 돈독한 처사로서 사찰에서 공부하며 함께 기거 하실분
•스님이 되시고자 하시는 젊은 분을 찾습니다(50대이전)
(대구 팔공산)
011-9045 또 904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02)359-7317

부전스님 기도하실보살 스님될 행자 모십니다
▷서울
02)359-4429

운영이 어려운 사찰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보시없이 원력 세우겠습니다
(성만스님)
010-3131-1094

서울근교 신축 사암 사무장
(女,비구니스님도 가능)
공양주보살,
화주보살(女)모십니다
011-351-2993

가족처럼 함께 할 공양주 보살님을 찾습니다
▷서울 우이동
02)990-1725

男 행자, 女 종무원 (30-40세) 모집합니다
▷경기평택
031)682-3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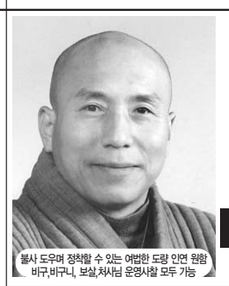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사찰에 거주하실 분
(나이: 50-65세이하)
▷범어사 금강암
051)508-4509

여법하게
지낼수 있는
부전스님자리
원합니다
010-6652-500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용인소재 사찰
011-270-2675
031)335-25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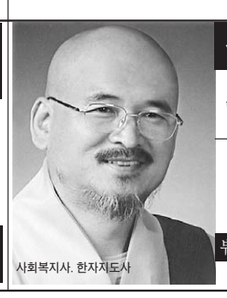
마음이 편치않으신 분들을 위해
구병시식을 집전해 드립니다
019-4949-9705
지리산 토굴에서 이산 합장

역 학 공 부
• 사주 + 궁합 + 택일 + 작명 : 초급반 7월 7일(월) 18:30개강
• 인터넷 동영상 강의 :사주+궁합+택일+작명(초급부터 완성까지)=45만원
www.kbs.cc 풍수, 관상, 육효, 자미두수, 수상/수료증 자격증
한국역학협회 관일학원 월간역학교육원
동대문운동장역 4번 출구 도보 2분, 전화 1688-1137


불사 도우며 정책할 수 있는 여법한 도량 인연 원함
비구,비구니, 보살,처사님 운영사찰 모두 가능

바라 · 작법무등은 원할경우에만 시연해 드리며 큰 법력으로 사물과 함께 우리말 · 한문등을 마음대로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해탈케 하는 정말 신심나는 천도재,49재 및 불상, 불화 점안 각종 불공의식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1-854-8107
비구승 무진장 합장

대방등 대집경 특별강좌
● 강좌내용 : 28숙 ●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중국 소림 삼삼구 기공 지부장 전수자 모집
◇ 스님,법사님의 포교 방편최고 ◇
■ 最高의 神通氣功 名師
1.빙의(퇴마)치유,귀신을 잡아 보여줌
2.환상을 보게 하고, 온,냉의 기를 발생
3.기를 쏘아 부황으로 사혈
4.맨손의 기로 신문지에 불을 붙임
신통기공사 중국정부 추인 자
■ 웰빙 최고의 건강비법
1.스트레스 해소,각종 질병이 치유된다
2.기억력 상생 화생 성적 증진
3.성격이 바뀌고 비만이 치유
※ 일반 기본전수 3개월,속성전수 2개월
법회 100명이상 동참시 시범을 보여드립
사단법인 : 대한선행불교 조계종 총무원 * 사찰 입종 환영
부설:삼삼구 불기공 총연합본부(5호선 명일역 3번출구 인근)
전화 02)426-4774, 011-9092-0533 / 팩스 02)426-5585

중풍 오십견 요통 관절통 담결림
㉮ 장기 병원치료 했으나 효과없는 각종신병환자
㉮ 스님 포교사 기치료사 코치감독단장 비법전수
㉮ 무속인 지압시술 및 신묘한 령적비법 전수
※ 중국 초능력기공사 초빙 치료기법시술 및 전수
02)584-8844 / 010-9137-1667
청계암 주지 만허 합장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봉선사
• 법 명 : 해 산
• 주 소 : 충남 천안시 병천면 탑원리 산 33-1

상기사찰 및 본인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7월2일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간 건강해야 장수할수 이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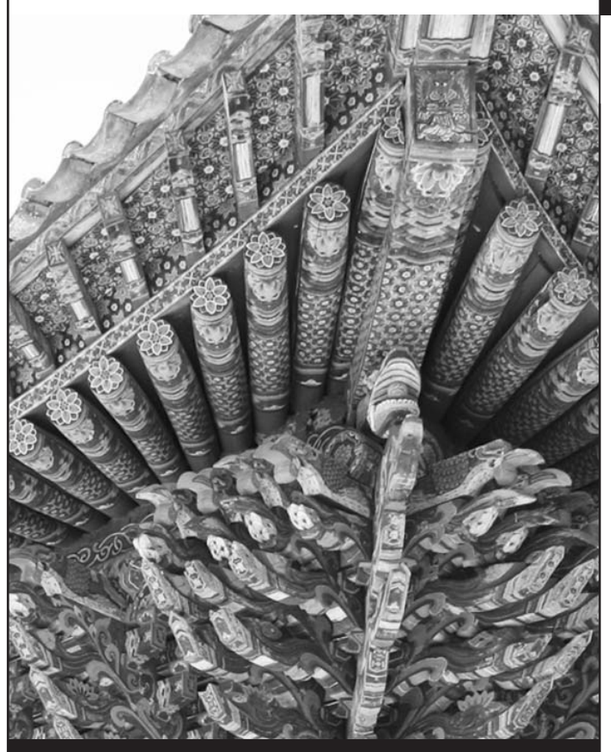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깨끗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주문하시면 (생산) 달여 드립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은 주문(생산) 달여들이며 주문시 기간은 3일~4일 걸리오니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상담 (055)963-9583
문의 (055)355-5626
산마을 토종(민속농원)

육임 수강생 모집
「육임 수강생 모집」
1. 개인 지도 수갱생 모집
2달 완성(수강료 300만원)
단, 명리나 오행에 기초를
익히신분에 한하여 가능함
2. 기초 수강생 4기모집(수강료 100만원)
6월 개강 목요반 4시 - 6시 30분
6월 개강 토요반 10시 - 12시 30분
고급반 육임을 하신분들에 한해서...
신 간 안 내
최고에 오행술인 육임을 보다 쉽고 빠르게
공부 할 수 있도록
설명을 각 점단마다 국수를 부쳐 설명하였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온 목적사를 말할수 있는 내정 비법인
시간법이 들어 있습니다.
공 념 학 당 : 상담 가능(전화로도 가능)
■ 상담문의 : 02)793-7333(전화 상담도 가능)
■ 홈페이지 : www.saju79.com(강의 홈페이지)
www.unsemaru.com(운세상담 홈페이지)
■ 사 무 실 :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35-45호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6-21-0792-969(예금주 : 박옥자)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이나 찾아오세요
명리학 [사주첩경통달 이석영저자]
명리학 질문 10초내 답변
(만세력 책없이 5초 이내에 두뇌로 일주 통달, 양력)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월·일·시와 지장간 전체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흉살이 있다고 해도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 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02)826-5067
(통화 중일때는 02-574-3427) 핸드폰 011-498-5067
(3호선 양재역 5번출구 100미터 직진 버스정류장 옆 10초 운세 3층)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9 / 02)732-1522(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 - 수요일
· e-mail : parkwonbum@yahoo.co.kr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대가람)안내

마이 부처바위 출현(보물급)
※ 자연석 높이 15m, 가로 50m

● 건물:법당 및 요사채 400평(6동)
● 대지:2500평 임야:12000평
● 사찰 내 유명 약수터(100년생)
● 도량 주변 칠보석 다량 매장
● 30년생 주목, 단풍나무 다수
● 심산유곡,주변 직벽암반 경관최고
● 계곡 폭 25m, 전면 300m
● 버스진입가능(12m 도접)

※ 가액 9억

부산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시내 및 암자 토굴 소액 7천 ~ 30억까지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제주도	● 위치 : 서울	● 위치 : 부산
● 법당 : 30평	● 법당 : 28평	● 법당 : 22평
● 요사 : 60평	● 요사 : 38평	● 요사 : 25평
● 부지 : 700평	● 부지 : 170평	● 부지 : 191평
● 가액 : 3억	● 가액 : 10억	● 가액 : 7억5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토굴(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교촌동
● 건평 39평(법당 35평임)
● 사용할 수있는 뒷편땅 30평정도있음
● 가액은 7천만원입니다
054)332-3961
011-9583-3961

토굴(급)안내

● 위치 : 대전
● 법당 1동, 삼존불,요사채 1동 방2개 창고2개
● 시설일체무료양도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3500만원
010-9518-3177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죽전 지하철역 5분거리)
● 평수:약 42평(2층)
● 구조:법당 약20평(삼존불 모셔있음) 방2개, 주방겸거실,단독 남,녀화장실
● 가액:보증금 5백만원에 월30만원 (시설비 2천3백만원별도)
010-6835-7370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상가 아파트 밀집 최요지
● 평수 : 45평
● 방2, 법당, 공양간, 시설완비
● 즉시법회 및 숙식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50만원 시설금 절충가
055)337-8600
011-834-854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 앞 주택지)
● 4층 건물의 3,4층(120평)
● 진신사리 봉안
※ 30여 년간 포교에만 전념해 왔으나, 건강상 급 안내 합니다.
● 최고의 시설, 일산상의 이유로 부득이 저렴하게 양도함
● 가액 : 총 4억 (절충가능)
*꼭 하실 분만 연락 바랍니다
02)338-0567

사찰(절)터 안내

● 위치 : 경북 경산시 (최고의 명당 자리)
● 정남향 약 2,000평
● 평당 23만원
010-3524-5677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장흥군 회진면 진목리 산1번지 여래암
● 대지 1700평, 법당 36평 요사채 방 2칸 (앞 에 바다가 잘 보임)
● 가액 : 1억6천
011-9424-1005

도심속 포교당 급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신이문역 7분)
● 평수 : 23평(2층 건물중 2층)
●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 보증금 5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1200만원 전세 4500만원. 양도가 9000만원
010-7669-8600

포교원 안내

● 위치: 칠곡군 약목면 약목기차역 맞은편
● 건평 : 약 45평
● 2층 건물중 2층, 아주편리함
● 법당, 큰방2, 주방, 화장실, 베란다
● 보증금 1,500만원, 월10만원 시설비 2,200만원
● 스님 LA 파견으로 급 안내함
017-217-1919
054)974-030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이천시 설성면 소재
● 대지 : 300평(건물만) 도지 : 1년에 쌀 한가마
● 법당, 가사, 산신각, 구옥 2채 법당 : 와불(3m), 삼존불(관음, 약사, 지장), 미륵(160cm)
● 양도가 : 2700만원(절충가능)
010-9793-8977(달마스님)

사찰 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여초리 화왕산 주령 상교산 명산 사찰터
● 평수 : 임야 관리지역 12,792평 임야 농림지역 31,337평 총 44,129평
● 가액 : 4억6천(급)
017-570-1600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김제시 납골공원 내 있는 절
● 법당 15평, 삼존불, 시설일체, 몸만오시면 됩니다
● 전세 1500만원 법사님, 역학하시는 분 환영
※60세 이상 연락바랍니다
063)543-5551
018-427-2256

사찰터 최적지

1.경북 봉화군 석포리 소반야계곡 밭 1200평(평당 8만원) 자연석 약 5천만원 보유
2.충북 단양군 천동굴 옆 소백산 아래 밭 3000평(평당 4만원)
3.충북 제천시 수산면 남한경옆 임야 1540평(평당 7만원)
016-464-6386 한산합장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사천읍 대로옆(항공산업도시)
● 대지 : 42.5평(07.11월 준공) 시부지 터밭 약간
● 1, 2층 각24평 2층 : 법당 15평, 방2, 주방1 포교원, 시민선방, 친견소 최적지, 현 기도중
● 가액 : 1억4천만원(절충가능)
● 사유 : 건강상(꼭 필요한분만)
010-4668-2061
(부재시 음성녹음요망)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강서구
● 전체 평수 100평, 법당 삼존불, 요사채 방2
● 보증금,시설비 합 2천만원,월5만원
010-6222-2624

사찰(급) 안내

● 위치 : 안동 암산 유원지 테마 마을
● 대지 200여평 법당 28평
● 큰방3개, 비품 일절 양도
● 삼존불, 소불(240불)각단탱화
● 관광단지조성계획지로 주변 경관이 수려함
● 삼성각,지장보살(6m), 텃밭(80평) 시내 10분거리 주변땅으로 잔디조성
● 가액 : 1억 7천만원
054)858-9628-9
019-377-8967

포교당 터(임법당) 안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왜관읍 낙동강변
● 대지 232평, 신축건물 60평(3년)
● 현재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주변경관이 사찰로 운영함이 좋을 듯 싶고 포교당으로도 적합함
● 심야전기시설,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현 시가액에 맞지않은 3억2천만원에 인연맞는 분께 양도하려함
011-803-7448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횡성 IC 10분거리 이내
● 평수 : 5,800평
● 법당 3동, 요사채 5동, 창고 1동
● 가액 : 22억
010-4445-517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용전 삼랑진 Ic에서 5분거리
● 대지 : 80평
● 법당 : 14평 요사채 17평 판넬조립식
● 가액 : 8천만원
010-9929-290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내 15분거리
● 종교부지+대지 약 700평
● 신축2년(사찰허가)
● 법당 15평 요사 30평 컨테이너 1동, 실외 화장실2 넓은 주차장
● 시내버스 절앞 정차 조용하고 아름다운곳
● 가액 : 3억 8천만원
019-357-737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남 김해시
● 평수:46평(3층단독)
● 법당:약사,지장,관음, 각단후불탱화
● 요사,공양간,방,시설완벽
● 주차,교통,시장편리,위치좋음
● 보증금 및 시설비 1천 8백만원
010-5883-5005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대신동 삼랑진 IC에서 5분거리
● 법당35평, 요사채40평, 산신각2평, 용왕당2평
● 가액 4억
010-6283-1293
명성불사

사 찰 안 내

● 충북 영동 1100만원 1년 도지 10만원
● 충남 온양 3,800만원 1년 도지 쌀2가마
● 충남 도고 6,000만원 1년 도지 50만원
● 분중짱 양도조건 권리금 입니다
● 상호 형편에 맞추어 드리겠습니다
● 이광고는 7월 말까지 유효합니다
041)541-0533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대구대 앞 대로변)
● 법당 42평(5층 건물중 2층)
● 삼존불, 108호신불, 방1,주방, 샤워실(비품일체 양도)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45만원 시설비 답사후절충
● 급한 사정으로 저렴하게 양도함
010-5013-2526

포교원 안내

● 위치: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 포교원 3층 건물 50평
● 보증금 1000만원,월 50만원 시설비 3500만원
● 모든 시설 갖추어져 있음 즉시 법회 가능
016-339-1628
032)504-3467

포교원 안내

● 위치 : 제주시 외도 1동 부영2단지. 2천세대 대단지 앞
● 법당 15평, 요사완비
● 주차공간 300평 및 채소밭으로 활용가능 시설비품 집세 합 500만원
010-9115-6831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버스정류장 앞, 부평시장 역세권
● 평수 : 120평
● 방 3, 창고방 1, 창고 1,
● 공양간 大, 주방 2, 화장실 2 삼존불, 지장소불 120불
● 시설 최우수급
● 보증금 1천만원, 월 85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32)519-1108
010-4545-110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의정부1동 의정부역 7분거리
● 2층건물중 2층
● 평수 20평
● 삼존불,법당1,산신각1,방1,공양간
● 보증금 4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800만원
● 즉시법회가능
016-679-3079

포교원 안내

● 위치: 울산시 공업로터리 주변 8차선 도로 건물 울산공원,등산로 입구
● 2층 건물 전체 25평
● 방, 부엌, 종무실, 법당 화장실 완비
● 전세 5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일부 보시금 하실분 전화 주십시요
018-528-1234 정도암 주지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동인천역에서 6분거리 (유동인구 多)
● 평수:약 80평
● 가액:보증금 4000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3500만원
● 주차장 완비,심야 보일러
010-2892-9877

산세수려한 교통요지

● 약1만평가량
● 원룸형 60평식 2동 목조기와 30평1동 토목공사완료
● 관리지역
● 총양도가 15억중 6억원 대출가능
010-8992-6787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북 영양읍 소재
● 대지:130평 상업중심가
● 대웅전 42평내 산신정 점포 30평 단층 슬라브
● 가액 4억(일부후불가능)
054)683-2211
011-538-2211

사 찰 안 내

● 위치: 고성군 고성읍 읍에서 5분거리
● 임법당 20평,방2 컨테이너,주방1
● 몸만오시면 됨
● 가액:답사후절충
010-5407-1337

포교원 안내

● 위치:부산 양정 로타리 동의의료원 입구 지하철 1호선 4번 출구에서 3분거리(버스노선 많음)
● 전세 1,500만원 월세 60만원 시설비 7,000만원
● 평수:75평(3층 건물 단독주택,출입구 별도)
● 삼존불(석가모니불,관음보살,지장보살),탱화,산신각, 방 4칸,일체시설완비
● 바로 법회 가능하며, 몸만 오셔도 됩니다
● 불교 대학 운영하시기 최적의 조건완비
051)865-1946
016-786-2196

서울 도심속 포교당 안내

● 위치 : 강동구 천호역 8분거리 천호시장 사거리 뒤 번화
● 법당,방,주방(1층), 관음불 후불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300만원, 답사후 절충
● 스님 혼자 계실 분 적합 즉시 법회 가능, 몸만 오시면 됨
● 꼭 오실분만 연락
010-9954-3824

지리산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산청 시천 중태리
● 대지 374평(실평수 약 600평)
● 법당 25평, 요사 30평, 산신각 2.5평
● 차실, 텃밭 760평 총 2800평
● 뒷산 홍송, 절옆 폭포
● 가액 : 2억 8천만원 (대출 및 절충 가능)
011-9393-4965

사 찰 중 개

● 위치 : 서울, 종로
● 부지 : 1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5억
● 전국 사찰 암자 급히 양도하실분이나 구입하실분 전화주세요. 만족을 드립니다. 성불하세요.

전국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포교당 안내

● 신비의 바다 보배의 진도 (전남 진도군 내)
● 대지 : 약 2500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식당 겸) 전기보일러, 산세수려함
● 가액 : 3억 3천만원 (답사 후 절충가능)
011-9928-0005
061)544-0484

신축토굴안내

● 위치 : 충북 단양
● 삼태산 옥녀봉 아래. 향토집 금년신축
● 앞이 확 트여 전망좋으며 조용한곳 포장도로접
● 나무때는방에 동파이프시공
● 연료비 대폭 절약
● 텃밭가꾸며 조용히 공부하실분
● 건평 23평, 대지+전, 답:965평
● 가액:1억3천5백만원
043)423-1101
010-6460-1316

불사중인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대양면 안금
● 임야 2만4천평중 기초작업된 임야는 약 3천 600평정도임
● 대지 206평, 논(밭)900평
● 법당 겸 공양간,숙소(30평 임시)
● 가액은 3억으로 공사비, 땅매입비 및 건축시공비임(답사후 절충가능)
010-3157-850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초동면 반월리
● 법당 슬라브 기와 20평, 대지 235평
● 요사채 슬라브 20평, 산신각 6평, 황토방
● 법당 뒤에는 대밭이 있고, 산자락 아래 위치 앞쪽으로는 낙동강이 흐르고 있는 전망 좋은 곳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1억3천(상담 후 절충가능)
011-879-7551

포교당 안내

● 위치 : 마산시 산호동 산호시장앞
● 평수 30평, 2층 단독
● 삼존불, 신중탱화.,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월4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4001-8476
055)232-7151, 243-3758

멋진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고령(신촌유원지 옆)
● 대지 2000평, 대웅전 단청 40평
● 요사채, 큰방4, 현대식 주방2, 목욕탕, 실내화장실, 요사채 1층 원룸 15개, 2층 원룸 15개, 다락 : 큰방 2개. 현대식 신축
● 2007년 5월 올수리 14억원
● 가액 : 4억(융자 2억있음) ● 주인직접 급 양도
011-869-8608
055)346-290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대사동 (국악문화회관 후문 건너편)
● 평수 : 90평(7층 건물중 7층 전체사용)
● 법당 : 40평(미타삼존불, 원불 200불, 인등 600개, 신중단, 영단, 연등)
● 주지실, 사무실, 상담실, 주방겸 공양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완비
● 보증금 4천만원, 월30만원, 시설비 5천만원(최상급, 절충가) 스님 급 사정으로 저렴하게 양도
042)252-5450/055)944-5450
011-649-0108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42>
(修習止觀坐禪法要)

제6장 정수행(正修行) ⑥

일체제법은 자기 마음이 생멸하는 모습

如經偈中說
諸法不牢固 常在於念中 已解見空者 一切無想念

경전 게송에서는 "제법은 견고하지 않고 항상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였다. 제법이 인연을 따라서 일어났다면 다시 인연의 소멸을 따라서 없어진다. 따라서 "제법은 견고하지 않다"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생멸하는 인연은 그 자체가 본래 공이어서 항상 나의 마음 가운데 환하게 나타나 있다. 가령 마음이 없다면 상대적인 경계도 따라서 없어진다. 왜냐하면 마음이 일어나면 제법도 일어나고, 마음이 소멸하면 제법도 소멸하여 일체 모든 법은 자기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능엄경에서도 "제법이 일어난 것은 내 마음 분별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며 일체 인과와 세계 미진까지도 자기 마음을 자체로 해서 이뤄진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은 만법의 근본이라는 점이다.

또 "이미 공의 이치를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은 일체의 망상관념이 없다"라고 하였는데, 이 두 구절의 문장의미는 매우 심오하기만 하다.

이미 이해했다는 것은 일체 만법이 공으로서 무소유라는 점을 명료하게 깨달았다는 뜻인데, 수행이 이 경지에 이르면 일체 망상 잡념이 없어지며 망상 잡념이 없어지면 그 마음 자체는 자연스럽게 청정해진다.

"공의 이치를 본다고 하는 것은 단지 제법이 공하다는 쪽만 보는 것이 아니고 마하반야는 필경 공의 이치라는 것을 통달한 것이며, 망상의 관념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망상의 관념이 없는 정도일 뿐만 아니라 있어도 실제 있지 않고 없어도 정말로 없지 않다[非有非無]는 관념까지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체 망상의 관념이 없다"라고 하였다.

또 "제법은 견고함이 없이 항상 망념가운데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지 수행으로는 체진지에 해당되고 관 수행으로는 공관에 해당되며, 이미 공의 이치를 이해하고 본 사람은 지 수행으로는 방편수연지이며 관 수행으로는 가관에 해당된다. "일체 망상의 관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 수행으로는 식이변분별지에 해당되고 관 수행으로는 중도관에 해당된다.

만일 이상에서 열거한 삼지삼관의 이치를 심오하게 참구한다면 다음에 나오는 문장의 내용을 이미 절반 이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二對治心沈浮病修止觀 行者於坐禪時 其心闇塞無記瞪瞢 或時多睡 爾時應當修觀照了若於坐中 其心浮動輕躁不安 爾時應當修止止之 是則略說對治心沈浮病止觀相 但須善識藥病相對用之 一一不得於對治有乖僻之失

두 번째로 마음이 혼침하고 들뜬 병통을 대치하는 지관수행에 대해 밝히고 있다. 수행자가 고요히 앉아 참선을 할 때 마음이 혼침으로 껌껌해지거나 또는 들뜨고 요동치거나 또는 무기로 멍한 상태가 되는 등 갖가지 병통이 일어나게 된다.

무기(無記)란 뚜렷하게 기억하여 구별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무기에는 개부무기(蓋復無記)와 명료무기(明了無記) 등 두 종류가 있는데, 제팔식은 명료무기이기도 하고 개부무기이기도 하다.

처음 발심한 사람은 수행할 때 마음이 산란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기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오랫동안 도에 마음을 두고 노련하게 수련한 사람은 수행할 때마다 밝은 마음을 덮어버린다는 개부무기가 있기 마련이다.

거친 번뇌인 혼란한 망상은 잠시 잠복된 상태로 있으나 그 가운데서 일종 뚜렷하게 기억하고 구별하는 마음이 없이 애매모호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밝아도 밝지 않고, 어두우면서도 어둡지 않는 마음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망념이 일어난다는 것도 역시 지나치게 어둡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기억이 분명하지 못한 것이다.

수행인은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명료하게 모르고 그것을 도인줄 집착심을 일으키게 된다. 이 때문에 세월이 애매모호한 상태로 흘러가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공부를 잃게 되는데, 이는 진실로 애석한 일이다.

무기의 해로움은 혼침과 산란의 병통을 능가한다. 수행자는 고요히 좌선하는 가운데 이 같은 개부무기가 발현할 때는 반드시 관조의 수행을 하면서 그 마음이 항상 여기에 머물러야 한다.

혼침에 빠지지 않았다면 수행경계가 분명하고 지 수행으로서 산란을 대치하고 관 수행으로서 혼침을 대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지 수행을 해야 할 경우는 지를 닦고, 관 수행이 마땅하다면 관을 닦는 경우이다.

요컨대 병과 약을 알아서 병에 따라서 약을 투여해야만 하며, 혼란하게 약을 투여해서 반대로 병환을 증가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므로 "혼란하고 치우치게 수행하는 잘못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三隨便宜修止觀 行者於坐禪時 雖爲對治心沈 故修於觀照 而心不明淨 亦無法利 爾時當試修止止之 若於止時 卽覺身心安靜 當知宜止 卽應用止安心

세 번째로 편의를 따라서 지관을 닦는 문제를 밝히기로 한다.

편의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의 편의를 따라서 지 수행을 하는데도 구애받지 않고 관 수행을 하는데도 국한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수행하면서 오직 수행의 적당함만을 추구하여 이익을 얻는 것으로서 요점을 삼는다.

비록 마음의 들뜬 병통을 대치하기 위해 지 수행을 하여 대치하였어도 마음이 그대로 밝고 청정하지 못하면 역시 불법의 이익을 얻지 못한다.

이러한 때는 시험삼아 관 수행을 통해서 망상을 그쳐야 한다. 시험을 해본 뒤에 그 상황이 자기 마음의 편의와 서로 호응하면 그 편의를 의지해서 수행하는 것도 괜찮다.

좌선을 할 때 잠이 오는 마구니가 많다. 이는 본래 관 수행을 통해서 대치해야만 하지만 단지 관 수행을 오랫동안 해도 이익을 얻지 못하면 다시 지 수행을 의지해서 수마를 조복 받는 것도 무방하다.

이렇게 하기를 오랫동안 하다보면 수마의 병통이 자연스레 소멸하게 된다. 이를 두고 독으로서 독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몸과 마음이 청정해지면 이는 지 수행으로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부가 된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제법이 공의 이치임을 깨달으면 망상도 단절
편의 따라 지를 관으로, 관을 지로 대치해야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심왕(心王)과 심소(心所)

유식학 등 불교에서 두루 쓰이는 '심왕'과 '심소'는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유정들은 구체적인 사물이 은연중에 있는 듯이 여기는데, 이것을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불교에선 이러한 관념을 대치하려는 측면에서, 또는 심'에 대한 집착을 풀어주려기 위한 방편으로 '식'을 분석하여 여섯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는 소승의 견해입니다.

이를 다시 분석하여 여덟 개의 '식'으로 나누었는데, 즉 앞의 여섯 가지 심식에 제칠식과 제팔식을 더한 것입니다. 이는 대승에서 수립한 학설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다시 낱낱의 여덟 개 심식마다 심왕과 심소로 분석하였습니다. 가령 안식은 팔식 가운데 따로 독립된 자체가 아니라, 하나의 안식심왕과 그에 상응해서 작용하는 허다한 심소가 무더기를 이루고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다면 안식은 안식이라는 하나의 무더기, 즉 '안식취(眼識聚)'라고 해야만 하며, 그 때문에 안식은 독립된 하나의 자체로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총상 인식 선천적 본심인 심왕은
그에 상응하는 모든 심소 거느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안식심왕과 허다한 심소의 무더기를 동일적인 특성상 하나의 안식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심왕은 하나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심소는 많으며, 심소가 많다 해도 이 모두는 하나의 심왕을 의지해서 인식대상경에 있어서 동시적으로 그 활동이 일어납니다. 심왕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모든 심소를 주제할 수 있습니다.

가령 허다한 심소에 주제자가 없다면 심소는 허다하게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체계에 일대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때문에 많은 심소의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심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안식은 하나의 심왕과 많은 심소가 임시적인 화합의 무더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심왕은 목전에 나타난 대상경계를 분별없이 그 자체대로 인식하는 작용이며, 심소는 심왕의 총체적 인식과 동시에 후천적인 습기를 바탕으로 해서 심왕과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인식활동입니다. 이 두 가지 작용이 합해서 하나의 인식체계를 이룬 것입니다. ■정리=張如舟

출가의 꿈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제4기 단기출가학교 모집
● 대상 : 대학생 및 일반인, 48세 미만, 미혼인 남자
● 일시 : 7월 7일(월) ~ 7월 16일(수) 10일간
● 대구큰절, 감포선방 동시교육
● 참선, 기도, 교리 습의 – 수행자의 모든 것
● 會主 우학스님 법문있음
● 교육비 전액무료, 선착순
● 문의 : 053-474-8228
010-2488-8228
010-7190-4454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본각사 일두스님의 수맥파 상담
"지금 당신에 침실은 안전합니까"
수맥파를 알면 가정이 편안 합니다.
만병의 원인 수맥파
법당에 들어서면 무서움 오싹한기분 냉기가 돌고 신도가 줄어들고 의욕이 떨어지고 머리가 아프고 신경질적이고 매사 되는일이 없고 다툼이생기고 학생은 성적이 떨어지고 짜증만내고 남편은 귀가가 늦고 부부싸움이 잦고 법당,사업장,주택 사무실,기타영업장에도 사업이 부진하고 원인모르게 건강이 악화되고 병에 시달리고 악몽,가위눌림 깊은잠 못자고 생체리듬파괴 각종 암,중풍,관절염,심장질환,학습장애, 면역력이 떨어져 생기는 모든 건강문제!
식욕부진,만성 소화불량, 신경통, 고혈압, 뚜렷한 병명없이 원인모를 병에 시달리는 분.
만약 수맥파 위에서 잠을 자거나 근무한다면 당신은 이미 병들었거나 병들 위험이 매우 큽니다. 수맥탐사 1급 자격증 소지한 일두승이 탐사를 도와 드리고 수맥을 중화 시키거나 차단하고 미세한 수맥은 자리이동을 시켜서 수맥파에서 해방되도록 도와 드립니다.
귀 사찰이나 단체에서 원하시면 생활수맥 강의를 경기도 서울지역은 출장 강의를 해 드립니다.
2-3시간 교육으로 수맥을 찾아낼 수 있도록 기본 교육을 시켜드리고 잠자리 이동을 가능하게 교육시켜 드립니다.
수맥을 중화 차단하고 난 후 약 5-7일간 경험해보신 후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건강을 찾을 수 있는 해법이 있습니다.
궁금하신점 문의하여주십시요.
사찰의 주지스님 및 단체 개인분들께서 연락 주시면 성심 성의로 수맥 다우징(탐사)을 해 드립니다.
02)391-8540 / 010-6395-1644
한국 생활불교 조계종 (사단법인) 수맥협회 자문위원
본각사 일두 합장

(株)天星建設
석·납골당
석·굴법당
전문
석·납골당 조성공사
석·굴법당 조성공사 전문
석·축대 및 보수공사
석·저장실, 보관실(과일)
석·까다로운 석·길공사
석 파는 공사 전문 업체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1구 260-1
전 화 041)331-6863~5
팩 스 041)331-6862
핸드폰 010-4035-3354

25평 잘지은 법당을 보고싶습니다
법당
정사각형 25평 법당, 닷집, 지붕 등 아름답게 지어진 사찰을 찾습니다.
소재지를 알려주시면 참배하고 싶습니다.
▶팩스로 소재지 넣어 주십시오
FAX : 051 418 0104

“형식 달라도 본질은 하나”… 불·유·도 조화 강조

<13> 삼교정립과 이사겸(李士謙) 거사



그림 · 김홍인

중국을 다시 통일한 수(隋) 문제(文帝)는 철저한 불교신도였지만, 유 · 도 양가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오히려 문제의 정책은 유학을 핵심으로 불 · 도 양가가 보조적 역할을 하는 정책이었다. <역대법보기(歷代法寶記)>에는 “문하(門下)의 법(法)에는 내외가 있을 수 없고, 교(敎)에는 얕고 깊음이 있어도, 다른 길로 함께 도달한다” “짐은 도(道)의 교화를 입어 생각이 매우 청정해 석씨(釋氏)의 불이지문(不二之門)을 따르고 또한 노장(老莊)의 득일지의(得一之義)를 귀하게 여긴다”는 문제의 말이 실려 있다. 이것을 보면 불교와 도교를 모두 존중하겠다는 태도가 분명히 보인다. 문제는 수많은 사찰의 건립과 함께 국치의 근간으로 유학(儒學)을 위한 ‘태학(太學)’을 세웠고 도교를 위해서는 여러 도관을 세우기도 했다. 이러한 불 · 유 · 도 삼교병립의 상황은 역대 대부분의 황제가 채택한 정책이었다.

중국에 불교가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동한(東漢) 모융(牟融) 거사의 <모자이혹론(牟子理惑論)>에 이미 불유도 삼교의 융합론이 나타났으며, 겨우 설득해 저택을 사찰로 만들고 거상(居喪)을 그칠만큼 거사의 불교에 대한 신심은 돈독했다. 그러나 거사는 평생 출가는 하지 않았고, 또한 어떠한 관직도 갖지 않았다. <수서>에는 거사의 성품을 “어려서 부모를 모두 잃었지만, 평생 고기와 술을 입에 대지 않았으며, 결코 험한 소리를 입에 담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집안이 상당히 부유했으나, 자신은 항상 절약해 남에게 베푸는데 힘썼다고 전한다.

이사겸 거사는 특히 불교의 인과응보(因果應報)를 설명함에 있어 유 · 도 양가의 이론을 결합해 논리를 펼쳤다. 그는 인과응보를 설명하면서 유가의 ‘적선(積善)’과 도가의 전적에서 나타나는 윤회전생 증거들을 제시해 불 · 유 · 도가 비록 가르침 형식은 달라도 그 본질은 서로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거사는 그 가르침에는 우열이 존재함을 강조했다. 그에게 삼교의 우열을 묻자 거사는 “불교는 태양[日]이고, 도교는 달[月]이며, 유교는 다섯별[五星]”이라 답했다. 이는 이후 삼교의 우열을 논할 때 자주 등장하는 유명한 구절이다.

불경 역경 과정서 유·도가 용어 차용 불가피
중국 불교는 시대상황에 맞춰 ‘융합’의 길로

위진(魏晋)시기 현학(玄學)은 바로 도가와 유가 사상을 불교 반야학으로 회통시키며 나타났던 사조(思潮)였다. 그러나 외래종교인 불교는 끊임없이 유·도 양가의 도전과 배척을 받았다. 그로 인해 몇 차례 심각한 폐불 위기를 맞기도 했다. 남북조시기에 이르러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채택됐지만, 불교의 사상적 영향을 받아 유·도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했다. 수를 건국한 문제는 황제로서 이 점을 간과할 수 없어 불·유·도 삼교정립(三敎鼎立)을 선포했다. 문제의 삼교정립의 배후에는 바로 이사겸(李士謙) 거사의 건의가 있었다. 그에 따라 중국사와 중국불교사에서는 불 · 유 · 도 삼교정립의 건립자를 수의 문제로 설정한다.

이사겸(523-588)은 호가 자약(子約)으로 하북성(河北省)의 조현(趙縣)사람이다. 수나라 역사서인 <수서(隋書)>에 따르면, 어려서 부친을 잃고 홀어머니를 지극히 모셔 효자로 소문이 널리 퍼졌다고 한다. 후에 어머니까지 운명하자 상(喪)을 모심이 극진해 뼈만 남을 정도가 됐으나 송씨에게 시집간 누이가

원대(元代)에 유명한 거사 류밀(劉謐)은 <삼교평심론(三敎平心論)>에서 “수나라 이사겸 거사가 삼교를 논해 불교는 태양이고, 도교는 달이며, 유교는 다섯별이라고 하였다. 어찌 하늘에 삼광(三光) 가운데 하나가 결여될 수 있겠는가 ·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삼교 가운데 어떤 것 하나 결여될 수 있겠는가 · 비록 그 우열은 있을지라도 치우치거나 폐함은 허용할 수 없다”고 논했다. 원대의 염상(念常) 스님도 “이사겸 거사는 해와 달, 별로써 삼교를 비교했다. 여기에는 마치 우열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세계를 비추고 생령(生靈)이 윤회전생함은 하나의 덕[一德]이 있을 뿐이다. 셋 가운데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세계는 안립(安立)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주역(周易)>에서는 ‘건도(乾道)의 변화는 각각 바른 성명(性命)이다’라고 했다. 현명한 이사겸 거사여! 나는 성명의 대원(大原)에서 그 깊음을 보노라”(<불조역대통재(佛祖歷代通載)>권10)라고 찬탄했다.

이러한 역대의 찬탄은 이사겸 거사의 ‘삼교조화론’이 상당한 작용을 했음을 의미한다. 사실상 불 · 유 · 도 삼교조화 혹은 일치는 종교적 입장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색채가 더욱 짙다. 양한(兩漢)과 위진(魏晋) · 남북조(南北朝)를 거치면서 삼교는 서로 치열한 쟁론을 벌이며 주도권을 잡으려 애썼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삼교조화론’은 바로 요즘 기독교에서 ‘종교다원주의’를 채택한 것과 유사하다. ‘진리’를 주장하는 종교에 있어서 ‘다원주의’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리 개념상 서로 다른 진리를 인정하는 것은 스스로 진리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정치 · 사회적인 입장에서 종교가 끊임없이 대립하며 부딪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중국불교의 상황은 ‘종교다원주의’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중국불교는 역경과 그 행보를 같이 했다. 불교 경전의 번역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번역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적합한 번역어 선택이었다. 불가피하게 기존 중국적 사상을 담은 용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발생했고, 그러한 번역어 문제는 불교가 본래 지니고 있었던 사상에 중국 고유 사상이 가미되면서 또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예를 들어 반야부는 최초 역본인 <도행반야경(道行般若經)>에 그러한 재해석의 가능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도행반야경>은 후에 지겸(支謙) 거사에 의해 <대명도경(大明度經)>으로 다시 번역되고, 구마라집(鳩摩羅什)에 의해 <소품반야바라밀경(小品般若波羅蜜經)>으로 번역됐다. 여기에서 ‘도행반야(道行般若)’는 후에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로 음역되고, ‘지혜도피안(智慧度彼岸)’으로 의역되는 ‘Praja Pramit’의 번역이다. ‘도행(道行)’은 <노자(老子)>의 “대도를 행함[行於大道]”에서 연원한 것으로 짐작된다. <도행반야경>은 그 제명에서부터 이미 도가적 색채를 농후하게 풍기고 있다. <도행반야경>을 읽다보면 불교의 반야를 말한 경전인지 도가의 새로운 철학이론을 밝히기 위해 저술된 것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만큼 노장 도가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필연적으로 중국불교가 유 · 도 양가와 융합할 수 있는 근거와 여지를 남겼고, 실제 중국불교는 그 길을 걸었다.

이사겸 거사가 불교적 입장에서 삼교조화론을 제창했던 시기와 동일하게 유교 입장에서 삼교조화론을 제창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바로 왕통(王通; 580~617)이다.

왕통은 산서성(山西省) 하진(河津)사람으로 사후에 문인들이 ‘문중자(文中子)’의 호를 추숭했다. 그도 이사겸 거사와 마찬가지로 은거해 제자를 키우며 저술에 힘썼다. 수대(隋代)에 유명한 유학자들을 상당수 배출했다. 그는 <중설(中說)>이라는 저술에서 “<시경(詩經)>과 <서경(書經)> 등이 성행하던 태평한 세상이 멸한 것은 중니(仲尼; 공자)의 잘못이 아니며, 화려했던 진(晋)나라 황실이 혼란에 빠진 것은 노장(老莊)의 잘못도 아니다. 재계(齋戒)를 닦던 양(梁)나라가 망한 것은 석가(釋迦)의 잘못도 아니다. 잘못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지 그 도(道)가 헛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삼교는 각각 모두 통치에 필요한 것으로, 그 도가 결코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왕통은 불교와 도교는 본질적으로 ‘선교(善敎)’고, 석가와 노자 등은 모두 공자와 같은 성인(聖人)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삼교의 가르침을 서로 융합시켜 그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한 이른바 ‘통기변(通其變)’한다면 천하에 잘못된 일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교가일(三敎可一)’로 불리는 왕통의 주장은 유교를 중심으로 불 · 도 양교를 흡수하려는 논리였다.

왕통은 비록 유학자였지만, 결코 불교나 도교에 대하여 비판하지 않았다. 석가모니 부처도 ‘성인(聖人)’으로 공경했으며, 불교가 중국의 국정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그에 따라 불교인들은 왕통에게 ‘외호(外護)’의 공이 있다고 보아 <불법금탕편(佛法金湯編)>에 그의 전기를 게재했다. <불법금탕편>은 제왕(帝王) · 명신(名臣) · 거유(巨儒) 등이 행한 불교 호법과 관련된 전기를 모은 책으로, 왕통은 이사겸 거사와 함께 권6에 전기가 실려 있다.

이사겸 거사와 왕통의 이러한 삼교정립에 관한 사상을 통해 문제는 삼교정립의 정책을 실시했다. 문제의 이러한 삼교정립의 정책은 이후 중국 황제들에게 중요한 계시를 전했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정영식	1964년생	170	고 졸	공 무 원	서 울
임용우	1966년생	174	고 졸	자 영 업	청 주
노해용	1972년생	173	고 졸	C E O	청 주
이준우	1964년생	168	고 졸	회 사 원	대 전
김현태	1957년생	173	고 졸	회 사 원	대 구
조복재	1965년생	180	고 졸	일반전문직	구 미
임태빈	1981년생	180	대 졸	공 무 원	서 천
김기엽	1969년생	180	전문대졸	자 영 업	서 울
홍봉표	1967년생	180	전문대졸	회 사 원	경기고양
최명길	1974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경기시흥
오상택	1965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경기부천
한용석	1975년생	167	고 졸	회 사 원	부 여
최경복	1971년생	174	고 졸	회 사 원	전 주
이정배	1966년생	172	고 졸	회 사 원	충북영동
임형준	1973년생	176	전문대졸	회 사 원	대 전
이영근	1976년생	165	대 졸	회 사 원	대 전
김대중	1974년생	173	대 졸	회 사 원	경기용인
정화섭	1960년생	175	대중퇴	공 무 원	경기이천
이동희	1972년생	180	대 졸	회 사 원	경북예천
강정복	1965년생	170	고 졸	자 영 업	인 천
정지영	1974년생	174	중 졸	회 사 원	수 원
임인갑	1974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대 구
이현철	1972년생	175	방통대재	금 융 직	서 울
김종희	1963년생	163	고 졸	회 사 원	서 울
이영일	1965년생	165	대 졸	회 사 원	강원태백
박종구	1972년생	175	고 졸	회 사 원	경기안양
최용상	1970년생	170	방통대재	공 무 원	서 울
이동원	1970년생	172	대 졸	회 사 원	서 울
남정대	1971년생	173	고 졸	회 사 원	경북구미
육근성	1970년생	185	전문대졸	회 사 원	충북옥천
박이수	1960년생	168	중 졸	회 사 원	경기수원
배영순	1956년생	150	대중퇴	자 영 업	경기화성
오성택	1970년생	165	고 졸	사업예정	경기부천
변희섭	1965년생	174	고 졸	회 사 원	경북구미
김대환	1973년생	172	대 졸	학원실장	광주광역시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김창영	1970년생	163	대 졸	복 지 사	충주시
박영학	1967년생	170	고 졸	회 사 원	고양시
홍진석	1968년생	167	대 졸	시설관리	부천시
조성현	1969년생	170	전문대	회 사	서 울
배병언	1967년생	169	대 졸	회 사	부 산
전남진	1972년생	172	전문대	치기공사	서 울
이규안	1970년생	165	대 졸	건 설 사	광주시
이광표	1968년생	168	고졸자	영 업	서 울
권순석	1978년생	171	대 졸	건 설 사	경기도
박영규	1966년생	182	고졸자	영 업	전주시
문윤종	1970년생	163	고졸자	영 업	광주시
김길성	1975년생	175	전문대	공 무 원	대 전
민의식	1969년생	172	고 졸	운 송 업	부 산
최정우	1978년생	178	대 졸	건 설 사	서 울
노금광	1972년생	162	고 졸	회 사	진해시
정연종	1959년생	165	고 졸	공 무 원	충 남
오세준	1975년생	175	고 졸	회 사	경기도
박헌득	1964년생	163	고 졸	회 사	서 울
임상훈	1973년생	172	대 졸	회 사	경기도
연길호	1973년생	175	대재학	공 무 원	경기도
박성준	1965년생	169	고 졸	회 사	대구시
박준규	1971년생	170	대 졸	건 설 사	제천시
최용우	1962년생	164	고 졸	자 영 업	홍성군
조현욱	1972년생	166	고 졸	조 리 사	경기도
김진묵	1969년생	170	고 졸	공 무 원	충 북
김재원	1966년생	175	고 졸	회 사	대 구
서종은	1971년생	170	고 졸	회 사	경기도
이건우	1971년생	173	대 졸	자 영 업	경주시
박천수	1975년생	160	전문대	발전공사	강원도

[캠페인 PR]
현대불교신문 구독자 인연찾아주기
“아름다운 인연 찾기” 공개 구혼
현대불교신문 독자님들을 위한 인연 찾기 캠페인입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서로 아끼고, 함께 닦아 갈 인연을 찾습니다.
오랜 인연의 기다림으로 여성 불자님들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대성사 주지 혜철
주관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지사장 혜철스님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통리 297-4 대성사
전화 | 043)732-5560 / 010-9422-8453 팩스 | 043)732-5520
홈페이지 | www.dss.or.kr 다음카페 | cafe.daum.net/dasungsa




여러분, 한 철 살기에 우리 사람답게 삽시다!

전설의 고향에 대해서

문 요즘 Cable TV를 통해서 예전에 방영됐던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을 시간 날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옛날만의 얘기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신이다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지만 이 세상만물에 생명이 있고 마음이 있고 형상이 번연히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부하는 저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남을 해치지 않고 도와주면서 한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는지요?

답 전설의 고향을 잘들 보시지만 그건 전설의 고향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앞뒤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시지 과거에 산 거는 현실이요 현실에 사는 건 미래인 것입니다. 사람이 즉,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짐승이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 포천 어디에서 이런 예가 있었죠. 큰 구렁이가 도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 닦고 있는 것은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신문에 나고 모두 야단들이 났었거든요. 한 30년 전 얘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아마 30년 더 됐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군인들이 사단 사단이 그냥 무지하게 거기 주둔해 가지고 천막을 치려고 전부 그 산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노인네더러 꿈에 "내가 지금 도를 닦고 있는데 앞으로 사흘만 있으면 내가 다 해. 끝나. 그러니까 사흘만 말미를 좀 달라고 그렇게 말씀좀 해 달라." 하고 노인더러 그렇게 부탁을, 애원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내 몸을 딴 데로 옮길 테니까 사흘만 말미를 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얘기하니까 군인들은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 이튿날 또 꿈을 꿔서 또 가서 얘기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 이튿날, 사흘 되던 날은 아주 간곡히 얘기해서 가서 대장더러 얘기를 하니까 군인이 그런 미신을 들을 수 있겠느냐고 그러곤 안 들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웬걸 그때 천막을 치고 거기서 전부 자는데 밤에 그냥 억수같이 비가 쏟아져 가지고, 그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비가 오는 줄도 모르게 와 가지곤 그냥 산이 뭉그러져 가지고 전부 일망타진됐어요, 그냥. 근데 그 애원하고 애원하고 벌벌 떨고 빌고 빌고 빈 그 노인네 논만 그대로 요렇게 산이 무너져 가지고 막아 주고, 그 집만 막아 줬지, 딴 집들은 다 그냥 무너졌더랍니다.

나중에 보니까, 즉 말하자면 예전부터 원 노릇을 하다가 너무 욕심이 많고 너무 남의 거를 갈취를 했기 때문에 구렁이가 돼 가지고 거기서 내내 있다가 나중에 개심을 하고 천 년을 거기서 이슬을 먹고 이파리만 따 먹고 그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을 해치지 않고 천 년을 채우려면 사흘 남았는데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으니 그 동네 일판이 다 그렇게 된 건 그렇게 된 거지만 군인들이 몇백 명이, 아니 그때 몇백 명보다도 그, 숫자는 다 모르겠어요. 사단이 몇이라니까, 아주.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현상을 봐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겪어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의식이 욕심이나 아집이나 탐심, 남을 탓하는 투기, 이러한 마음을 가지신다면 안 되죠. 인생은 가랑잎과 같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래도 인간이라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도 저런 나뭇가지보다도 못한 때가 많아요. 가을이 돼서 나뭇잎이 다 떨어져도 그 가지는 벌벌 떨면서도 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조금도 해치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말입니다, 그 한 철 살기 위해서, 나그네 생활로 한 철 살기 위해서 남을 얼마나도 해칩니까. 꼭 해친다고 해서 해치는 게 아닙니다. 마음 하나 잘못 먹으면 그렇게 해쳐집니다. 거짓말 한 번 하다 보면 그걸 속이기 위해서 백 번은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이게 부처님이 가르친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세세생생을 끄달려야만 하는 그런 이치가 있는가 하면 자기의 묵은 빚 갚아야 할 것도 못 갚고 자기 육을 낳아 준 부모까지도 해를 입고 자식까지도 해를 입게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자세히 모르실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아십시오. 우리가 밥을 얻어먹고 돈벌이를 해서 살 양으로 머릴 깎고 이 중옷을 입은 게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하루 한 끼니 두 끼니 아무거로든 배 채우면 살 것을 왜 구태여 그렇게 해서 삽니까! 그렇게 부처님의 이름을 속이고 부처님의 뼈다귀를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처님이 여기 와도 부처님의 고깃덩어리를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일체 조사들의 고깃덩어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그 아리따운 마음을 꿰뚫어서 내 마음과 둘이 아닌 마음을 만들어서 내가 그렇게 베풀라는 거지요.

여러분! 부처님 법이 어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알고 가는 것이 다 부처님 법입니다. 그러니 '내가 부처님 법이고 내가 부처님 법을 행하고 있고 내 가정이 다 살아나가는 게 부처님 법 아니고 무엇인가. 내가 한 걸음 걷고 말하고 움죽거리는 게 다 부처님 법이니 이것이 참선이 아니고 무엇이며 이것이 바로 나를 발견하는 재료구나. 부딪치는 게 다 재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림 · 최주현

태양의 근본과 인간의 근본

문 태양의 근본이 인간의 근본과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법문 중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시간도 공간도 크고 작음도 없이 모두가 하나라는 말씀이신지요?

답 내가 '태양의 근본이 인간의 마음의 근본이다' 하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의 체가, 예를 들어서 태양의 그 뜨거운 속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타 죽고 없어지죠? 물질이라는 건 그렇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불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 모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도 바로 그 뜻입니다. 태양계의 모든 생명이, 아니 체 없는 생명이 모습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게 뜨겁겠습니까? 그것은 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타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따뜻한 태양 빛을 내리쬐어서 만물을, 곡식을 익혀 여러분 입에 들어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온화하고 따뜻하다면 만백성을 다 한 팔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생각을 잘 낸다면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광대무변한 것을, 그 마음을 가지고도 우리는 좁은 마음으로 뛰어넘지 못하고 참 이렇게들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까. 이 지구에서도 지금 인간이 되려고 무척 애쓰는 게 있습니다. 모습을 차츰차츰 바꿔 가면서 가다가 보니까 인간을 봐야만 자기가 그 모습을 타고나겠기에 인간을 납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납치해서 그 모형대로 그걸 봤으면 바로 자기 몸을 그대로 진화시키는 겁니다. 그러한 능력은 있으나 바로 봐야, 먹어 봐야 또는 들어봐야 모든 것을 알겠기에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서로 경쟁으로써 발전을 이룬 겁니다. 우린 인간 되는 것도 경쟁을 해서 인간이 됐고 지금 살아나가는 것도 경쟁을 하면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도량이라는 자체, 우주 전체의 한도량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치열한 경쟁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저쪽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고 저쪽에서는 이쪽 것을 수집하려고 하는 문제들이 지금도 허다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세계적인 문제에서도 이 나라에서 저 나라를 먹으려 하고 저 나라에서 이 나라를 뺏으려 하는 그런 경쟁 속에서 우리는 지금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국내의 우리 사정은 더 치열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마음 한생각이 그렇게 넓고 묘하고 또 생동력 있게 나갈 수 있고 삶의 보람을 느끼는 대인이라면 우리는 앉아서 호국불교를 할 수 있고 앉아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고 앉아서 우주에 상응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은 몸이 나서서 호국불교를 하고 우주에 상응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 하나가 지금 미국을 가려 해도 그렇고 막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뚱이가 다니면서 불교를 펴는 시기는 벌써 지났습니다. 한생각으로써 우주를 둘러쌀 수 있는 그러한 마음,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인간 하나하나에게 더불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광대무변한 이 법을 상실하고 배척하고 자기 자신의 그 광대한 능력을 아주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멸시 안 한다고 하지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이끌어 온 그 은혜를 잊고 있는 거고 또 자기 능력을 아주 포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주 대천세계로부터 우리 모두가 이렇게 등장이 됐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처음에 미생물로부터 큰 짐승으로 이렇게, 물에서도 나고 화(化)해서도 나고 그 후에는 알로 낳게 됐고 태로 낳게 됐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거죠.

비유를 해서 지금 지구에서도 세계적으로 볼 때에 '인공위성을 띄운다, 우주정거장을 세운다' 이러는 문제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마음공부를 하지 않고 무허가로서 우주에 상응도 하지 않고 회의도 안 하고 서류도 올리지 않고 우주정거장을 세운다면 우주정거장은 파괴될 수 있는 우려가 십중팔구입니다.

과학적인 문제가 거론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의 그 섭리에 서로 상응을 할 줄 모른다면, 바로 회의를 하지 않고 무시하고 들어가는 게 되기 때문에…. 그 뜻을 모르거든요. 우리의 울타리 안에서 울타리 바깥으로 권위를 쥐고 있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고 또 알 수 없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는 것은, 부딪치면 부딪치는 대로 나가는 겁니다. 타 버리고 나가고 부서집니다.

모두 헬리혜성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난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건 왜? 양면이 동등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여기로 비유해서 정보국이라고 합시다. 정보국에서 정보국장이 하달을 해서 정보원이 어떠한 순찰을 돌 때에, 잘하는 부분은 잘한다고 서

☞26면으로 계속

사찰,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음향설비 렌탈·각종 마이크·스피커·앰프 설치·찬불가 반주기 설치(550곡 수록)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앰프 시스템





무선마이크



사찰 CCTV 설치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윈미디어 방송 · 음향 · 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75-4 세운상가 가동 가열 107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Fax 02)2275-1242 H·P 010-8705-4288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 100% 환불보장



불상,석탑,석등 사찰공사 전문업체 일심석재

대한민국 석공예명장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등석: 황등석은 색상이 아름답고 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 철분이 많고 쉽게 부식되는 중국산 수입 돌과는 차원이 다른, 석질이 우수한 익산에서만 생산되는 무철분 화강암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전화 063)836-0231 팩스 836-7527
011-673-7527



김옥수 석공예명장

- 대한민국 석공예명장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제36호)
- 대한명인(06-122호)
- 現 일심석재/일심산업 대표이사
- 전국기능올림픽 석공예 2위
-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정사 공로패 수상
-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국사상과정수료
- 대한광업진흥공사 석공예기능 훈련강사 역임
- 전국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 노동부장관 표창
- 대구기능대학교 명예교수
- 사)돌문화보존회 이사장
- 제9회 돌문화축제위원회 위원장

인터넷 블로그에 「김옥수」 또는 「일심석재」를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buddhanews.com

내가 한 걸음 걷고 말하고 움죽거리는 게 다 부처님 법

☞25면에서 계속

류가 올라갈 거고 못하는 부분은 아예 파괴시킨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괴를 시키는 게 그냥 불이 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병이 들거나 어떠한 나라든지 재앙이 옵니다. 파산이 되고 국토가 나빠지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나쁘게 한다 할 수도 없고 좋게 한다 할 수도 없는 양면이 있으니 그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의 임금의 공덕이 크면 백성들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의 공덕이 크면 임금의 이름이 상천에 오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양면이 다, 우리가 마음 가짐가짐을 잘 가짐으로써 지혜로운, 생동력 있는 발전을 이룹니다. 그러니 한마음 한뜻으로써 돌아가는 이 원리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생각나는 대로 일심에서 나가는 거 일심으로 든다. 일심으로 들면 일심에서 모든 일체 만법이 나가고 든다. 그러니 네 주인공을 발견해라! 네 주인공을 발견할 때는 부처님을 봐도 부처님 형상이 내 형상이고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니 절대로 둘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실하게 살기가 너무 힘들어

문 요즘은 더욱더 고단한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저희 부부야 이날까지 어떻게든 살아왔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 자식들에게까지 이런 고단한 삶을 살게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 자신은 양심 속이지 않고 부처님께 누 되지 않게 성실하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요즘 세상은 진실하게만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도 오직 진실하게만 살아야겠지요?

답 항상 얘기해 드린 거요, 오신통이라는 그 불바퀴 속에서 정신과의 논문도 나올 수 있고 공과의 논문도 나올 수 있고 천문학과의 논문도 나올 수 있고 심리학과의 논문도 나올 수 있고 과학자의 논문도 나올 수 있고 천체물리학자의 논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의학의 논문도 나오고, 모두 전체예요. 이 속에서 다 나오는 거니 이것만 터득한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거든지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자기가 나이를 먹었으면 자식들한테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할 건 없지만 불가사의한 것도 아닙니다. 모두 갖추어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해서 쓸 수 있다면 앞으로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는 점차적으로 기도 약해지고 인간은 자꾸 병도 잦아지고 그럴 시기가 앞으로 다가오지 않나 이렇게 보죠. 왜? 자기 있는 것만 다 쓰고 있는 힘을 다 들여서 정신 노력을 해서 연구를 하고 배우는 것도 너무 그냥 어지럽게 과목을 두고 배우고 이러기 때문에 모든 기가 빠지죠. 기가 없어지면 기를 자꾸 넣어 가면서 써야 될 텐데 기를 넣을 줄을 모른다면, 꼭 차에 기름 넣을 줄 모르듯이 그렇게 된다면 차가 굴러갑니까? 지구도 유지하려면 타의에서 그 모든 것을, 광력이나 전력 자력을 또 끌어들여서 우리가 그 모두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의 한마음이란 말입니다. 물도 생명이 있고 불도 생명이 있고 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과 둘이 아닐 때에 바로 한마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물 한 그릇에 다가, 예를 들어 바다가 물 한 그릇이라고 한다면 더러운 거든 깨끗한 거든 거기다 다 부어 보십시오, 두드러지나. 콩 한 알갱이에다가 우주 삼라만상 대천세계 전부를 넣는다 하더라도, 부처님 세계를 다 넣는다 하더라도 그릇이 모자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이렇게 샘물 나오는 것과 같아서 여러분 마음속의 주인공, 그 주인공 안의 안테나가 바로 샘물이 나오는 수도꼭지와 같은 겁니다. 내가 깨달을 때까지는 그 수도꼭지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그 수도꼭지는 자연적으로 그대로 물이 있는 거기 때문에 수도꼭지다 아니다 할 거 없이 그냥 자기가 먹고 싶으면 퍼 먹고 주고 싶으면 퍼 주고 이러는 거지 여기 수도꼭지를 꼭 쥐어야 된다 이런 것도 없죠.

알고 보면 그렇지만 처음부터 아는 척하고 처음부터 "이거면 족하지." 처음부터 "이것이 없다는데 뭘 쥘 게 있어?" 아주 그냥 시험도 안 해 보고 자기가 지혜도 넓히지 못한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와서 절을 하는 것이 누구한테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익어서, 무르익어서, 고개가 숙어져 두루 자기 나무에서 자기 실과가 무르익어서만 가지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요소, 또 씨앗이 내년을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내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씨앗이 되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절을 시키는 거지 누가 절을 받기 위해서 그럽니까? 얼마나 귀찮은 줄 아십니까, 그것도? 사실은 아주 그게, 내가 받는 건 아니지만 그 대상이 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그렇지만 마다하지 않고 그냥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절을 받는 것도 일종의 심부름이에요. 그게 소홀한 일인 줄 아십니까? 제때에 참, 여러분처럼 배고플 때, 먹고 싶을 때 가서 턱 사서 갖다 끓여서 해 먹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이 주는 대로 그저 맛있는 걸 주면 맛있는 거 나눠서 먹고, 맛이 없는 거 주면 맛이 없는 거 나눠서 먹고, 맛이 있는 거면 그분들이 오면 하나씩 더 나눠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나는 이런 말을 할 때는 때로는 이 가슴에서 눈물이 흘러요, 그냥.

진실한 것은 자기만이 알지 누가 알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알아 달라는 것도 그건 습이죠. 그것도 인과가 되는 거죠. 알아 달라고 할 게 뭐 있습니까. 나만이, 내가 아는 것이 우주 법계에서 아는 것을 뭘 알아 달라고 합니까? 부처님이 내 마음에 있는데 뭣 하러 뭣 때문에 바깥에서 그렇게 허우적허우적하고 찾습니까? 내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믿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이 그런데 어떻게 바깥에서 허우적거립니까? 그거는 부처님에 누가 되는 일이죠.

그래서 나는 항상 그럽니다. 나는 일생을 통해서도, 아니 영원히 죽고 죽고 또 죽어서 가루가 된들 누가 되게 하지 않게 꼭 당신이 해야 한다고 날더러 돌아다보고 내가 그럽니다. 누가 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입니다. 사람이 살면 이 껍데기 가지고 얼마나 살기에 헛된 말을 하고 살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무지렁이가 아니고 만약에 상식이나 학식을 많이 배워서 그렇게 사는 사람 같았다면, 그리고 잘났다면 얼마나 남한테 가증스럽게 거짓말을 잘하고 얼마나 사기질을 잘했을까 하는 생각에서 몸서리가 쳐진다고요. 내가 이렇게 난 게 잘됐고 못 배운 게 잘됐고, 정말이지 차라리 어디 가서 한 그릇 얻어먹는 게 낫지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한 철 살기에 우리 사람답게 삽시다. 그리고 어떠한 교를 가지고 있든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서 누구를 미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경계하지 말고, 적어도 마음으로는 그렇게 가짐가짐을 갖고 언제나 항상 말조심하고요.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한생각 하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게 업보가 얼마나 큰지 모를 겁니다, 아마. 그냥 추측으로 생각하고 그냥 막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다면 그건 업보가 큽니다. 그러니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이 생각하십시오, 각자. 남이 칼로 찔러 죽인다, "너 이놈! 오늘 저녁에 너를 칼로 찔러 죽인다." 그러더라도 허허 하고 빙긋이 웃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을 탓 안 하고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있으니까 찔러 죽이러 온다지, 내가 없다면 찔러 죽일 게 뭐 있어서 오겠나.' 하고선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칼을 들지도 못할 겁니다.

마음을 마음대로 쓰면서 살려면

문 마음을 마음대로 쓰고 산다면 어떤 것도 괴로울 것이 없을 텐데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 것, 내 몸, 내 가족, 내 사람이라는 옹졸한 마음으로 일평생을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이 중생의 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스님, 마음을 마음대로 쓰면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도 마음대로 못하는 게 바로 지금 현실이죠. 자기가 마음으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요. 이게 바로 줄이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금 요런 주머니 안에서 요렇게 대롱대롱 매달려서 요 안에서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창살 없는 감옥이죠. 창살이 없으면서도 창살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이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서 한번 물건을 던져 보면 물건이 그냥 산산조각이 나고 그냥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여러분의 집을 한번 가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여기에서 집에 가는 거나 저 문 바깥을 가는 거나 우주 전체를 돌아가는 거나 태양계를 가는 거나 모두 차이가 없어요. 마음이라는 건 가깝고 멀고가 없어요. 그래서 빛보다 더 빠른 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보는 거죠. 빛은 한계가 있지만 마음은 한계도 없어요.

그러니 이 광대하고 무변한 묘법을, 마음의 묘법을 여러분은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이 사를 잘못 가면 어쩌나, 손이 있느니 없느니 하거든요. 또 가서도 뭐가 어떻게 되면 조상의 탓, 집이사 간 탓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매사 게 다 탓으로 돌아가요. 그게 탓으로 돌아가는 것도 과언이 아니겠지만, 영계성이 있으니까 모든 게 오겠지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용광로와 같은 데가 있으니까 모든 거를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스스로 재생이 돼서 나가요. 그 심령에 다가 영을 만 개를 집어넣었던들 두드러집니까? 악한 거든지 선한 거든지 다 들어가도 두드러지지 않아요. 그게 부처님 법이니까요. 여러분의 법이 부처님 법이요 부처님 법이 여러분의 법이니까요.

바다에 빗물이 쏟아져 들어가는데 두드러집디까? 그냥 옆에서 들어갔다고 빗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바닷물하고 따로따로 있습디까? 그런 거 보았어요? 그런 거 못 보셨죠? 영에다가 영을 백 개만 개 천 개, 이 우주 전체를 갖다가 집어넣어도 두드러지지 않아요. 그걸 다 꺼내 놔도 줄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넣어도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꺼내도 줄지 않고. 이거는 정말이지 세세생생에 광대무변하고 조상 자식들 다 건지는 공부고, 또 점점 공부를 더 하다 보면 세상을 다 건질 수 있는 공부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죽어 가는 사람이 안 죽는 게 아닙니다. 죽는 사람이, 멸하는 사람이 있어야 생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게 양면이 있기 때문에 둥글게 돌아가고, 둥글게 돌아가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진리란 것이 나왔죠.

생활의 어떠한 것도 그 오온(五蘊) 속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손을 보십시오. 손가락을 볼 때는 다섯 개가 이렇게 뚜렷하지만 주먹을 쥐었을 때는 한 주먹입니다. 이 세상도 그렇게 한세상입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바로 한세상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도 한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세상이라면 좀더 우리가 인간의 삶에 대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영원 불생불멸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하시고 불심을 좀더 돈독하게 가지시고, 진실하게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내가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 부처님 앞에 와서 진심으로써 삼 배를 올릴 때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부처님 몸이 내 몸이요 바로 부처님의 그 무한의 능력이 내 능력이기도 할 터인즉, 내가 아프다면 바로 내 지극한 마음속에서 의사가 나올 것이고, 바로 지극한 마음에서 가난을 물리칠 것이고, 지극한 마음속에서 유생 무생(有生無生)이 다 한마음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병으로 말하자면 내 마음의 그 능력의 빛이 바로 세균의, 보이지 않는 세균의 모든 것을 뿌리칠 수 있는, 즉 말하자면 빛에 의해서 녹아 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녹아 버리는가 하면 피해서 그것은 다시 몸이 화(化)해서 다른 걸로 창조가 되기도 하니 죽이는 게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게 살리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 이 겁니다.

모든 것은 생각나는 대로 일심에서 나가는 거 일심으로 든다.
일심으로 들면 일심에서 모든 일체 만법이 나가고 든다.
그러니 네 주인공을 발견해라!

발행 한 주만에 재판 인쇄

제주 약천사 혜인 스님의 신심, 원력이야기

신심, 원력

"자애로운 스승, 일타 대종사와의 인연
해인사 장경각에서 108만배 기도 성취
2천번 넘게 비행기를 타고 세계 방방곡곡 설법
제주 약천사 창건
단양 도락산 광덕사 백만불전 건립불사"



신심 | 239P 정가 10,000원 |
원력 | 285P 정가 10,000원 |

클리어마인드 CLEARMIND 02)2198-5151

설정 스님(덕숭총림 수좌)_ 혜인 선사가 평소에 실천궁행했던 경험들을 책으로 펴냈다. 거기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사부대중을 향하여 고구정령 토설했던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내용들로 짜여 있다.
무비 스님(전 조계종 교육원장)_ 사람들을 그토록 감동시키던 그 법문이 이제 글로 화하고 책으로 엮어져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고은(시인)_ 장엄한지고 여기 가장 어려운 길이 가장 쉬운 길라잡이를 만나 훤히 트였구나. 이 길 따라 가고 가면 되는구나.

전 언론이 격찬, 격찬 !!!

한국일보_ 오척 단구 어디에서 그렇게 큰 힘이 솟아났을까. 책에는 그 고행의 과정이 별다른 자랑이 아니라는 듯 소개되어 있다. **경향신문_** 책에는 스님의 신심과 원력의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스님이 법문 내용을 토대로 쓴 글들이다. 그의 법문은 유쾌하면서도 불자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법문으로 유명하다. **매일경제신문_** 혜인 스님 법문이 시작되면 불자들은 웃음과 감동이 번갈아 교차한다. 그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번에 책을 한꺼번에 두 권을 낸 것은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부처님 뜻을 전하기 위함이다. **한국경제신문_** 불교계에서 '포교제일의 부루나 존자'로 불리는 그가 두 권의 책을 한꺼번에 펴냈다.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절을 올리다 보면 108배를 넘어 140배,150배가 된다고 한다. **세계일보_** 그가 펴낸 수행에세이에는 눈물샘을 자극하는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신심과 효심, 용기를 불끈불끈 솟게 한다. 때론 배꼽을 잡게하는 솔직한 이야기도 쏟아져 나온다. 또한 인과의 진리가 담겨 있어 현대인의 잃어버린 가치관을 되찾는 데에도 친절한 길 안내가 돼준다. **국제신문_** 혜인 스님은 108만 배 이후 삶에 큰 변화를 느끼면서 설법 잘하는 법사로 통하고 있다. 감동을 주는 스님의 법문이 알려지면서 한 달에 보름 이상은 전국과 세계 곳곳을 다니며 초청법문을 한다. **불교신문_** 왜 책 제목이 신심과 원력인가. 스님은 이렇게 풀이했다. "신심은 불심(佛心)이요 원력은 보살의 마음입니다." 스님이 책을 발간한 이 유는 하나다.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기 위해서다. **현대불교신문_** 혜인 스님이 그간 걸어온 수행의 길에서 스스로 지켜 온 신심의 근거와 그 기운의 불가사의함이 페이지마다 녹아있다. **법보신문_** 책은 법문의 형식을 빌었지만 혜인 스님의 수행의 향기를 진하게 담고 있다. 서문을 장식한 고은 시인의 말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모두 함께 따라가 볼 일이다.



불자 세상보기

법현 스님
태고종 교류협력실장

절(拜) 제대로 해야 한다

이미 20년 전에 민주화를 이룩했다는 우리나라에서 단체들의 의사표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불교에서 나온 삭발과 몇 걸음 걸으면서 절하기이다. 삭발은 어리석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고 마음 닦는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 하는 몸 가다듬기이다. 사명 대사는 "머리를 깎는 것은 어지러운 마음을 잘라내는 것이요, 수염을 기르는 것은 스스로 대장부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자신의 행위를 설명했다. 사명 대사의 이야기를 설명으로 이해할 것인가, 변명으로 오해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그 글을 읽는 이의 마음에 달렸다고 할 것이다. 삭발과 몇 걸음 걸으면서 절하기에 관한 이해도 마찬가지다.

'몇 걸음 걷고 한 번 절하기(○步一拜)'는 절의 원칙이라기보다는 먼 길을 가면서 절을 하다보니 한 걸음 보다는 세 걸음이, 세 걸음 보다는 열 걸음이 목표지점에 이르는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정한 것일 뿐 다른 뜻은 없다.

우리나라 시위현장에는 새만금 간척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막 힘을 모으고 있을 때 수경 스님이 삼보일배(三步一拜)를 하고, 그 곁에 문규현 신부 등 이웃종교의 성직자들이 함께하면서 선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때 스님과 신부님, 목사님과 교무님들의 묵직한 움직임이 우리의 미래와 관련이 되는 새만금에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게 했다.

그들의 삼보일배는 새만금 간척공사를 막아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의사표현의 중요한 방법으로 뜻매김해 추미애씨는 민주당을 살리는데 쓰기도 하는 등 삼보일배는 저항운동의 트렌드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 스님과 불자뿐 아니라 좋게 말할 때 이웃종교요, 싸우면서 말할 때는 우상의 종교요, 무너뜨릴 대상이라고도 험하게 말하는 기독교의 목사까지 삭발을 하고 삼보일배를 하는 것은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다.

그런데 '열 걸음 걷고 한 번 절하기(十步一拜)'로 봉정암에 오른 보광 스님이 한 말이 불교계를 울리기 시작했다. 걸어서도 가기 힘든 설악산 봉정암을 열 걸음에 한 번 절하면서 오른 그 열정으로 순수한 신앙행위인 절하기를 정치 선전용이나 데모 수단으로 쓰지 말라는 말을 하면서 그 의미를 곱씹을 필요가 생긴 것이다.

무릇 절하는 것이야 전 세계인이 나름의 예절차리는 방법일 따름이다. 그런데 절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 '몸의 다섯 부분 땅에 대기(五體投地)'는 가장 공손한 절하기이다. 본디 절은 해칠 의사가 없음을 표현하는 원시적 인사법이다. 이마와 양 팔꿈치 그리고 두 무릎을 땅에 댐으로써 도저히 다른 존재를 해칠 수 없는 동작이 되어버린 오체투지는 종교적 신성성이 가미되면서 아름다운 뜻과 상징성을 가지게 됐다.

천태종의 수행법 중 하나인 상행삼매(常行三昧)는 마음집중의 상태인 삼매를 걸어 다니면서도 이뤄낸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절을 하면서 걷는 수행법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 교리적 배경은 모든 부처님이 보살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오랜 생을 거치면서 존재의 여러 형태를 띠게 되었고, 윤회의 현상으로 살펴보면 삼라만상이, 풀과 나무에 이르기까지 불보살이 아닌 존재가 없다는 데까지 이르게 됐다. 이른 바 초목성불론(草木成佛論)이다. 그래서 부처인 삼라만상에게 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는 기독교(가톨릭)의 천지가 하나님의 몸 아닌 곳이 없다는 것과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다. 교황이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나라의 첫 방문지에 입을 맞추는 의식인 친구(親口)를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이다.

절이라는 동작을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하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렇게 할 때는 본디 불교의 예절인 절이며, 저렇게 할 때는 동작만 절이지 내용은 다른 것이라고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불자는 바람직한 절하기를 가려내고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절하기를 제대로 하는 것인가? 절을 하는 장소가 법당이든 아니든 대상은 법당 안의 불보살님과 같기 때문에 부처님을 대하듯이 공손하게 하여야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얼굴은 평화롭게 그리고 마음은 공손하게 존경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절을 해야 한다. 트레이닝복을 입고 절을 하거나, 숫자에 매달려 대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부수효과인 건강을 강조하면서 절하는 방법을 바꿔서 하는 것도 같은 절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하물며 가장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공손한 마음과 몸으로 하는 성스러운 공양법인 절을 온통 저항의 마음과 몸짓을 표현하는데 이용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꼭 절하기를 방법으로 써야 한다면 그 뜻을 헤아려서 평화롭고 공손한 몸과 마음가짐을 미리 가져야 할 것이다.

"왜 그렇게 줏대가 없어요"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⑦⓪ 부처님 눈치만 봅니다

눈치만 보는 사람

"전 오직 부처님 눈치만 봅니다!" 신씨는 말하고 나서 자신도 놀라버렸다.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항상 윗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았다.

자라면서 신씨는 항상 아버지의 눈치를 봐야 했다. 가게를 하던 아버지는 그 날의 매상에 따라 기분이 좌우됐다. 기분이 좋은 날은 어머니에게도 좋게 이야기하고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기분이 나쁜 날은 저녁 식사 반찬부터 무조건 트집을 잡고 불평하며 어머니와 다투기 일쑤였다. 그런 때는 학교에서 정말 필요한 게 있어 돈을 달라고 해도 화만 낼 뿐 주지 않았다. 그래서 신씨와 다른 형제들은 자연히 저녁이 되면 퇴근하는 아버지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 매일 밤 아버지 기분이 어떤지를 잘 봐서 그에 맞춰서 행동해야지 안 그러면 야단맞거나 심지어 매를 맞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의 입장이나 감정은 느낄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었다. 어린 신씨가 친구와 다투고 들어와 기분이 울적해도 아버지가 기분이 좋은 날은 좋은 척 해야 했다. "건방지게 왜 얼굴을 찌푸리고 있어!" 하고 야단을 맞게 되기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그날의 기분을 결정하는 것이고 아이들은 그저 그에 따라야 했다. 자기의 감정이나 주장을 못하게 되자 학교에서도 그렇게 됐다. 항상 두려워서 선생님들의 눈치를 보게 됐다. 마음속엔 불안감이 따라다녔다. 공부 집중보다 선생님들의 기분을 살피고 신경쓰다보니 성적이 좋을 수가 없었다.

공무원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였다. 상사들은 항상 두려운 존재였다. 결제 받으려면 눈치를 보느라 쩔쩔매게 됐다. '왜 그렇게 줏대가 없어요'하고 동료나 후배들까지 뭐라고 했다. 알면서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윗사람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연상되어 꼼짝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렇게 회사 생활을 수십 년 하다 보니 억울하고 손해 보는 일도 많았다. 다른 동료들은 상사와 잘 지내면서 많은 정보도 얻고 추천도 받고 하는데 신씨는 그럴 수가 없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나

사십 중반이 넘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게 됐다. 아내를 따라 절에 나가기 시작했다. 신씨에게 충격적인 것은 모든 사람이 각자 부처라는 것이었다. 그러니 그 부처님 마음의 중심에 모든 것을 되돌리고 집중해야 한다. 모든 것이 바로 자기 마음에서 지어 놓은 대로 나온다는 점, 그러니 마음을 바꾸어야 인연도 바뀌고 환경도 바뀐다는 사실을 배우게 됐다. '그런 아버지를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입력된 대로 나온 결과이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옆에 있는 아내에게 체면을 차릴 수도 없이 일 년이 넘도록 신씨는 절에만 가면 눈물이 나왔다.

이제 인생을 바꾸고 싶었다. 모든 것을 내가 아니라 내 속의 부처님이 한다고 믿고 싶었다. 그런데 무척 어려웠다. 자신의 본래 마음을 찾으라고 하지만, 신씨는 워낙 오랜 세월 동안 자기 마음보다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는 습관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 습관된 것을 내면으로 돌리려고 하니 잘 되지 않았다. 그렇게 꾸준히 절에 다닌 지 칠년이 넘어갔다.

오늘은 중요한 일로 부서 회의를 하게 되었다. 상사가 "각자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했다. 여러 사람이 찬반에 대한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다. 신씨도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신씨의 말이 끝나자마자 상사가 "자기 의견을 말하세요! 당신은 항상 남 눈치를 봅디다"하고 면박을 주는 것이 아닌가.

중생이 바로 부처

가끔 듣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말을 듣자 화가 났다. 자기도 모르게 "전 이 세상 그 누구의 눈치도 안 봅니다. 전 오직 부처님 눈치만 봅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온 소리였다.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보고 신씨 자신도 놀랐다. 얘기를 들은 스님은 "그게 바로 거사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자성 부처님의 음성입니다" 하였다.

어떤 성격의 어려움도 결국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은 자기 내면에 있다. 중생으로서의 개인은 약하지만 근본 부처님 마음에는 누구나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 중생심을 하나하나 조복받아 부처님 마음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수행이다. 신씨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힘이 생긴 것 같았다. "부처는 본래 자기 마음 속에 있는데 그것을 모르니 중생이다"라는 법어가 실감난다고 한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社說

MB 정부의 '狂信病' 공포

촛불 정국이 나라의 앞날을 암울하게 하는 가운데 불교계는 '광우병'보다 무서운 '광신병(狂信病)'의 공포에 놓여 있다. 불교계가 장로 대통령인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련의 종교편향을 우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종교편향 사례들은 현 정부의 종교코드가 개신교로 집중되어 있음을 드러내 보인다. '고소영 정권'이란 말은 소망교회 출신을 고위직에 발탁한데 대한 편협성을 꼬집고 있다. 어청수 경찰청장의 상반신 사진이 담긴 '경찰복음화' 포스터가 경찰청에 개시된 것이나 지도에서 사찰을 빼고, 개신교 신자인 학교장이 교내의 문화재를 땅에 묻었다가 창고에 방치하는 사례들은 현 정부의 종교적 우월주의 내지는 극에 달한 오만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종교편향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뿐일 것이다. 다종교 사회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많은 만큼 단점도 많게 마련이다. 그 단점이 충돌 양상으로 확대되면 국민간의 반목과 대립으로 망국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지금 개신교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편향적 사례들은 충돌의 직전으로까지 몰려가고 있는 느낌이다.

정부기관이나 교육현장 행정일선 등 공직에 있는 사람들만 정신 차려도 편향 사례의 9할은 줄어들 것이다. 자신의 종교와 직분을 구별하지 못하는 '얼간이' 같은 사람은 그 자리를 내놓는 게 옳다. 불교계도 이번 기회에 종교편향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시기구를 꾸려야 할 것이다.

산마다 케이블카 건설 열기?

명산(名山)이 명산인 이유는 빼어난 풍광이 있기 때문이다. 경치가 좋고 생태환경이 뛰어나지 않으면 명산이 될 수 없다. 사람과 조수가 깃들어 안온하지 않은 산이 어떻게 명산이 되겠는가? 산은 생명을 품어 기르는 공덕만으로도 존엄한 대접을 받아 마땅하다. 삶에 지친 사람들이 산을 그리워하는 것은 본능일 것이다. 명산에 명찰이 있는 것 또한 사찰의 존재 이유가 수행에 있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큰 산은 큰 사람을 낳는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산들은 이름이 있건 없건 다 명산이다. 인심을 풍성하게 하고 생명들의 터전을 제공하며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담아 온 산들은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산을 오르는 방법이 달라지고 있다. 한 걸음씩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케이블카를 설치해 몸을 움직이지 않고 정상에 오르려는 욕심에 산마다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황산 같은 고산도 아닌데 굳이 케이블카를 설치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수행환경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개발이익을 노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산기는 우리 민족이 유전자로 전해 받은 산에 대한 '정신적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 밀양 얼음골이나 팔공산의 케이블카 설립 추진은 자연과 동화되어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저버리고 자연을 짓밟고 살아가는 탐욕을 가르치는 것이다.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다. 정복의 대상으로 삼을 때 자연으로부터 받을 역공은 이미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심사숙고 할 일이다.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활 동 지 역	연 락 처
부산지사	오 세 룡	부산일원	051)632-0064 / 011-847-1211
대구지사	손 문 철	대구일원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충북 / 충남	043)732-5560 / 010-9422-8453
경남 동부지사	혜봉스님	밀양 / 창령 / 의령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영민스님	김해 / 마산 / 거제	055)355-7472 / 011-9312-222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광주 / 전남지역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전북지역	063)910-5199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영주 / 문경 / 봉화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남해/고성/시천/함양/진주	055)746-9778 / 011-870-0021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

禪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경허 용성 학명 만공
한암 만암 만해 효봉
혜암 동산 경봉 고암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眞面目을 선시로 읽다.



[송준영 지음 / 여시아문 펴냄 / 575쪽 / 25,000원]

선의 중흥조 경허 스님에서 고암 스님까지 12명 걸승들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선시의 '완전 이해'

〈황금털사자의 미미소〉는 한국 현대 문단에 선시의 이론을 세운 독보적 존재
송준영 시인이 12명 선사들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소개한 노작입니다.

저자 송준영 선생이 말하는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 책의 제목이 뭔가 큰 느낌을 주는데 무슨 뜻인지요?

'황금털사자'는 선시에 나타나는 '금모사자(金毛獅子)'의 한글 번역입니다. 문헌상 처음 금모사자란 이름이 보이는 것은 당대에 어떤 선사가 조주 선사에게 준 "구름 속에 황금털사자가 나타나더라도/정안에 길조가 아닐 텐데"라는 게송에서 보입니다. 중국 오대산 청량사는 화엄종의 4조 청량국사를 기리어 건립하였는데, 청량국사가 설법할 때에는 구름 속에 황금털사자가 나타났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황금털사자란 우리의 본원의 면목을 그렇게 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선시에 보이는 무한실상의 표현입니다. 흔히 선가에서 이르는 부지(不知)니 불식(不識)이니 불회(不會)의 형상화입니다. 이 책에서는 근현대의 선지식이 우리에게 흘러 보내는 자비심의 실상, 이것의 다른 이름입니다.

- 선시를 통해서 선사들의 생애를 조명하는 것은 참으로 신선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선도 전문적 안목을 필요로 하고 선시도 그렇습니다. 문학에 관심이 없는사람들에게도 선시가 조사들의 가풍을 이해하는 좋은 징이 될 수 있을까요?

조사님들의 선시는 모두 중생의눈을 뜨여주려는 자비심의 발로였습니다. 시인은 새로운 미학, 즉 시인이 본 이면의 세계, 피어나는 찰나에 대한 아름다움을 언어로 보여주고자 하는 세계라면 선장들은 생동하는 우리 삶을, 에너지를 이념이나 되새김 없이 바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런 점에서 시와 선이 서로 만나집니다. 그렇지만 그 목적에 있어서 선시는우리는 본원지, 대자유지인 실상에서 만나게 하는 데 발현져 있는데 반하여, 시는 시라는 장르에 의해 써진 언어의 아름다움인 미학적인 기쁨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선시이던 모두 중생을 눈뜨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읊어졌기 때문에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문장이나 전승된 문장이나는 관계없이 나타납니다. 선시는 문학의 관심과는 1차적으로 직결된다기보다 선 도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이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표현되어지지 않는 본래면목을 보여주기 위해 선시 고유의 수사학이 발달되는데, 이것이 선시의 반상합도, 선시의 초월은유, 선시의 무한실상 등의 모순적 어법에 의해 합도 되는 다른 빼어난 세계입니다. 이것이 오늘 포스트모더니즘이 보여주고자 하는 새로운 상상의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선시의 표현법은 이미 1000여년 계승되어 온 것들입니다. 그런데위의 수사법은 아방가르드 시나 후기현대주의 시의 중심 사상을 옮기는 수사학과 거의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시를 잘 이해하므로 조사들의 가풍은 물론 실험적인 포스트모더니즘 시를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 책은 어떤 구조로 짜여 있는지요. 자료 수집에 애로사항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허 스님에서 전강 스님까지 11명 선사들의 계송-상당법어나 소참법문-직접 쓴 서문이나 서간문-투고 글-대담-선사의 대기대용-선의 법맥-선화로 본 행장-연보 등이 순서대로 실려 있습니다. 가능한대로 문도회서 만든 어록이나 법어, 그리고 학자들이 기록한 근거 있고 인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로 한정하여 묶었습니다. 그리고 문도회에서 직접 묶은 어록이 없을 때는 그의 스승이나 제자의 어록들을 찾아 제편집하였습니다. 막상 이렇게 찾아 나서다 보니 턱없이 부족하여 구술된자료들도 문증하여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책은 '한국의 선시 1'이라는 부제를 달고있고, 경허 스님에서 전강스님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 시리즈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지금 2권의 자료가 거의 준비되고 있습니다. 고암, 금오, 청담, 탄허, 성철, 서옹 등등의 제 선사들의 선시와 선, 2권 역시 12명의 선사를 기록할까 합니다. 특히 1권에서 자료부족으로 싣지 못했던 혜월 선사에 대해 기록할까 합니다. 혹 귀중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수월 선사와 혜월 선사의 자료를보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올 겨울이면 제2권이 간행될것입니다.

여시아문 02)2004-8237 | 016-217-4845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 국민 023-25-0007-61 예금주:(주)에이치비엠씨

전통과 실력의 우수업체
범양금고 불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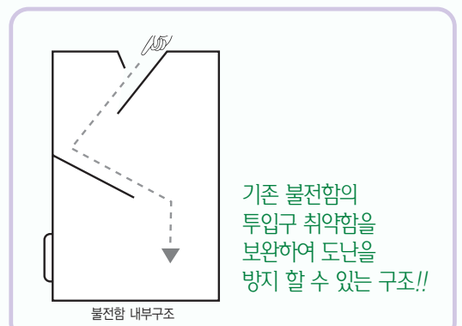
※본 이미지는 실사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불전함 · 외 부 : 높이 700×넓이 700×깊이 350(mm)
· 투입구 : 가로 380×세로 90(mm) · 무 게 : 60Kg

기존의 목재 불전함과 크기 및 외관이 흡사하여 금고를 사용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 하였으며 통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하였습니다.
특히 투입구의 취약함을 차단하여 더욱 안전하며, 바퀴부착으로 이동 및 설치가 편리합니다.

수시로 훼손되는 목재형 불전함과는 안정성 및 비용면에서 안심하실수 있습니다.

[불전함 야외용 주문 제작 가능]


불전함 내부구조

기존 불전함의 투입구 취약함을 보완하여 도난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

범양금고의 모든것이 있습니다. http://bumyang.net

특허신청중. 주문제작. 전국 택배 가능(최대 3일이내)

일반 내화금고
(가정용,사무용)도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범양금고 전화 02)2277-1540 / 031)764-6234, 6233 / 팩스 031)764-6462
011-414-2304(사장直)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연곡리 172-5